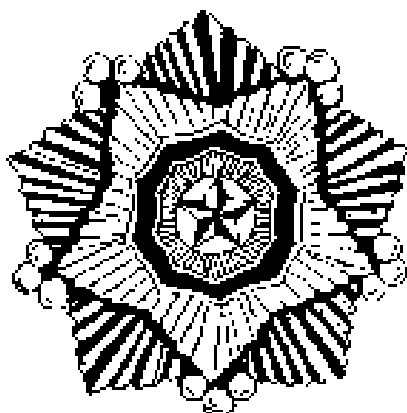




6

주체 91 (200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1(2002)년 제6호

(루계 제 656 호)

◆◆◆◆◆◆◆◆◆◆ 차 례 ◆◆◆◆◆◆◆◆◆◆

우리의 6월 19일	4
우리는 무적의 김정일 군대	4
백두산아들의 인사	5
내 나라 아리랑	5
인간의 노래	6
우리 삶의 별.....	15
명언해설	16
백두산의 길	16
주체성과 민족성은 새 세기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17
전호가에 피여 난 꽃.....	19
우리 장군님은 젊으시다	20
축제	21
우리 마을 시내가의 작은 발전소.....	22
거리의 미소	23
하늘이 따르다.....	35
사랑만은 영원하리	35
우리의 세월은 어떻게 흐르는가	36

길, 우리, 봄의 고향이 안고 있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	38
우리 장군님 필체.....	41
작가와 애국	42
우리의 봄명절.....	50
푸른 전나무	51
내 조국을 더 사랑하고 싶어 진다.....	62
나는 협동벌사람이다.....	66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67
나는 고무신임자를 찾는다.....	74
레루뭇에 대한 시.....	75
걱정 마세요	75
시행과 운률	76
5 월봄명절.....	79
전국가사문학현상모집 요강	80

우리의 6월 19일

신문경

이 땅에 생을 둔 수천만 인민이
소원으로 기다림으로 이룰수 없는 행복이
이날에 벌써 이루어 졌구나
6월 19일

붉은 글자로 새겨 지지 않은 날
뜻 깊은 명절들
건국의 기념일들이
이날로 하여 지켜 지고 오늘에로 빛나오나니

수천년의 역사를 전해 오는 이 나라가
이룰수 없었던 행운이
이날에 벌써 찾아 왔구나
6월 19일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대문자로 새겨 넣은 날
우리 당의 경사의 날
내 조국의 큰 날이어

누구의 운명을 두고
따로 할 말이 있으랴
그 행운에 인민은 새 모습이 되고
그 영광에 조국은 번영의 시대 맞이했나니

명절이여라
크나큰 명절이여라
위인이 남긴 명절은 세상에 많아도
그 령도의 첫 자욱을 귀중히 안아
해마다 인민이 더 뜨겁게 맞는
6월 19일

그 어느 역사를 두고 대비할수 있으랴
당의 기치로 군대는 강군이 되고
인민은 일심의 대오로 뭉쳐 지고
《20 세기 문예부흥》으로 민족이 자랑 펼친
장군님 당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로부터 수십성상

천년세월도 줄수 없고
만년소원으로도 얻을수 없는
수령복 위인복이 너무도 커서
인민이 노래하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이런 명절은 우리에게만 있으리
아, 조선의 6월 19일이여

아직은 달력에도

가사

우리는 무적의 김정일군대

안정기

노래를 부르면 우뢰가 되고
발걸음 구르면 지동이 인다
백두산의 혈통을 이어 온 군대
우리는 무적의 **김정일**군대

령장의 품에서 강군이 되어
하늘 땅 바다를 틀어 쥐었다

백두산의 혈통을 이어 온 군대
우리는 무적의 **김정일**군대

우리와 맞설자 세상 누구냐
멸적의 총창에 번개가 인다
백두산의 혈통을 이어 온 군대
우리는 무적의 **김정일**군대

백두산아들의 인사

리창식

밤은 깊어라

보천보의 밤은 깊어라

허나 그 밤보다 더 깊어 가는것은

조국의 모습 지켜 보시는

장군의 마음

수난에 짓눌린 처마밑에

하나둘 꺼져 가는 불빛을 세이며

그이는 말없이 듣고 계신다

보천보의 한 서린 숨소리

어둠속에서도 그이는 다 보고 계신다

골목골목 설움에 잠긴 얼굴들을

잘 있었느냐 묻기엔

너무나 슬픈 조국의 밤

얼마나 그림던 모습들이

이 밤밑에 피로이 잠든것인가

한달음에 달려 가 안아 보고 싶구나

바람 세찬 압록강가

포평나루터에서

눈물속에

눈물속에 헤여졌던 겨레

타향의 기나긴 밤

꿈결에도 못 잊던 그 모습들

하루에도 열백번은 더 안아 주고 싶던

피를 나눈 혈육들이 여기 있거니

무슨 말로 다 전하랴

사랑으로 끓는 장군의 심중을

정녕 무엇으로 대신하랴

피어린 싸움길 걸어 조국으로 온

백두산아들의 눈물 겨운 첫 인사를

천만마디 말을 채워 안고

장군은

백두의 싸창을 쳐드셨다

머리 숙여 다할 길 없는 아들의 인사를

보천보의 밤하늘을 깨쳐

그이 전하시나니

아, 장군의 심장이 터친

충성의 메아리

백두산아들의 불 같은 인사를

3천리가 다 들었다

광복의 개선광장이 들었다!

가사

내 나라 아리랑

박두천

산에 가면 푸른 숲에 온갖 새들 날아 들고

넓게 펼친 새땅에는 벼바다가 춤을 추네

무릉도원 펼쳐 가는 금수강산 내 나라

아리랑 아리랑 락원의 제일강산

화목한 대가정에 천만식솔 한뜻 되고

일터마다 흥에 겨워 노래소리 넘쳐 나네

붉은 기발 휘날리며 전진하는 내 나라

아리랑 아리랑 행복의 제일강산

사랑의 날과 달이 미래를 불러 오며

새 력사의 큰 걸음을 이 땅에 새겨 가네

장군님뜻이 꽃 피 번모되는 내 나라

아리랑 아리랑 승리의 제일강산

아리랑 아리랑 제일강산 아리랑

살기 좋아 노래하네 내 나라 아리랑

인간의 노래

박 윤

보통사람들에게는 평범하고 레사로운 이 저녁이 그에게는 아픔과 슬픔, 고통과 좌절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운명의 시각으로 되어 버렸다.

눈 내리는 겨울밤, 다년간 설계실장으로 일하던 차원호는 광산으로 가는 파견장을 손에 쥐자 곧장 집으로 향했다. 일단 본인의 요구대로 배치지가 승인되자 마음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으나 그것은 한갓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하였다.

생활은 그가 자기의 열정과 지혜를 다 바쳐 우리 나라 기계공업발전을 위해 한창 심장을 불 태울 때 불의의 타격을 가했다. 뜻밖에도 그가 이태동안 심혈을 기울여 설계했고 우리의 자재와 기술로 만든 초대형 광산기계가 현장시운전에서 폭발해 버린 것이었다. 사고는 물론 정신적의미의 손실과 함께 경제적손해도 적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관계부문 일꾼들의 참가밑에 곧 사고심의가 있었다.

그 광산기계의 완성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만큼 일부 사람들은 차원호가 지난 날 범한 사소한 결함들도 잊지 않았다. 아침이면 늘 리성광국장의 승용차에 묻어 내리곤 하는 은테안경을 낀 부실장은 연락을 두드리며 설계실장동무는 현장시운전을 타산해서 하라는 국장의 지시에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소리 질렀다. 목소리들이 날카로와 지기 시작했다. 끝내 연락우의 물고뿌가 회관 바닥에 떨어 저 박산이 났다.

론조는 급기야 열기 띤 목소리들에 떠받들려 그가 나라의 경제사정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이해관계만을 위하여 안하무인격으로 주관과 독단을 부린데 있다는데까지 번져 갔다. 현장시험은 물론 이 초대형기계에 대한 연구사업자체가 앞길이 묘연하고 성공이 불가능하다는데 여러 의견이 모아 졌다.

질은 눈섭밑에 파묻힌 크지 않은 눈을 번쩍이며 국장이 흥분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저었다. 과학연구에 대한 맹렬한 사고를 지닌 그의 무게 있는 발언이 저으기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과학사업에서 인신공격은 백해무익한거요. 난 그런 측면에서 실장동무의 랑심을 의심해 본적이 없소. 과학기술발전력사에 실패를 거치지 않은 큰 연구사업이 있었는가…》

얼굴을 들지 못한채 가슴을 옥죄이던 차원호는 리성광의 그 목소리가 눈물겹게 고마왔다.

한때는 생산현장에서 손 잡고 함께 일한 첫 기사시절의 잊을수 없는 선배였다....

회의가 끝난후 그는 국장의 방으로 갔다.

리성광은 평소에 아래사람들앞에서 보여 주던 그 엄하고 다소 표표한 낯빛을 거두며 측은해 하는 눈길로 차원호를 올려다 보았다.

《동무가 당위원회에까지 제기했다니 광산으로 내려 가는걸 말리진 않겠소. 어쩐지 마음에 걸리누만. 딴 사람들이 뭘니뭘니해도 난 동무를 믿고 있소. 가쪽들이 일 없겠는지... 더구나 동무 안해처럼 연약한 녀성이 산골에 가서 뭘할수 있겠는지...》

국장은 심란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 났다.

담배를 피워 물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많은 의미가 담긴 무거운 침묵이었다.

차원호는 자기의 속생각을 이 순간 국장에게 말하기가 주저되었다. 무엇인가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국장이 얼핏 그를 돌아 보았다.

《국장동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광산에 내려가서 연구를 계속해 보됩니다. 파쇄기가 있는 현실속에서 체철헤 보겠습니다.》

리성광이 들고 있는 담배의 재가 위태롭게 길게 늘어 졌다. 그는 조심스레 돌아 서서 재털이 쪽으로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하지만 재는 중간에서 떨어 저 버렸다.

리성광은 미간을 찌프렸다.

《원호동무, 락심할건 없소. 하지만 과학자는 현실, 아니 설계도면앞에서는 최대로 팽정해야 하는거요. 솔직한 말로 선진국들에서도 몇해에 한대씩 주문생산하는 초대형정밀기계를... 동무도 알다싶이 나를 보고 보수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지. 자력갱생의 의미를 높은 세계에서 생각해야하오.》

《국장동지는...》

《현명한 인간은 자기가 한번 넘어 졌던 곳에 에돌아 가는 법이요. 어쨌든 현실은 동무의 눈을 띄워 줄거요. 성공한다면 체면이 문제겠소? 지금까지 동무를 떠밀어 준 내가 아니요. 믿겠소. 그리고 그곳 광산지배인에게 내인사를 전하우. 도움을 줄거요. 이전에 나와 함께 일하던 동무요.》

《고맙습니다.》

《아무때나 알리우. 어려울 땐 어느 때나 돕겠소. 이건 진심이요.》

리성광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사람의 손은 다 부드럽고 만만한 지식인의 손이었다. 국장의 손은 저으기 차거웠다. 손이 찬 사람은 심장이 뜨겁다고 했던가?

차원호는 파견장을 움켜 쥐고 국장방을 나왔다. 그는 긴 복도를 따라 비칠거리며 걸어 갔다. 인간이, 생활이 그렇게 비칠거리고 있었다. 그 생활은 미묘하고 엄혹한 것이었다. 아침저녁 만나면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어쩐지 그의 옆을 지나가며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외면하는 것이 느껴졌다.

차원호는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 아니, 어찌보면 자기 편에서 사람들을 피했는지도 모른다.

의기소침해진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경원시하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대로 감수했다.

누가 넘어진 사람에게 선뜻 손을 내밀겠는가?

그런 동정의 손길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면 구태여 함께 넘어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때로 자기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거나 힘을 주는 가까운 사람들의 행동마저 외교적인 것으로 느껴지면서 서글픈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탓할 수도 불만을 가질 수도 없었다. 그는 자기의 죄의식에 묻혀 있었다.

그는 눈썹이 날리는 텅 빈 거리를 지나 보통강 기슭의 집으로 돌아 왔다.

집안은 어수선했다. 안해가 이사짐을 꾸리냈는지 책들이 되는데로 쌓여 있고 트렁크들이 한옆에 무저어 있었다. 안해는 없었다. 침대우에는 이불이 몇채 놓여 있는데 그 한쪽 구석을 파고 들어 다섯살짜리 아들이며 몸을 웅크린채 췌근췌근 자고 있었다.

차원호는 모로 넘어진 의자를 바로 놓고 앉아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입안이 쓰거웠다. 문득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문에 기대서서 눈물이 글썽한 커다란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던 안해의 해쓷은 얼굴이 떠올랐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이 자진해서... 어디 광산촌으로 내려 간다고들 하던데... 평양에 그냥 있으면 연구사업이 안되나요? 네?》

안해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근심에 젖어 있었다. 그는 대답을 피했다. 그의 안해는 유명한 건축학교수의 외동딸이었다. 음악무용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이름 있는 예술단의 무용수로, 결혼 후에는 재능 있는 안무가로 명성을 떨쳐 온 안해였다.

차원호는 그 안해의 얼굴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코언저리에 연한 주근깨가 박혔지만 선명한 고운 선이 흐르는 해맑은 얼굴에서 검은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인다. 그 바르르 떠는 눈동자가 입보다 더 많은 의문과 기대를 호소하고 있다. 간결히 꿰치고 있다.

어떻게 되어 갈꽃처럼 연약하고 아름다운 이

녀자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을가? 대학시절 논문철을 들고 교수의 집을 찾아 갔던 일, 밤 늦어서야 그는 환희에 찬 마음으로 교수의 서재를 나섰었다. 그때 그는 문가에서 조용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바래주던 목이 상큼하고 커다란 눈에 고이던 애수의 빛이 흐르는 것 같은 청초한 처녀대학생을 얼핏 스쳐 보았을 뿐이었다. 그가 세 번째로 교수의 집을 방문했을 때는 스승대신 그 처녀가 맞아 주었다. 눈밑의 연한 주근깨가 딸기씨처럼 붉어질 때 차원호는 심장 한구석에 지긋한 아픔을 느꼈다. 그 아픔은 오래동안 그를 따라 다녔다. ... 언제 한번 고요한 저녁 유원지 호수가로 뽀트를 저어 간적도 없는 그들이었다. 언제 한번 안개 낀 강변의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인생을 속삭인 적도 없는 두 남녀였다. 그러나 그 녀자가 찾아왔던 천정 낮은 대학기숙사 접수실이며 헤어지기 아쉬워 뺄스를 두번세번 지나보내던 민속박물관 옆 정류소들에, 그 어떤 숙명적인 우연성으로 자주 마주치던 구역도서관의 고정된 자리들에 그들의 우정, 사랑이, 추억의 사연들이 간직되어 있었다. 봄시내물처럼 다정히 그들은 일곱해를 살아왔다. 그러나 시내물은 얼어 붙고 이젠 그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싶었다. ...

《여보, 내 결심은 이미 굳어 졌소. 대형파쇄기가 있는 그... 운명의 땅으로 꼭 가고 싶소. 하지만... 난 당신에게 강요하진 않으려오. 당신 마음대로 하우. ... 아버지네 집에 그냥 눌러 있겠으면 있소. ... 다만 내 량심이 가리켜서 나선 걸음을 제발 막지 말아 주오!...》

그 말에 안해는 얼굴을 두 손으로 싸쥐고 방에서 뛰쳐 나가 버렸다. ...

수도꼭지를 채 막지 않았는지 부엌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 왔다. 그 단조로운 음향이 그 어떤 출발의 계시처럼 그의 마음을 압박했다.

안해는 왜 아직 돌아 오지 않을까.

의혹감이 머리를 들었다.

(과연 오래동안 한가마뱀을 먹은 안해마저도 나를 외면하려는 것일까? 설마 안해마저 나를...)

쓰거운 모멸감과 자신에 대한 환멸이 가슴에 밀물처럼 흘러 들었다.

그러나 그 안해는 돌아 왔다. 두눈이 푸석푸석 부어 하루밤 사이에 몰라 보게 달라진 그 녀자는 어린 아들을 품에 꼭 껴안고 역으로 나왔다.

차표를 사느라고 한발 먼저 나온 차원호는 장인인 로교수와 함께 역후에서 서 있었다. 차원호는 쓸쓸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 보았다. 부서동무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오늘 떠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실패한 인간이 떠나는 길에 무슨 전송이 필요하랴.

했건만 어쩐지 마음은 허전했다.

그는 의미없이 나들문쪽을 살피다가는 제빨리 움직이는 안해의 눈길과 마주치곤 했다. 안해의 눈에는 측은해 하는듯 한, 무엇인가에 분개해 하는듯 한 강잉한 빛이 어려 있었다. 로교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렬차가 떠날 림박에야 로교수는 그의 어깨를 뜨겁게 불안았을뿐이었다. 렬차의 기적소리가 안개 낀 도시의 상공을 흔들었다.

렬차는 서서히 흠을 빠져 나왔다.

갑자기 날씨가 풀렸는지 차창밖은 회백색운무가 자욱하고 멀리 보통강반에 새로 건설되는 현대식거리의 기중기들이 어렴풋이 눈에 안겨 든다.

안해와 아들은 차창밖을 정신없이 내다보며 눈길을 땔줄 몰랐다.

그들이 나서 자란 사랑하는 도시, 정든 수도가 멀어 지는것이다. 먼하늘에 기발처럼 타오르는 아침노을이 그의 가슴에 비쳐 들면서 짜릿한 아픔과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차원호는 렬차안바닥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작 이렇게 떠나고 보니 마음속에 항시 간직되어 있는 친근한 그이를 찾아 뵙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하지만 가슴아픈 실패를 당한 몸이니 그것은 피치 못할 길이기도 하였다.

그분, 검소한 혼방직옷차림에 수수한 운동화를 신으셨던 그분, 빛나는 예지와 한 없는 인간애가 빛발치는 자애로운 눈길, 다정하신 미소, 열정과 창조 의 힘이 느껴 지는 그 음성...

홀려 간 애젊은 시절, 차원호는 바람 세찬 연세건설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를 처음으로 맞이하였다. 건설현장을 실무지도하시던 장군님께서는 광산기계전문학교를 나온 차원호가 구상한 소박한 새형의 자동타입기설계안을 몸수 보아 주시었다. 언제건설을 다그치는 골짜기에 햇빛이 눈부신 여름날 중낮이었다.

차원호는 점심시간이어서 텅 비어 있는 작업장 휴게실에서 도면을 놓고 사색하다가 그이를 뜻밖에 뵈었다.

그이께서는 작은 피창을 통하여 해살이 엇갈려 비쳐 드는 휴게실의 투박한 나무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그 보풀이 인 크지 않은 종이장을 오래도록 들여다 보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그 평범한 설계도에서 제발로 걸어 나가려는 애젊은 준기사의 지향을 찾으신듯 못내 기뻐 하시었다.

《동무의 첫 창조물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 힘으로 탐구하려는 사색과 열정이 엇보이누만. 그래 이걸 건설장지휘부에 상정시켰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일어 서려는 차원호를 그냥 눌러 앉히시었다.

차원호는 두손을 모아 잡고 머리를 짓수그렸다.

《예. 하지만... 누구도 보지...》

《허, 보지도 않더라 말이지요. 누구에게 찾아갔겠소?》

《기술과장동지랑... 지배인동지는 시답지 않아했습니다.》

차원호의 서글픈 목소리에 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었다.

《허허, 보고 인정하기는커녕 푸대접을 했구만. 그럴수가 있나? 내 보기엔 착상이 새롭고 기술적으로도 발견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얼굴에 그늘을 지으며 생각에 잠기셨다가 차원호의 고향과 가족에 대해서도 물으시었다.

차원호는 코허리가 시큰해 지었다. 들끓는 건설장의 분망한 소용돌이, 계획과 전투, 장마와 야간작업, 언제 누가 헛로동자의 지난 생활에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여유도 없었다. 아직은 건설장에 배낭을 풀어 놓은지 한해도 못된 그였다.

고향, 가족... 조선중부의 두메산골, 가을이면 누런 뽕호박과 빨간 고추가 첫 서리속에 눈을 찌르던 동기와지붕... 아버지는 광복전 소금밭에서 소금자루를 메나르던 낮 놓고 《ㄱ》자도 모르는 알짜 무식쟁이었다.

조국해방전쟁, 전사한 아버지의 소식, 외할머니네 집, 그는 고향의 첫 설계준기사였다.

《아버지가 평범한 소금밭로동자였던 말이지... 차원호동무야말로 우리 당이 키워 낸 기술청년이구만. 과학담구란 험산준령과 같소. 첫 걸음부터 흔들림이 없고 의지가 강해야 되오. 우리는 동무를 믿고 싶소. 훌륭한 과학자가 되시오.》

장군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젊은 준기사의 순박한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시었다.

그날 저녁, 건설지휘부 일군들을 만나신 장군님께서는 새로 일떠세우는 연세건설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료해하신후 애로되는것이 없는가를 제삼 물으시었다.

한 일군이 건설에서 전진을 가져오자면 낡은 타입설비들을 개조할수 있도록 권위 있는 전문기술집단의 방조를 받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 올렸다.

장군님께서는 턱에 먼도자리가 푸릿한 그 일군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동무들 자체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안되겠습니까?》

장군님의 말씀에 일군은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저... 우리에게는 기계전문기술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을 찬찬히 지켜 보시다가 모여 선 사람들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었다.

《내 보기엔 일군들이 인재를 눈앞에 두고서 멀

리에서 찾는것 같습니다. 허허, 인재를 찾아 내는 것도 하나의 발견입니다. 인간의 발견으로부터 과학기술의 발견도 뒤따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재능 있는 한 동무를 만나보았습니다. 공무직장에 있는 차원호동무말입니다.

그 동무에게 말겨 보면 어떻습니까? 광산기계 전문을 나온 청년입니다.》

그러자 일군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다. 한 기술일군이 주저하다가 한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그는 차원호가 언제기초공사를 할 때 자동타입기를 개조한다고 하면서 건설장타입기를 뜯어 놓았다가 못 쓰게 만든 사실을 말씀 올렸다.

그후 차원호는 공무직장으로 조동되었던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오래도록 사색에 잠기시여 건설장지휘부방안을 거니시였다. 그이의 눈가에는 가벼운 고뇌와 준절한 빛이 비껴 갔다.

《타입기를 마사 먹었던 말이지요... 옳습니다. 마스기는 쉬워도 만들기는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무엇인가를 애써 자제하시는듯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

《창조! 물론 높은 실력과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겠는가? 열정과 정치성을 높여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창조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수, 실패를 통하여 새것이 태어나고 전진하는것입니다.

말겨 봅시다. 나는 오늘 그 동무가 창안한 설계안을 보았습니다. 동무들이 믿어 주고 힘을 보태주면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이의 절절한 말씨는 건설지휘부일군들의 심장을 흔들었다.

장군님께서 다녀 가신 뒤 차원호는 건설사업소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났다... 언제건설이 끝난후 차원호는 정든 일터를 떠나 대학의 큰문을 두드렸다...

몇해후 차원호는 광산기계공장 설계기사로 배치되어 초대형광산기계설계구상을 무르익히다가 작업복차림으로 또다시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었다.

광산기계공장을 몸소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 광산들에서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초대형파쇄기를 제 힘으로 만들려는 그의 지향을 들으시고 그렇게도 기뻐 하시였다.

《이렇게 현장기사로 성장한 동무를 만나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소.

동무도 아다실이 나라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외국에서 기계를 사다 쓰

겠다고 그냥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아무때나 찾아 오시오. 나는 한번 마음을 준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의 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정과 뜻을 같이 할 동지를 만났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차원호의 손을 오래도록 잡으시고 놓으실줄 몰랐다. 그 뜨거운 손길, 그 믿음의 목소리는 차원호의 심장속에 영원한 기억으로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는 추억에서 깨어났다. 열차가 시내의 다음 역에 멎었던것이다. 역구내너머 야산기슭에 광산기계공장건물이 보였다. 안해는 어느새 군잠에 든 아들을 들어 의자우에 모로 눕히며 남편을 돌아 보았다. 그 녀자의 얼굴에 다문다문한 주근깨가 선명히 살아 오른다.

《여보, 어쩔 아는 사람들이 한명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

안해는 그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줄 모르고 있는것이다. 차원호는 그래도 어쩐지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뭘니 뭘니 해두 이제 당신에게 우리 둘과 아이 밖에 없어요!》

저으기 갈린듯 싶은 안해의 음성은 나이든 녀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안해는 아들을 품에 안고 외투를 덧씌워 주었다.

그 순간 차창밖에 얼핏 눈을 주었던 차원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역홈에서 있는 사람들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알아 보았던것이다.

갑자기 가슴이 찢릿하게 젖어 왔다.

그는 허둥거리며 열차에서 내렸다.

현장기사시절부터 고락을 함께 해온 로동자들과 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손들을 내밀었다.

《실장동지, 왜 이렇게 서둘러 떠납니까? 방금 전에야 소식을 알았습니다.

어제 우리 동무들이 파쇄기를 분해하고 연구해봤는데 가동기구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몸매가 다부져 보이는 광산기계공장 조립작업반장이 그에게 부분설계도를 내밀었다. 차원호는 잃었던 그 무엇,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을 되찾는 심정으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설계도가 그저 뿌옇게 보인다. 그는 보풀인 설계도를 어루 쓸어 만지였다.

《반장동무, 고맙소!...》

《정말 분합니다... 우린 실장동지가 꼭 일어 서리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초대형기계를 만들수 없다고 한하는데 그래 우리 로동계급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어긴적이 있습니까.

실장동지도 생각하겠지요. 우리 장군님께서 보고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린 실장동지의 결심

을 지지합니다. 직접 광산에 내려 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털차기적소리가 안개속에서 길게 울렸다.

차원호는 서둘러 조립반장의 손을 잡아 흔든 후 사람들에게로 돌아 섰다.

《동무들, 이렇게 나와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순간 또다시 눈물이 펴 돌았다.

사람들이 차원호의 손을 잡고 꾸레미들을 안겨 주었다. 그는 손길속에서 따뜻한 인간적의리와 동정을, 격려를 느낄 수 있었다. 차원호는 이 순간 자기가 결코 빈 가슴만으로 새 일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들었다.

…차원호는 전등이 부엌에 빛나는 조쇄직장 대형파쇄기결에 앉아 있었다.

저녁빛에 검회색대형기계가 우람찬 굉음을 내 지르며 부르르 떨고 있다. 락광정의 조구를 통해 둘러 온 집채같은 광석들이 파쇄기에서 분쇄되어 선별장쪽으로 쏘아 저 나온다. 파쇄기의 굉음속에는 무엇인가 목 메여 하는것 같은 불안한 음향이 가끔 귀를 자극한다.

광산의 시작과 함께 생긴 저 파쇄기, 이제는 늘어 난 광산의 광석들을 《소화》하기 힘들어 숨 차하는 성능이 퇴화된 대형기계, 바로 저 파쇄기가 그의 심장을 끊게 했고 그의 지혜를 불러 일으켰고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온 종일 광석덩이가 걸려 목이 멘 거대한 파쇄기동체우에 올라 가 광부들과 함께 합마질을 하고나면 그의 온몸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이악하게 일을 배워 나갔고 언제 한번 길게 누울새 없이 출퇴근길에 올랐다. 그 평범한 노동의 거리에서 진짜 노동의 순결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마음속의 소원과 포부는 숫돌마냥 어딘가 깊은 곳에서 죽지 않고 조용히 타고 있을뿐이었다.

가끔 대보수때면 안해가 밥그릇을 들고 조쇄직장의 가파로운 쇠계단을 오르곤 했다. 이곳에서는 보통어조의 잔잔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 3층건 물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대형파쇄기의 음향이 모든것을 삼켜 버리기때문이다. 소래기를 지르든가 손시늉으로 《말》해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안해도 이곳에 와서는 남편과 손시늉, 웃음, 얼굴표정으로 의사를 정확히 소통할줄 알게 되었다.

조쇄직장뒤 회백색산비랑에는 늦은 봄철 진달래가 붉게 타곤 했다. 남편이 식사하는 동안 안해의 눈길은 자주 그 불그레한 진달래들에 기달곤 했다. 차원호는 그 진달래가 아니라 안해의 얼굴을 살폈다. 북방의 추위와 바람에 안해의 살결도 적동색으로 거칠어 졌는데 반짝이는 그 눈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는 바르르 빨곤 하던 그 눈에 애수가 아니라 랑만적인것

이, 굳센것이, 이악한것이 자리잡고 있다. 그 너자는 손에 춤을 위한 소도구가 아니라 가위를 잡고 광산양복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차원호는 저쪽 사별기결에들 모여 앉아 익살과 담소로 즐거운 꽃을 피우고 있는 수리공들과 광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상념에 잠겼다.

저들과 나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저들에게는 노동과 인생이 굳게 이어져 있었고 차원호처럼 고민도 없었다.

저들은 억척스럽고 솔직한 사람들이다. 어찌하여 자기에게는 때로 고통으로, 부담으로 느껴지는 노동이 그들에게는 희열로, 만족으로 되는 것인가.

그는 그들의 티 없는 웃음, 가식 없는 진실의 목소리들이 부러웠다.

강대한 몸집에 비해 류별나게 목소리가 가는 광산지배인은 처음 차원호를 조심스럽게, 상냥하게 맞아 주었다. 하지만 생산에 돌리고 있는 현존파쇄기를 상대로 연구사업을 계속 해보겠다는 그의 제의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지배인은 천식이 심한 사람이었다.

책상우와 원탁에까지 약봉지와 오미자단물이 놓여 있었다. 그는 길다란 앞상의 모서리에 서 있는 차원호를 미심쩍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글쎄... 여긴 연구소와 다르오. 또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믿을 근거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생각하잔 말이요. 중요한건... 이론적연구요.》

몇번 길가에서 어기었다. 지배인이 차를 타지 않고 걷는 날이었다. 처음엔 손을 잡아 주었다.

두번째는 모자를 들어 올렸다. 세번째는 눈인사가 있었다. 그 다음은... 서로 덤덤히 지나쳤다.

우수가, 번뇌가, 고독이, 자포자기가 차원호의 가슴에 밀려 들었다...

선고개가 넘은 공혼광부인 어광일아바이가 뜰어 놓은 파쇄기동체결에 외토리로 앉아 있는 그에게로 다가왔다. 어광일은 차원호의 곁에 털썩 주저앉더니 마라초쌈지를 내밀었다.

《내 언젠가 당위원회에서 말을 들으니 자네가 한때 저것보다 더 크고 성능이 좋은 파쇄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자진해서 우리한테 내려왔다는데 사실인가?》

차원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 올라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이 서려 했다.

《에... 사실입니다.》

《앓게... 그런걸 어떤 사람들은 자넨 두고 여러가지로 뒤소리들을 했잖단...》

오랜 광부의 눈에는 동정하는 빛과 신뢰의 빛이 가득 찼다.

《이보라구, 차동무.》 하고 공혼광부는 그냥 파쇄기결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를 자기곁에 앉혔다.

《거 왜 늘 그리 외토리로 있길 좋아 하나? ...

그, 사람이 살아 가느라 하면 때로는 쓴 일, 단 일별의별 일이 다 있다네... 우리 일터는 결코 사람을 인상이나 경력을 가지고 평가하는데가 아니야. 로동계급의 눈은 쇠돌두 녹이듯이 뜨겁고 공정하다네. 차동무, 그저 당을 받드는 마음만 변함 없으면 되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마음은 누가 뭐라든 대중이 인정해 주구 당에서 바로 봐줄거요!...》

소박하고 진정이 어린 참목소리가 가문 땅에 내린 단비처럼 그대로 그의 심중에 들어 박혔다. 《...고맙습니다.》

차원호는 눈곱이 더워지는것을 느끼며 겨우 말을 내뱉었다.

《허허, 사람두 참... 그래 초대형파쇄기 만드는 일을 언제쯤 시작할텐가?》

공훈광부는 차원호를 찬찬히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차원호는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숙였다. 《...》

《이보라구, 차동무! 자네도 장군님께서 우리 광산 현지지도때 주신 말씀을 학습했지?...》

장군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높아 진 생산계획을 완수하려면 초대형파쇄기가 꼭 있어야 하네. 우리 광부들이 도와 줄걸세. 신심을 가지라구. 임잔 꼭 해낼수 있네!》

오랜 광부는 쇠못이 박힌 투박한 손으로 차원호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린후 휴계실쪽으로 가 버렸다.

성실한 광부들이 지나가는 남의 말보다 마치를 들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 자기들의 눈에 비친 행동을 통해 사람됨을 이해해 줄 때 차원호는 가슴속이 독한 술로 덥힌듯 훈훈해 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초대김과 스스로 맥 놓은 상태에서 분명히 일어 섰다. 광산기계공장 조립반장이 준 자기의 먼지 끼고 보풀 인 미완성설계도면을 안고 그는 파쇄기앞에서 자주 밤을 새웠다.

암초가 막아 섰다. 그는 그것을 의지로, 노력으로 이겨 나갔다. 그것은 거의 육체적인 몸부림에 가까웠다. 광부들은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잠간 휴계실에 앉아도 조쇄직장의 야간대학생들이 차원호의 설계문건주위에 모여 들었고 퇴근후에는 광부들의 손길과 마음이 그의 심장을 덥혀 주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고한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것을 알았다... 대보수때를 타서 현장시험도 조직했다. 그것이 거듭되었다. 아직은 성공의 별빛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회색양복에 금방 창고에서 꺼낸듯 한 새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조쇄직장에 나타났다. 대보수가 잤아 파쇄기는 또 멎어 있었다. 차원호는 함마질을 하다가 얼핏 눈길을 돌렸다. 그는 일행속에서 낮 익은 리성광국장의 얼굴을 알아 보았다.

반가움과 함께 자기가 광산으로 떠나올 때 그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겠다던 그의 진정어린 말이 그를 국장쪽으로 떠밀었다.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였다.

《파쇄기가 왜 멎어 있소? 자주 이러나?》

갑자기 리성광은 지배인에게로 몸을 돌리며 느닷없이 물었다.

오미자단물의 도수가 좀 높아서인지 늘 얼굴이 수수뻑뻑인 지배인이 두손을 가슴밑에 포개고 서서 대답했다.

《국장동지, 전번에두 말씀 드렸지만 이젠 기체가 낡아 놔서 야단입니다. 계획은 자주 높아 가지, 이건 정말 무엇을 진 오소리신세입니다. 게다가 저 차원호동무가 대보수때면 시험판을 벌려 놓지. 물론 열성은 좋은데... 그렇다고 생산은 죽일수 없고...》

지배인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국장은 차원호의 말이 나오자 한동안 덤덤해 있던니 지배인쪽으로 몸을 돌렸다.

《지배인동무, 참새가 왁새걸음을 할수 없지. 어땡소? 우리도 끝치를 앓다가 해당 부문과 내적토의가 있었는데 수입품이 들어 올 때까지 광산계획을 잠정적으로 그대로 누를수 있을것 같소. 이대로 욱욱 내밀다가는 저 외아들마저 마사먹겠소. 현지를 돌아 보니 모든게 명백하구만. 제기해서 결론 받기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지배인의 노래 부르는듯 한 가는 목소리가 파쇄기밑에까지 온 차원호의 귀를 아프게 때렸다. 차원호는 손에서 함마를 내려 놓고 리성광앞으로 다가갔다.

리성광은 눈을 가늘게 쏘프리고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입가에 반가운 표정이 떠올랐다.

《여, 이게 차동무가 아닌가? 몰라 보게 변했구만.》

국장은 손을 내밀려다가 주춤거렸다.

차원호의 손이 온통 돌가루투성이였던것이다. 한순간이 지나 리성광이 성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국장동지.》

차원호는 민망한감이 들어 얼굴을 붉혔다. 아마 상대장은 돌가루에 찌든 적동색얼굴의 변색을 모를수도 있었다.

《아직은 수입하는걸 더 참아 주십시오. 우린 기어이 초대형파쇄기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체가동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망이 보입니다.》

차원호의 목소리는 절절하게 울렸다.

차원호의 말에 리성광의 두눈에는 깊은 회오의 빛이 깃들고 입가에는 진한 주름이 패워 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손을

책 내저었다.

《이보우, 차동무…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만. 시대는 멀리 전진했는데… 어제날의 자막대기로 오늘을 재려 한다면 동문… 더 엄청난 실책을 범할 수 있소.

언젠가 말한것 같은데 초대형파쇄기는 발전된 몇몇의 서방나라들도 품을 들여 만들고 있소. 물론 그래서 값이 비싼거고… 난 동무가… 이곳에 내려 와서 자신과 현실을 리해할줄 알았는데. 과학자는 그렇게 손에 돌가루를 묻힌다고 해서 성공하는게 아니요!》

오래동안 말아 보지 못한 류다른 냄새, 도시의 향기가 차원호의 얼굴로 물씬 풍겨 왔다. 무엇인가 그속에 신경을 자극하는것이 있었다.

차원호는 얼굴을 들었다.

《국장동지, 손에… 펜이 아니라 함마를 쥐였기에 꼭 해낸다는것입니다. 당에서 바라는 광석생산과제를 수행할수 있는 방도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광산들에서도…》

국장의 얼굴은 저도 모르게 찌프러 졌다.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 눈길로 차원호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아해 하는듯 한, 놀란듯 한, 불만스러워 하는듯 한 표정이 점점 살아 오르다가 굳어 졌다. 그는 무엇인가를 자제하는듯 다시 지배인에게로 돌아 섰다.

《지배인동무, 전차갱을 돌아 보지요. 종전대로 계획을 누르면 파쇄기의 소화불량증도 나을거요!》

차원호는 눈앞이 아득해 졌다. 그가 그렇게도 기대를 가졌던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것 같았다.

북대천기슭을 거슬러 올라 온 찬바람이 그의 단풍을 식혔다.

리성광국장은 돌먼지가 허영계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쏙어 넣고 돌아 서버렸다.

국장일행이 사라지자 조쇄직장안에는 랭기가 지나간듯 썰렁해 지었다.

차원호는 함마를 집어 든채 오래도록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 내가 한때 존경했고 기대를 품었던 선배의 얼굴, 목소리란 저런것이었던가!… 아, 세상에 사람을 파악하는것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으랴!)

마음은 외뿔으로, 분노와 실망의 극한점으로 치달아 가고 있었다.

차원호는 이 순간 평양을 떠나올 때보다도 더 큰 상실감이 체내에 깃드는것을 의식했다.

…종업원총회는 새 교대시간이 다되도록 끝날 줄 몰랐다. 부에서 내려 온 검열성원과 몸이 비대한 지배인이 목대를 둔구어 가지고 광산에 온후 차원호가 벌린 수십번의 중간시험과 그 실패에서 오는 손실액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련거하기

시작했다.

행정처벌을 줄데 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광부들은 누구도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은 조쇄직장이 생겨 일찌기 없었던 레외적인 일이었다.

교대시간이 끝나갈무렵 광산당위원회에서 차원호를 불렀다. 그는 작업복차림으로 안전모를 손에 든채 당비서방에 들어 섰다. 방에는 이미 보름전에 새로 배치되어 온 나이 지긋한 광산당비서와 함께 온화한 눈매를 가진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있었다. 그리고 차원호와 이미 안면이 있는 기계공학연구소의 머리 흰 원사도 보였다.

당중앙위원회 일군은 차원호의 투박한 손을 으스러지게 오래도록 잡아 주었다.

《차원호동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전에 동무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예?!…》

차원호는 마치 꿈속을 달리는것 같았다. 창밖의 하늘과 땅이 맞붙어 빙글빙글 돌고 그 천지가 변하는것 같다.

그는 귀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아니 온몸으로 그 사연을 듣고 있었다.

…그 일군이 장군님으로부터 차원호에 대하여 알아 볼데 대한 파업을 받은것은 광업부문 일군 협의회가 있기 며칠전이었다.

해당 부서를 통하여 광업부문 사업을 보고 받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주요광산들에 시급히 보낼 초대형파쇄기수입문제가 제기되자 문득 인상에 깊이 남은 로동자출신 설계일군 차원호를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곧 차원호에 대하여 알아 보게 하시였다.

파업을 받은 일군은 차원호가 설계실장으로 있던 부와 광산기계공장에 내려 가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엄중한 국가적손실을 낸 차원호의 파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강한 여운으로 남아 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차원호를 두고, 그가 저지른 파오를 두고 또 그의 현재의 담보상태를 두고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초대형파쇄기제작은 우리 나라 실정에서 시기상조라고 평정해 왔다.

그 일군은 료해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원호에 대한 그 일군의 보고자료를 읽으시다 말고 오래도록 집무실창밖을 내다 보시였다.

창밖, 흰 눈을 들쭉 전나무숲에서 못새들이 우짖고 있었다.

일군은 명상에서 깨여 나실줄 모르는 그이를 우러르며 속을 조이고 있었다.

세상에 알려 지지 않은 한 평범한 과학자의 운명을 두고 그이께서 그토록 깊은 사색을 하실줄은 몰랐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바람결에 눈꽃이 흩날려 떨어 지는 창밖을 점도록 내다보시다가 무거운 얼굴로 돌아 서시였다.

《동무는 광부들과 노동자들은 만나보지 않았더구만. 시간이 모자랐던건 사실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내려 가지 않는지 모르겠소. 물론 어제날의 그는 변할수도 있소. 사람이란 늘 한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그의 경우는 변하되 좋게 변할것이요. 이것만은 내가 동무에게 담보할수 있소. 그런데 이 문건에서는 그제 전혀 느껴 지지 않거든.

나는 노동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밤을 새우며 기술혁신에 앞장 섰던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문득 말씀을 끊으시고 심원한 사색이 깃든 안광을 빚내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창가에서 물러 서시며 조용히 일군에게 물으시였다.

《차원호동무가 광산에 내려 가기전에 마지막 시험을 한 곳이 어딴니까?》

《광산기계공장입니다.》

《역시 그 공장이구만.》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늘 저녁에 그 공장에 나가봅시다. 우리 로동계급의 평정을 들어 봅시다!》

파업을 받고 부에 내려 갔던 일군의 가슴은 자책감으로 옥죄여 들었다.

한 인간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말을 해도 확고한 주견과 신심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관점을 견지하시는 그이이시였다.

《난 동무들에게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알아 보라고 했지 결코 저런 문건이나 들고 다니라고 보낸게 아닙니다.》

그이의 음성은 나직하였으나 준절하시였다.

그날 밤이 이속하도록 장군님께서서는 광산기계공장 노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진지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조립작업반장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현장기사들은 차원호실장에 대한 자기들의 심정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다음날 아침, 그이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집무실에 부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일군들을 둘러 보시다가 광업부문의 책임일군에게 시선을 멈추시였다.

《내 동무에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차원호동무의 현장사고로 인한 국가적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책임일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업수첩을 펼치고 정확한 수자를 보고 드렸다.

적지 않은 액수였다.

집무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깃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윽하여 다시 물으시였다.

《그럼 또 물어봅시다. 차원호동무의 연구사업을 중지시키니 그 자금이 도로 생겼습니까?》

《?…》

《말해 보시오. 차원호를 이 부문에서 돌려 놓으니 대형파쇄기가 생겼습니까? 우리 나라에 그 초대형파쇄기가 저절로 생겼는가 말입니다!》

당황하여 대답을 못 찾던 책임일군은 그제야 말씀의 뜻을 알았는지 얼굴이 벌겋게 되어 머리를 숙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심각한 눈길로 일군들을 둘러 보시였다.

《사람들은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면서 어느 한 사람이 성과를 낼 때는 가까이 붙어 좋아 하고 속도 터놓고 때로는 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심상치 않은 결함을 범하게 되면 일부 일군들은 큰일이나 난것처럼 야단을 치고 언제 알았던듯이 외면하고 때로는 품속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목적을 꺼내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결함을 범할수 있습니다. 또 일하는 사람은 피치 못하게 결함을 범합니다. 전진도상에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더우기 창조의 세계인 과학연구사업이야말로 실패를 전제로 합니다. 이 과학연구야말로 창조하는 인간의 위대한 힘이 집중적으로 발현되는 심오한 세계입니다. 과학을 중시하지 못할 때, 창조하는 인간을 리해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침체할것입니다. 이건 우리 혁명의 진리입니다.

전진하는 인간, 창조하는 인간을 근시안적으로 보면 됩니까? 그건 우리가 내세우는 인간의 본성, 인간에 대한 관점을 모르기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얼마나 심오한것인가.

그 길에 더러 난관과 좌절이 있다고 주저했거나 물려 선다면 그건 우리가 바라는 주체형의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색하는 존재, 창조하는 거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리해하고 떠밀어 주어야지요. 나는 동무들이 만들어 온 문건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이 서늘해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원호동무에게 다시 연구사업을 맡기면 큰일이 날것처럼 우려를 표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실사 그가 백번 실패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일 없습니다. 대담하게 말갑시다. 나는 차원호라는 인간을 동지적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는 반드시 해낼거요!》

장군님의 걱정애 넘친 뜨거운 말씀이 사람들의 심장을 달구었다.

그이께서는 곧 해당 부문 일군들로 연구조를 무으시여 차원호가 일하는 광산으로 떠나보내도록 하시였다....

《차동무.》 하고 곁에 조용히 앉아 있던 원사가 차원호의 어깨를 잡으며 말을 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산으로 보내 주시면서 <원사선생, 광산에 가면 차원호동무에게 그 누가 뭐래도 내가 그를 굳게 믿고 있다고 전해 주시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원호는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다.

그저 목이 짝 메면서 심장이 세차게 뛸뿐이었다. 그는 거울진 손으로 달아 오른 얼굴을 움켜쥐고 머리를 숙였다.

돌가루 묻은 손가락사이로 굵은 눈물이 흘러 내려 당위원회 책상우에 푹푹 떨어 졌다. 당비서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광산당위원회에서는 차동무가 연구조를 책임지고 사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연구조동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에 착수하십시오.》

당비서는 어째서인지 그의 손을 잡고 놓을줄 몰랐다. 그 당비서의 손도 차원호의 손 못지 않게 웅이 박힌 역센 노동자의 손이었다.

그는 제 정신이 아닌 꿈속을 걷는듯 한 환각속에서 집으로 돌아 왔다.

집에서는 안해가 색종이와 가위를 쥐고 무엇인가 만들다가 반갑게 그를 맞아 주었다.

이제는 다 커서 인민학교에 다니는 그의 아들 차현이가 오늘 분단총회에서 소년단벽보주필로 선거 받았다는것이다.

그는 아들을 무릎위에 앉히고 안해가 좀 손쉽게 만든 흰 바탕에 빨간 띠가 건너 간 열성자표식을 오래도록 들여다 보았다.

《그 소년단<간부표식>이 너무 커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너무 작다고 하지만...》

안해의 얼굴에서 연한 주근깨가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다. 안해는 활짝 웃고 있었던것이다.

불현듯 차원호의 두눈에서는 비 오듯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 내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우나?》

아들은 아버지의 수염턱이 꺼칠꺼칠한 얼굴을 뵈듯 올려다 보았다.

《응, 아니다...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그런다. 현이가 정말 장하구나.》

아들은 아들아들한 손으로 아버지의 볼에서 눈물을 닦아 주었다.

그는 이 순간 잃었던 소중한것, 진귀한 그 무엇을 되찾은 심정이었다. 아니, 자기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느낌이였다. 그렇게 이 방이 좁아 보였고 창밖의 무한대한 하늘이 작아 보였다.

믿음이란 그렇게도 눈물겹고 아름답고 가슴의 밑바닥을 흔드는것인가. 그것이 없는 생활은 죽음이었다. 그것을 잃은 삶은 암흑이었다.

그는 이 생활의 진리를 자기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깨달은것이였다.

우리의 노동계급이 만든 첫 초대형광산기계가 조채직장에 도착한것은 마천령의 험한 골짜기들에 봄시위물이 넘쳐 흐르는 늦은 봄날이였다.

파쇄기를 설치하던 날 차원호는 쇠못이 박힌 손으로 상긋한 기름냄새가 풍기는 우리 나라 상표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 낸 광산의 첫 초대형파쇄기였다. 거기에는 그의 땀, 그의 지혜, 그의 고뇌와 념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새로 설치한 파쇄기결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광석의 파쇄과정을 기분 좋게 들여다 보고 있었다.

저쪽 락광정이 있는 갱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순간 그는 마치 눈 부신 섬광을 마주했을 때처럼 두눈이 번쩍 트이는것을 느꼈다. 그는 먼거리였으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을 알아 보았다. 그것은 이 땅 어디에 서 있으나 태양이 어디에서 빛나고 있는지 대뜸 알아 보는 그런 룩감이라고 할가...

장군님께서도 문득 그를 알아 보시고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얼굴을 두손에 묻고 몸을 떨고 있는 차원호의 어깨를 다정히 잡으시였다.

그이께서도 분명 이 상봉에 마음을 쓰시였는지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였다.

《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끝내 초대형파쇄기를 제 손으로 만들어 냈구만.》

당의 경제정책을 받들고 동무는 노동계급속에 들어와 당원의 량심을 잃지 않고 곳곳이 살았습니다.》

장군님의 눈가에는 사랑과 온정의 따뜻한 빛갈이 가득 찼다.

차원호는 그 따뜻한 말씀에 더욱 얼굴을 들지 못하였다.

《장군님! 저는 당의 신임을 저버리고 파오를 범했습니다. 저는 광산에 내려 와서도 처음엔... 당원구실을 바로 못했습니다.》

차원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가 진정을 못하자 장군님께서서는 돌가루가 가볍게 날리는 파쇄기 옆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그이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어 때 이르게 귀밑머리가 희숙희숙해 진 차원호의 철빛얼굴을 유심히 지켜 보시였다.

《난 동무가 어려운 시련을 이겨 내고 기어이 당앞에 맹세한대로 광산기계를 완성하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소. 고맙소! 난 생활에서 인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것을 느낄 때가 더없이 행복합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의 그 불변의 인간애가

있었기에 오늘에 이룰수 있었습니다. 오래동안 저는 혼자의 세계에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조직과 로동계급만은 변함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떠밀어 주었습니다.》

차원호의 솔직한 말에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웁습니다. 차원호동무가 오늘 중요한 진리를 찾았소. 집단의 힘, 로동계급의 심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비판하게 되고 아무런 전진도 할수 없소.

나는 우리 일군들에게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사업하라고 요구할 때 그것이 단순한 인정과 룰리로서만이 아니라 혁명동지로서 단결하고 혁명적의리를 지키라는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존재는 인간이라는 신념과 관점을 가지고 동지의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것이 나의 리상입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는다. 동무들은 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장군님! 장군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전사의 의리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장군님!-》

차원호는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장군님께서는 돌가루 묻은 그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어루 쓸어 보시었다.

《손이 험하구만. 자, 차동무, 이 광산에서 보낸 나날을 추억하도록 저 우리의 파쇄기를 배경으로 사진이나 한장 남기지요.》

장군님의 품에 안긴 차원호의 눈에 조쇄직장창밖, 늦은 아침의 태양이 정면으로 안겨 들었다.

태양은 어쩐지 시울지 않아 그 선명한 룰팍마저 명료하게 보인다. 아마 비 오듯 흐르는 행복의 눈물속에 바라본 때문일까?

《자, 그만 진정하오. 예술가인 동무 안해는 남편의 옷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거요.》

하지만 차원호는 울고 있었다. 사람은 한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차원호는 이 한순간에 한생에 흘려야 할 그 모든 아픔과 고통, 행복과 걱정의 눈물을 아낌없이 다 쏟고 있었다.

우리 삶의 별

리진철

기약 없는 상봉을 앞에 두고
싸늘한 식탁우엔 언 두부 한모
눈물 겨운 작별의 술잔에 방울방울
수령님은 혈육의 정을 부으시는데

흐려 진 안경너머로
형님의 떨리는 손
가슴속 그 천만 피로움을
입술 깨물켜 바라보시는 김철주동지!

아버님을 묻은 만리타향에서
어머님과도 영영 헤어졌는데
오직 한분 마음의 기둥인
형님과도 이렇게 헤어져야 한단 말인가

허나 아무 말씀도 없이
쓰디쓴 술잔 자그마한 그 잔
정만으로는 들수 없는 무거운 그 잔을
김철주동지께서 들어 올리시였어라
그이께서 보시였으리
형님께 운명을 의탁한
이 나라 수천만 동포들을
그 운명을 떠메고 헤쳐서야 할

눈보라 사나운 길, 피어린 그 길을

그이께서 떠안으시였다
부모님들의 묘소와 가정의 운명을
형님의 손길이 가꾸어 낸 조직들
무수히 뿌려 진 혁명의 씨앗들
형님께서 맡기고 가신 그 모든것을...

오 진정한 혈육의 정은
피줄만이 아닌
뜻을 같이 한 심장에 살아 숨 쉬거늘
떨어 저 못 살 혈육의 정에 북받치는 가슴
언 두부 한모로 애 써 식히시고
형님의 뜻에 충직할 혁명의 맹세
불 같은 술에 담아 심장에 채우실제

아, 김철주동지!
그이는 다만 동생만이 아니시였다
수령님의 가장 믿음직한 동지이시고
가장 충실한 전사이시였다
정을 이겨 뜻에 사는
혁명가의 참인생을 깨우쳐 준
우리모두의 삶의 별이시였다!

명언해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학작품은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혁명화의 중요한 양식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명언에는 문학작품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며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으로 불려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자기를 어떻게 혁명가로 단련하고 수양하겠다는가를 깨닫게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에 힘 있게 떨쳐 나설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된다. 문학작품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선진사상과 폭넓은 지식,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정서를 안겨 주는 참된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혁명화의 중요한 양식이다.

백두산의 길

리 옥

태고연한 밀림을 흔들며
불어 오는 바람은 이마를 식히고
아득히 펼쳐진 길은
어머니마냥 두팔 벌린 백두산의 길

이 길이구나
무릎치는 락엽을 푹푹 밟으시며
일찌기 우리 장군님
10대의 그 시절에 개척하신 길
내앞에 대통로처럼 열어 놓으신
백두산의 길

보석처럼 깎아 놓은 고운 돌들이
내 발목을 붙잡는구나
이 길이 없었다면
내 삶은 지금
어느 길을 뚫아 오르고 있을가

혁명전통의 붉은 빛갈에
검은 칠 하려 드는 종파들을 쳐갈기시며
빨찌산시절의 수령님처럼 행전을 두르시고
조선을 이끌고 헤쳐 가신
백두산의 길, 장군님의 길

이 길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은 갈래를 잃었으리
두 자식을 소년궁전에 보내고
저녁이면 즐거움속에 맞이하는
어머니된 행복을 알수 없으리라

고난에 찻던 그 세월은
내 어떻게 넘어 왔으랴
백두산의 길
이 길이 없었더라면
줄라 맨 허리띠를 부여 안고
우리는 쓰러져
영영 일어 서지 못했으리

열번을 쓰러지면
백번을 다시 일어 서야 하는게
백두가 가르쳐 준 혁명의 넋이기에
우리의 심장속에
피줄기마냥 자리 잡은
백두산의 길이어

행복을 마중해도
이 길에서 그날을 앞당기고
원췌격멸의 길도
이 길을 거쳐 달려 나갈
우리의 운명과 하나로 잇닿아 있는
백두산의 이 길을
내 쉬임없이 한생을 걸으리라

백두의 해돋이로 눈 부신 길
백두의 붉은기로 물들여진 길
민족의 만대번영이 줄줄이 뻗어 간
이 길을 따라
우리 조국의 강성대국이
소리쳐 마주 온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새 세기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고철훈

주체성을 고수하고 민족성을 살리는것은 자주
의 거세찬 흐름이 굽이치고 거창한 변혁과 창조
의 새력사가 펼쳐 지는 21세기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문학을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로운 민족문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주체
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자주시대의 문학예술, 사회
주의문학예술의 존재와 그 면모를 규정하는 본질
적속성이며 기본특징이다. 문학예술에서 주체성
이 민족자주정신의 반영, 다시말하여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의 구현으로 발현된
다면 민족성은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
성으로 발현되는 문학예술의 속성이다.

새 세기 문학예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
하는것이 창조와 건설의 근본문제로 제기되는것
은 21세기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세기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원래 문예학적개념으로서의 주체성과 민족성은
자주시대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문학예술을
자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원칙적요구로부터 산
생하였다.

력사의 새 시대, 자주시대는 나라와 민족의 운
명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풀
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
위로 하여 운명을 개척해 나가고 인민대중의 자
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문학예술건설도 매개 민족
국가단위로 진행된다. 따라서 문학예술창조와 건
설에서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자기 나라 인민
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구현하며 자기 민족
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
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과도
같다.

21세기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발전과 민
족적번영을 최대한으로 이룩하는 세기로 될것이
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20세기가 빛을 잃었던
조선민족이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를 일떠세운 영광의 세기였
다면 21세기는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

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
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높이 떨치
는 일대 번영의 세기이다.

21 세기를 창조와 변혁의 세기, 민족적번영의
세기로 빛내이는데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는 민족
자주정신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한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철두철미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남의 식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투쟁하여야 성과적으로 건설
할수 있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오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굳건히 지켜 나가려는것은 21세기에
도 우리 인민의 변함 없는 신념이며 의지이다.
그러므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보며 새
세기의 진군길을 다그치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과 민족생활 그리고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
를 작품에 잘 형상하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새 세기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
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것이 근본문제로 제기되
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해 지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
다.

현 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힘의 대결이고 사상과
의지의 대결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
은 한손에는 핵무기를 들고 다른 손에는 딸라주
머니를 흔들면서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해 투쟁
하는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해 갖은 발악을 다하
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은 《세계화》
의 간판밑에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제를 우두머
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문학예술이 나라와 민
족의 한계를 벗어 나 《세계적인것》으로, 《전
인류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내돌리고 있다. 놈들은 《국경이 없는 자본이 세
계를 지배하는 오늘》에 있어서는 문학예술도 나
라와 민족의 한계를 벗어 난 《전 세계적인것》으
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세계주의문학예
술》, 《전 인류적인 문학예술》에 대하여 요란하
게 광고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매개
나라 문학예술에 고유한 민족성과 독자성을 거부

함으로써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의 화살은 우리 나라에 돌려지고 있다. 오만해 질대로 오만해 진 미제는 최근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 폭언을 쫓으며 침략기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음흉한 목적밑에 썩어 빠진 부르조아문학예술을 류포시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미쳐 날뛰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부터 주체의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심각한 반제계급투쟁으로 된다.

우리는 새 세기에 들어 서서 더욱 교활해지고 음흉해진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견지하고 구현함으로써 21세기의 문학예술을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 세기의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대하며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기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 형상창조원칙과 방법의 모든 영역에서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자신이 결심하고 자기 실정에 맞게 자기 식대로 풀어 나가야 민족문학예술의 주체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기의것에 정통하며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리고 내세워야 한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를 가져야 문학예술작품에 민족자주정신을 깊이 있게 구현할수 있으며 문학예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으로 참답게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사상, 우리 제도가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자존심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잘 구현하는것은 문학예술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기본열쇠로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심으로써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심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휘황한 전망을 내다보게 되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는 민족의 존엄의 상징인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이 자자손손 우리 인민의 녀트로 영원히 이어지도록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또한 세기가 바뀌고 력사가 멀리 전진한다 해도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 쥐고 나가는 우리 사상제일주의정신을 잘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양한 현실주체작품을 통하여 폭넓게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 새 세기의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주제가로 하고 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조선의 녀과 조선의 기상, 조선의 향취가 풍기는 세계적인 걸작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것은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며 우리 인민이 제일이고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제적인 관심사로 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조선민족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순결한 마음을 보여주는 대걸작으로 아낌 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것도 작품전반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맥박치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창작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구현하고 민족적자존심과 긍지를 훌륭하게 형상할 때 문학예술의 주체성을 고수하고 민족성을 살릴수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새 세기 문학예술창조와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은 선군의 기치밑에 활발히 창작되고 있는 선군혁명문학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

현 시대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선군시대이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시대의 인간과 사회, 투쟁과 생활 모든것이 새롭게 변모되고 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문학예술이 선군사상을 옹호하는 선군혁명문학으로 될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이다. 무적의 군력에서 민족의 기상이 용솟음치며 민족자주정신이 최대에 발양된다.

총대가 약하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에 당당히 맞서 나갈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켜 낼수 없다.

우리 혁명에서 가장 어려웠던 《고나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창조되고 오늘도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 있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차게 추동하는 위력한 혁명의 무기이다.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천만의 심장을 뚫게 하고 격렬한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제국주의자들을 전율케 하는 선군혁명문학예술이야말로 철두철미 우리 혁명에 복무하는 주체성이 뚜렷한 혁명적인 문학예술이며 투쟁하기 좋아 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구미에 맞는 문학예술이다.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선군사상을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에 맞게 구현한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빛나게 고수하여 왔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열병광장》,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력사의 대화》, 서사시 《백두의 총대 영원불멸하리》, 《영원히 최고사령부를 우러러》 등 우리 당 선군사상의 위대성을 빛나게 형상한 작품들이 수없이 많이 창작되었다.

작가들은 이런 창작경험에 토대하여 어버이수

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 력사와 전통을 깊이 체득하며 특히 우리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선군혁명실적을 우리 혁명의 만년채보로 길이 빛내여 나가기 위한 창작전투를 힘 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

또한 우리 군대제일주의의 전통적미풍이 활짝 꽃 피나고 있는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생활들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감정에 맞게 그려 냄으로써 우리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야 할것이다.

새 세기에도 변함없이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여기에 주체문학이 시대를 선도하는 전투적 기치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하는 길이 있으며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가 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새 세기 문학의 본보기로,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정신의 빛나는 예술적정화로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전호가에 피여 난 꽃

민성숙

내 언제나
때없이 보는
편지가 있어라

전호가에 피었던
아름다운 진달래
총 잡은 자기 모습인양
위훈의 글발에 담아
보내온 제자의 꽃편지

이제는 색도 바래고
진하게 풍기던 향기는 날렸어도
날이 갈수록 그윽함을 더해 주는
사랑스런 꽃이여

아마도
초소의 긴긴 밤
전호가에 남 몰래 피여 나
초병과 함께
근무의 밤 지새운 꽃이었으리

장군님 초소에 오셨던 그날
행복에 겨워 어쩔줄 모르던
제자의 기쁨의 눈물 꽃잎에 어려 있고

장군님과 함께 찍은 영광의 모습
꽃잎에 그대로 어려 있어

내 한생토록
교단을 지켜 가는 궁지도
함께 피여 나
그래서
이리도 아름답고
이리도 소중한것이냐

이 꽃을 가슴에 안으면
장군님 쉽없이 걸으시는
최전연 굽이굽이
그 많은 전호들이 안겨 오고
장군님 가까이에 내가 있는듯
끝 없는 환희에 휩싸여라

궁지 높아라
장군님 지키는
전호가의 꽃들은 만발하려니
그 전호가에 포연이 서리여도
꽃들은 웃으며 피여 있으리
아 내가 지켜 선 교단은
전호와 정녕 멀지 않아라

우리 장군님은 젊으시다

김봉남

높은 령 굽이굽이
깊은 골 굽이굽이
동서천리 최전선길-
가고 오시고 오고 가시기를
열백번이던가 백천번이던가
백두의 기운이 서린 그 자욱자욱을
승엄히 안아 보는
항일투사의 가슴에 솟구치는 걱정
우리 장군님은 젊으시다

단호한 결심과
맞받아 나가는 배짱도
령활무쌍한 지략과
무자비한 타격도
빛발치는 예지와
일야천리 《축지법》도
빨찌산시절의 수령님 같으신 그 젊음!

참으로 모진 시련과 고통이
납덩이처럼 이 땅을 짓누르던 나날에
사회주의공화국을 없애려고
제국주의 떼무리들이 덤벼 들었을 때
바위도 태워 버릴 격노를 안으시고
사생결단 최전방고지들에 오르고 오르신
범접 못할 천출명장의 그 위엄!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손을 들어 가리키시는 그끝에서
된서리 맞은 풀대처럼 후줄근해 진
천만대적의 교락서니를 굽어 보시며
호탕하게 날리시던 웃음소리
필승을 펼치는 혈기 넘친 목소리

오, 정녕 그것은
백두의 푸른 번개를
선군의 보검으로 비껴 드신

장군님의 억척 같은 신념의 분출이었다
-우리를 건드릴 자 누구냐!
쨍- 지구를 깨치는
정일봉의 우뢰소리였다

선군의 그 보검으로
세월을 틀어 쥐시고
강성대국의 대통로를 여시며
온 나라 강토를 정 깊은 트랙인양
가고 오시고 오고 가신 길
백만리던가 천만리던가
쇠움기만 해도 마음 든든한 장군님
그이의 야전복자락에서
백두산총대바람이 일어 번졌다

선군의 그 총대바람은
아기들의 요람가엔 한없이 부드럽고
병사들의 훈련길엔 폭풍되어 불어 친다
그 바람으로
새 세기 진격로우에 폭풍을 불러
목숨 같은 붉은기를 펄펄 휘날려 준다

장군님은 젊으시다
억년 푸르려 설레이는 백두밀림처럼
억년 변함 없는 소백수 맑은 물소리처럼
억년 녹을줄 모르는 백두산상의 장설처럼
우리 장군님의 젊음은
영원한 백두의 젊음입니다!

우리 장군님을 닮아
강산도 푸르려 젊어 지고
인민도 싱싱히 젊어 저
청춘기를 맞은 내 조국
이 땅, 이 하늘, 온 우주를 한품에 안으신
오오, 우리 장군님의 젊음은
무궁토록 열광을 뿜는 태양의 젊음입니다!

축 제

정지성(남조선)

《흐사수구》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은 그대로 한갓 짐승도 죽을 때까지 제 난 곳을 잊지 못하는 법이니 하물며 만물의 령장이라 일컫는 인간의 경우는 더 말할 여지가 없겠다.

우리 남조선땅에는 불우한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백두에서 한나로 연연히 뻗어 내린 한지맥, 한강토를 밟으며 동해안을 따라 거슬러 오르느라 먼 이르게 되는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이 마을은 렬강들에 의해 강요된 6.25전쟁의 산물이다. 6.25전쟁의 피난민들이 분렬된 북녘의 고향경으로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싶은 심정에서 분계선 가까이로 올라 와 한집 두집 터전을 닦기 시작한것이 《아바이마을》이 생겨 나게 된 래력, 남조선땅의 수습개나 되는 이런 정착촌중 가장 큰 규모의 정착촌이다. 이 마을에는 1천여세대, 3천여명의 사람들이 지척천리의 돌아 갈수 없는 고향을 꿈 꾸며 하루하루를 살아 가고 있다.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북남수뇌분들이 채택한 6.15북남공동선언은 암흑천지에 비쳐 든 밝은 햇빛이 아닐가.

이런 생각으로 나는 얼마전에 그들의 환희와 감격을 취재하기 위해 《아바이마을》을 찾았었다.

마을에 들어 서면서 내가 느낀것은 성대한 축제의 분위기였다. 마을 한가운데를 따라 뻗어 나간 큰길 좌우의 점포들과 리관들은 화려한 꽃장식과 울긋불긋한 축등들로 장식되어 있고 남녀로 소모두 떨쳐 나와 웃고 떠들고 춤 추며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여기저기 설치된 포장마차주위의 야외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희희락락하는 늙은 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나는 놀랐다. 몇달전만 해도 갈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에 잠겨 눈물짓던 사람들과 세상에서 소외된듯 초라하기 그지없던 거리로 울썩느라 그만 하던 마을이 이렇게 변하다니.

그런 나를 반갑게 맞아 준, 여러차례 다녀 와서 이미 구면인 XX씨는 걸늬는 얼굴에 사람 좋은 웃음을 띄우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정기가 날을 참 잘 골라 왔다고 우스개소리를 했다.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흥성이냐 묻자 그는 마을이 생겨 처음으로 성대한 축제를 지내는 날이라며 나의 손을 끌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날 《아바이마을》의 축제를 취재하는 뜻밖의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축제장소는 마을앞 공터에 선 버드나무밑, 지난 날 마을의 늙은이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고향

으로 돌아 갈수 있게 해달라고 빌던 그 자리에 커다란 축제상이 놓여 있었다.

행사를 주관하는 로인은 이렇게 말했다.

《저희들이 일구월십 바라온 간절한 소망은 하루빨리 이 땅이 통일되어 선친들의 유골이 묻힌 고향으로 돌아 가는것이였습니다. 일일천추 바라온 그 소망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하해같은 은덕으로 풀리게 되었으니 그 은혜 호천만국 백골난망입니다. 통일의 큰 대문을 활짝 열어 주신 장군님께 미거한 저희들의 큰 절을 올립니다.》

로인을 따라 공터에 모인 사람 모두가 북녘하늘가를 우러러 큰절을 올리었다. 로인의 주름진 두볼로, 마을사람들의 얼굴로도 눈물이 줄 지어 흘러 내렸다.

결국 이날의 축제는 통일의 획기점을 마련해 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 드리는 《아바이마을》 사람들의 감사의 축제였던것이다.

그 축제를 보면서 나는 큰 감흥을 받았다.

무릇 축제는 고대사람들이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신》의 보살핌때문이었다는 생각에서 그 《신》에게 고맙다는 사의를 표하는 의식이었는데 그것이 고대그리스신화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력사가 매우 오래다. 지금까지도 《사육제》, 《성탄절》과 같은 그리스도교적인 축제들이 남아 있고 우리 나라에도 불교축제인 《연등절》 등이 존재한 사실이 그 력사를 말해 준다. 이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소원을 풀어보려고 했던 력사적상황의 기록이 아닐가 싶다. 그러면 인류력사를 기원과 기도의 력사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라면 우리 민족의 분렬 50여년사도 기다림과 기원, 기도의 력사라고 할수 있다.

통일, 그것을 우리 민중은 얼마나 열망해 왔던가.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 오며 수천년세월 화목하게 살아 온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50여년, 부모는 북에 있고 자식은 남에, 남편은 남에 있고 안해는 북에 있어야 하는 처절한 분렬의 비극을 안고 통일, 통일을 부르며 그 얼마나 애통하게 몸부림쳐 왔던가.

통일을 위해 이 땅의 민중은 많이도 속아 왔다.

국토의 《통일》을 위해 외국군대의 《주둔이 필요》하다면 선친의 유골이 묻힌 고향땅과 대대로 풍요를 자랑해 온 논밭을 지어는 꽃다운 녀인들까지 섬겨 바쳤고 《통일》을 위해 경제의 《고도

성장》이 《필요》하다면 자본의 노예로 묵묵히 흡사 당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승공통일》, 《흡수통일》로 분렬의 장벽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만 갔다.

통일을 위해 이 나라 민중은 많이도 기원해 왔다.

천도교인들은 한울님을, 그리스도교인들은 하느님을,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믿어 나라의 통일을 기도해 왔고 어떤이는 신령님을 믿어, 어떤이는 조상의 령혼을 믿어 통일을 애 타게 기원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믿어 온 하느님도 부처님도 신령님도 날로 두터워만 가는 분렬의 장벽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날은 오지 않았다. 우리 민중이 그토록 피타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원한 통일의 그날은 오지 않았다.

이대로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 정녕 외세에 의해 쌓아 진 저 분렬의 장벽을 허물 힘이 그 어디에도 없는가?

민중이 애 타게 부르짖던 이러한 때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단숨에 그 거대한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통일의 꽃대문을 활짝 열어 주시였다. 장장 50여년 막혔던 분렬의 장벽을 일순에 열어 제치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거인적인 모습에 우리 민중은 모두 놀랐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민중은 그분의 의지가 천명된 6.15북남공동선언을 통해 그를 알수 있었다. 민족자주 이것이 바로 그 비결이리는것을.

고대의 저명한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지레대의 원리를 발견하고서 《나에게 지레대와 지지점을 달라. 그러면 지구를 들겠다.》고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바로 민족을 지지점으로 하고 자주사상을 지레대로 하여 수십년간 쌓여 온 분렬의 장벽을 깨뜨리고 이 나라의 혈맥을 다시 이어 주시였다. 이는 민족의 대성인 **김일성**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강통일 3대원칙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족사랑, 민중사랑

이 낱은 력사의 장거이다. 민족의 하늘에 태양으로 높이 떠오른 민족의 구세주 **김정일**장군님! 민중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민중은 자신의 둘도 없는 스승이라고 하셨다는 그분, 그분께서는 언제나 민중들속에 들어 가시여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다고 한다. 하늘아래 첫 동리라 불리우는 외진 산골마을도 찾으시여 민중의 생활형편을 알아 보시고 신혼부부의 집을 찾으시여서는 친정아버지가 딸의 새 살림을 보러 왔다고 허물없이 말씀하신다는 그분, 그분께서는 민중을 찾아 가시는 길의 차안에서 켜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쪽잠으로 피로를 푸신다지 않는가.

예로부터 내리는 사랑에 충성이 따르는것은 인간의 법도라 하였거니 령도자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에 복讎민중이 따르는것은 응당한 일이라 하겠다. 불의의 사고로 남쪽에 떠내려 왔던 병사도 《나는 **김정일**장군님의 아들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고 서울에 와 충격의 파문을 일으켰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어린이들도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원수님》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지 않았던가.

령도자와 민중이 혈연적인 련계를 이룬 복讎사회,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중애가 낳은 응당한 결실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금 우리 남녘민중의 민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민중애, 민족애에 완전히 매혹되어 그분께로 쏠리고 있다. 한방울의 물방울에도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아바이마을》의 축제행사가 남녘의 민심을 잘 보여 주지 않는가.

나에게는 그 자그마한 《아바이마을》의 축제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통일된 이 땅에 성대히 벌어 질 통일대축제의 서곡, 그 불길이 불꽃이라고 생각되였다. 나의 눈앞에는 남북겨레모두가 열싸 안고 춤 추며 성대히 경축할 통일대축제장의 전경이 신기루마냥 우뚝이 떠올랐다. 그날은 얼마나 즐겁고 환희롭고 아름답우랴!

나는 격앙된 심정을 안고 《아바이마을》의 축제소식을 온 민중에게 한시바삐 알리고 싶어 아쉬움을 누르며 마을을 떠났다.

가사

우리 마을 시내가의 작은 발전소

정명일

우리 마을 시내가의 작은 발전소
장군님은 기쁘시여 찾아 주셨소
가셔야 할 전선길이 앞에 있건만
그이는 발걸음을 여기 멈췄소

우리 마을 시내가의 작은 발전소
장군님은 오래동안 못 쓰시였소
온 나라에 넘치여 날 행복의 불빛

그날에 여기서 그려 보셨소

우리 마을 시내가의 작은 발전소
장군님은 마음속에 안고 가셨소
인민의 행복속에 기쁨을 찾는
아버이 그 사랑을 두고 가셨소

아, 우리 마을 시내가의 작은 발전소

거리의 미소

정영종

조건반사

김철수는 먼 총각시절부터 30여년간이나 지꽃기 그지없는 한가지 불가사의한 꿈에 시달려 왔었다. 그 꿈은 신통히 생활에서 어떤 류다른 자극이나 충격을 받게 되는 날 밤이면 거의 어김없이 찾아와 잠자리를 흥흥하게 만들곤 하였다. 그런 이튿날은 종일 마음의 평형을 잃고 어수선했다 지내기가 일쑤였다.

그때마다 그는 혀를 깨울며 이 어쩔 도리가 없는 숙명적인 꿈을 원망했고 저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 꿈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한생을 규정하고 은밀히 채색해 왔었다는것은 오래동안 의식하지 못하였다.

지난해 5월 초... 그날은 저녁부터 비가 줄금줄금 내렸다. 그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김철수는 두시간나마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날이 아주 캄캄해 저서야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 섰다.

부엌에서 동자질하던 안해는 그의 초췌한 물결에 입을 딱 벌렸다. 그러다가 거뿔게 질린 남편의 얼굴에서 사태를 짐작한듯 꺼지게 한숨을 내쉬고 나서 접이편지 하나를 내밀었다.

《웬 손님이 주고 간겨우다. 무슨 부위원장이라던데 한참이나 기다리다가 끝내...》

김철수는 대척없이 되는데로 편지를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 방으로 올라 갔다.

딸내위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었다. 그는 폭젓은 옷차림 그대로 책상앞에 주저 앉아 이마를 싸 쥐었다. 자기의 인생이 부정 당한 암담한 날이었다. 그러고 애 끓는 소원과 희망속에 도시경영성의 목직한 현판문을 열었건만 차례진것은 무엇이었던가.

《〈 〉》석을 구워 광물수지를 얻었다?! 흠, 건설사전에도 어떤 나라에서 그 돌로 돌로마이트를 개발한적이 있다고 올라 있긴 하지. 현대 그것도 실은 단순한 도로에 불과하오. 광물수지라!...련금술 같은 조화요!》

자기를 면대한 림가성을 가진 관계부문 부국장의 딸이었다. 김철수는 그때 놀라기에 앞서 어리둥절해 지고 말았다. 바로 열흘전에 이 림부국장이 자기가 제출한 기술문건에 대단한 흥미와 기대를 보이며 보다 더 구체적인 생산공정까지를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별안간 돌변하여 현대판련금술자로 몰아 붙이기에 이르다니... 별스럽게 학력이며 현직 같은것을 까근까근 묻더니

혹시 어리숙한 년로보장자령감따위가 뭘 바로 주물러 냈으랴 하고 선입견을 가지게 된것은 아닌지?!...

《몸이 또 말썹시우? ... 이니, 여적 옷도...》

뒤따라 들어 온 안해가 혀를 차며 팔소매를 당겨서야 김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닌게아니라 머리가 지끈지끈해 났다.

《내 좀 먼저 눕겠소.》

《저녁식사는 어떻게 하시구?...》

《됐소!》

이불을 머리에까지 뒤집어 썼으나 몸은 시시각각 더 떨려 왔다. 무엇보다 두손이 가드라 들며 감각을 잃어 가는게 급했다. 언젠가 반응실험을 하다가 불산에 살가죽을 온통 태운 다음부터 신경이 위축되어 노상 주무르고 있지 않으면 한여름에도 싸늘하게 마비되는 손이었다.

그는 이불속에서 두손을 힘껏 마주 비틀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 딸이 나타나면 또 설분을 토할것이다.

《그럴줄 알았어요. 10년세월 별의별 고생과 수포를 다 당하면서 돌을 주물러 얻은게 뭐예요? 병을 얻고 <미친 돌귀신>이라는 흉한 별명을 얻고... 제발 이제라도 싹 손을 떼라요!》

《미친 돌귀신》이란 낱말을 그리도 짓씹어 삼키려고 모지름 써온 《련금술자》소리를 다시 퍼올렸다. 그러니 그네들의 눈엔 나의 외장재연구가 돈을 탐하는 련금술자의 너절한 시도로만 보였던가?

10년전, 개성북안경로동 지배인으로 한창 인기를 올리던 50대시절... 그런데 그 순탄하고 호기롭던 인생행로가 벼락같이 뒤바뀐것은 평양에 출장왔던 그해 봄 어느 날에서부터였다.

...시간을 짜내어 출장일정을 앞당긴 김철수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만나보려고 옥류교를 건넜다.

그의 걸음은 경쾌했다. 한창 봄별이 무르녹는 웅장화려한 수도의 전경이 심신을 쇠락하게 띄워주는때문일것이다. 기대가 하늘 같은 아들과의 상봉 역시 그 못지 않았었다. 거기에 또 한가지 새로 지어 입은 산뜻한 색깔의 양복이 수도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속에 아주 자연스레 융합되고 있다는 다행스럽고 흐뭇한 의식도 작용했다. 아마 새옷이란 이렇듯 사람들을 젊고 생신하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활개치며 문수거리초입에 접어 든 그는 문득

벗어 섰다. 하늘을 치받으며 우줄우줄 키를 솟군 고층살림집들의 벽체 여기저기에서 찍지와 비물이 습벧 흙빛 얼룩들을 띄어 본것이였다.

마침 어느 한 호동에서 사람들이 발판을 매고 도장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건물밑에서 여러개의 칠감통들을 벌려 놓고 열심히 외장재를 혼합하는 처녀앞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그걸 바르면... 몇년이나 견디오?》

목을 빼들고 넘겨다 보다가 넌지시 묻는 그에게 처녀는 관대한 미소를 보냈다.

《잘만 하면 한 4~5년은 간답니다.》

예기한 대답이었으나 김철수의 입에서는 절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잘만 하면》!... 그러니 보통으로는 그만한 해수도 못 채운다는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거의 병적인 호기심과 애착을 가지고 옛 단청들의 비밀을 파고 들어 칠감일반에 대해서는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였다. 하지만 그것이 이 거대한 도시 평양의 수천수만건물들을 도색하는 용도로, 또 그렇게 엄청난 수량으로 인식되고 환산되어 보기는 처음이였다.

《놀랍군, 놀라워. 그 귀한걸 물 쏟아 붓듯 그렇게 자주... 터무니 없는 일이야.》

탄식조의 그 말을 그는 미처 맺을수 없었다. 언제 나타났는지 장대한 체구에 얼굴이 거무스레한 웬 사나이가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못 마땅하게 노려 보고 있었던것이다. 사나이의 입에서 거센 목소리가 뜨직이 흘러 나왔다.

《보아하니 당신도 값진 새옷을 입었구만요. 건물도 같소. 알겠소? 하물며 여기야... 그따위 비밀일랑 말고 제 갈 길이나 가시오!》

아연하여 굳어 졌던 김철수는 사나이가 돌아서서 발판우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리칠 때에야 황황히 부르짖었다.

《여보시오. 어쩌면 그런 터무니 없는 오해를... 내 말은...》

불시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하물며 여기야》 하던 사나이의 말을 비로소 이해한것이였다.

평양!... 얼마나 크고 뜨거운 의미가 담겨 있는 부름인가. 그리고 그 거리를 자기는 얼마나 흐뭇하게, 경건하게 거닐었던가.

몰라 보게 자란 아들을 만나보았음에도 김철수는 종시 편안치 못한 기분을 가시지 못한채 개성행 밤렬차에 올랐다. 그리고도 오래동안 우울하게 차창밖을 내다보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쪽잠에 들었다. 그러자 레의 그 불가사의한 꿈이 즉시 그에게 기어 들었다.

...봉토를 한 웅장한 고분속에 들어 서자마자 김철수는 묘실연도벽에서 이채로운 고전미를 지닌 세 너인의 벽화를 보았다. 이마를 가뜰하게 동인 흰 머리머미로 까만 머리태가 물결쳐 흐

르는 세 너인은 그에게 고혹적인 미소를 뽐으며 가없이 파아란 하늘로 훨훨 날아 오르고 있었다.

김철수는 황홀하였다. 특히 너인들의 불을 또렷이 물들인 육감적인 신흥빛과 바람에 하느적이는 치마폭들의 그리도 투명하고 은근한 비취색은 그의 넋을 홀리였다.

오, 유구한 세월이 고이 품어 온 저 신비로운 빛갈의 비밀을 밝힐수만 있다면!... 너무도 강렬한 그 유혹에 그는 슬쩍 손을 뻗었다. 그런데 그의 손끝이 닿자마자 치마폭은 금시 한줌의 먼지가 되어 매캐하게 흩날려 버리는것이였다...

잠을 깬후에도 김철수는 이윽도록 가슴 저미는 애석함과 야릇한 애수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그 너인들은 오늘 또 나의 넋속에 뛰어들었는가. 혹시 신비의 그 빛갈로 평양의 거리를 단장하라고 속삭이는, 다름 아닌 내게 주는 어떤 《계시》는 아니겠는지...

그 순간에야 김철수는 그 알곳은 꿈이 일정한 외부의 자극앞에 자기보존을 전제로 절로 일어나는 생리적반응... 조건반사와 같은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어떤 《자기보존》이란 말인가?

머칠동안 공공 갑자론 끝에 그는 자기가 더는 지배인자리를 《보존》못해 내리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는 무슨 힘으로도 머리속에서 그 외장재생각을 뽑아 낼수 없게 되였다는, 그런 상태로는 지배인일을 아주 망치고 말리라는,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 외장재연구를 어떤 사명처럼 받아들이는게 옳다는것을 깨달은것이였다.

결심이 서고 보니 마음이 홀가분해 졌다. 하여 오래간만에 그는 피아노앞에 마주 앉기까지 했다. 아들이 세살났을 적에 그의 장래를 음악과 결부시켜 주려고 애 써 구입한, 그자신 교사가 되어 자주 두드리곤 했던 피아노였다.

흰 물새 훨훨 파도우에 넘나들고
아득한 수평선에 흰 돛이 아름다운
저기 저 바다로...

폭 넓은 환희와 랑만의 악상과는 달리 늘 어떤 애절한 심정을 담게 되는 노래, 하지만 이제 자기가 가려는 《저기 저 바다》에는 정다운 《흰 물새》들만이 기쁨에 겨워 훨훨 길잡이해 주었으면, 하여 아름다운 《흰 돛》이 살뜰히 마중해 주었으면!

그러나 주위사람들은 경악하여 맹렬한 반격을 가해 왔다. 과오도 없이 지배인을 사직하다니 정신 나갔는가, 지금 나이가 열만데 이제 와서 철부지처럼 인생전환을 꿈 꾸는가, 그것은 우선 신임에 대한 배반이다!... 놀랍게도 누구보다 필적할줄 안 안해만이 좀 서글픈 어조이긴 하나 담담

하게 말하였다.

《어찌겠수. 당신이야 결혼식 다음날로 저를 그 무서운 <물소동굴>에 끌어 들였던본인걸... 부디 끝장만 보시우.》

그렇게 내졌었던 《항해》길, 하지만 그리도 멀고 험한 길을 파도에 부대끼고 멀미에 허덕이면서도 쉬지 않고 노 저어 온 자기가 《흰 돛》을 코 앞에 둔 이 시각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서운 반발심이 가슴에서 태질했다. 김철수는 용을 쓰며 이불을 차던졌다. 깊은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시진한 락소소리가 추덕거렸다.

손더듬으로 옷걸이의 작업복을 벗겨 입은 그는 서둘러 전실창고에 들어 갔다. 어둠속에서 한구석에 모퉁이 쌓인 구멍탄무지가 겨우 알렸다.

경황없이 그것을 몇덩이 안고 나오는데 불이 켜지며 눈을 홑뜬 안해가 앞을 막아 섰다.

《당신 실성하셨소?》

《소리치긴... 아무래도 자전거방에 가야겠소.》

구슬픈 빛이 안해의 얼굴을 덮었다. 그들이 사는 살림집밑에는 자전거수리소가 있는데 그곳 직원들은 도시경영성에 제출할 외장재건본을 만들지 못해 애 타하는 김철수를 동정하여 퇴근후의 밤시간에 쓰라고 난방용난로를 내주었었다. 물론 지금은 봄이라 불을 켜다.

《우리가 얹혀 사는것만도 급해 하는 살림인데...》 안해의 목 멘 하소연이었다. 《보탬은 못해 줄망정 얼마 안되는 그것마저 들어 내면 저 애들이 뭐라겠수?》

김철수는 눈을 감았다. 아픔이 심장을 허뻗다. 년로보장을 받고 개성에서 딸네 집으로 올라 왔던 지난해 가을... 그때 자기는 얼마나 거북하고 낮뜨거웠던가. 신접살림이라 가구 하나 변변치 않은 딸에게 그들이 가져 온것이란 그릇과 옷가지들 싼보따리에 책 한권짜뿐 온통 묵직한 《7》 석시료마대들밖에 없었던것이다. 유일하게 값진 기물로서 피아노 한대가 시위하듯 번쩍거리며 부리워 지긴했으나 그것도 자기들이 얹혀 살 딸내외에게가 아니라 아들에게 넘겨 줄것이었다.

그런줄을 알고 있는 딸은 이사집을 들어 주려고 나온 아낙네들이 《히야!-》하고 탄성을 지를 때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었다. 그런 사연의 피아노가 지금도 살림이 어려운 딸내외의 일은 알바 아니라는듯 비좁은 방 옷칸에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떡 버티고 있다.

《어찌겠소. 난 어제... 또 지지를 못 받고 밀려났소. 믿지를 았더군. 그래 화덕에서라도 외장재를 좀 구워 우리 살림집을 칠해 놓자는거요. 눈으로들 똑똑히 보라구...》

《그만한걸 급자면 탄은 어디서 또...》

안해는 끝내 눈굽을 찍었다. 그리고는 애달픈 기대를 드러내며 뒤를 이었다.

《참 아까 그 손님은 뭐라고 썼수? 당신의 외장재연구를 꼬치고치 캐묻던데...》

《?!...》

《원, 편지를 안 읽으셨구려?》

어이 없어 허를 차며 방으로 되들어 갔던 안해가 잠시후 폭 젖어 버린 편지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될것 같아 걱정했더니 아이구...》

잉크가 온통 피여 버린 글줄은 엉망이었다. 김철수는 겨우 《대동강구역... 만남시다.》 하는 토막글과 차원경이라는 이름을 뜯어 볼수 있었다.

상심해 하는 안해가 민망스러워 그는 짐짓 큰 소리를 쳤다.

《그만하오. 그래 여태 나를 찾아 온 량반들치고 뭘 도와 준 일이 있어 봤소? 뒤탈리나 잡아당겼지. 자오. 난 나가보겠소.》

고구려에로의 려행

그것은 사실이었다. 아닌 밤중에 누기찬 난로를 지피느라고 내굴에 개키고 눈물을 짜면서 김철수는 그 운명적인 첫 《출범》의 나날을 쓰라린 마음으로 회상했다.

그가 끝내 지배인을 그만 두고 문화유적관리소의 평범한 직원으로 돌아 앉자 시건재연구소에 있는 친구가 즉시 달려 왔다. 한때는 김철수와 함께 단청이며 고려자기의 비밀을 밝힌다면서 온 개성땅을 다 두저 본, 하여 그지없이 고운 빛갈의 룡토산지를 찾아 내기도 했던 지질학전문가였다.

《뭘 극적인 도약을 시도한다면? 여보게, 단청이 광물수지와 식물수지의 결합이란건 증명됐지만 그 추출법은 조상들이 제 무덤속에 영원히 매장해 치운 비밀일세. 현대 외장재생산이란 실용화단계로 훌쩍 뛰어 오른다!... 어불성설이야.》

실험설비 같은것을 좀 지원 받아 불가 해서 찾아 간 시인민위원회 건재처 기사장은 다른 측면에서 그를 후려 갈졌다.

《임자 어벌이 크구만. 오늘과 같은 콤퓨터시대 앞에 절구질로 도전해 나섰으니. 그렇게 과학을 비속화시키지 말구 전문연구사들에게 맡기게.》

다른 몇몇 친구들의 주장도 여상반했다. 꼬집진 않았어도 그들의 론거속엔 현대최화학공업이 쏟아내는 유성체칠감이 있는데 구차스레 먼 과거의 촌스러운 토성재를 끌어 내겠느냐는 멸시감도 없지 않았다.

불끈해 난 김철수는 즉시 허름한 작업복에 손달구지를 끌고 보란듯이 거리에 나섰다. 우선 내화벽돌을 주어 모아 실험로부터 쌓고 보자는것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무슨 일에도 손을 대면 기를처럼 확 불이 달려 건잡지 못하는 총동적인 기질로

소문난 그였다. 전후 중학을 졸업한 그는 당에서 청년들을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부를 때 바다며 강계청년발전소건설장 등으로 떠나는 동창들과는 좀 달리 유독 농촌으로 진출하여 모두를 이상케 만들었었다. 무서운 독학자인 그가 당시 인기 있던 미추린학설에 혹하여 수박만 한 사과를 육종할 야심을 품은줄 누가 알았으랴.

한해만에 검정시험으로 과수기수의 자격을 얻기까지 했으나 그는 거기에 오래 집착하지 못했다. 음악이 그를 유혹한것이였다. 인차 그의 집서가에는 각종 교측본들과 화성학리론교재들이 새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동시에 바이올린이며 기타, 손풍금 등 악기들도 차례차례 나타났다.

씩 후에야 자신에게 이 부면의 천부적재능이 없음을 깨닫긴 했으나 음악은 그때부터 오래동안 그의 생활을 정겨운 선물로 윤색했다.

색감에 대한 흥미의 호기심이 새롭게 그를 사로잡은것은 그후 농업전문학교 재학당시였다. 어느 날 우연히 새로 발굴한 고분을 참관할 기회를 가졌던 그는 놀랐다. 천수백여년의 다난한 력사가 회오리쳐 흘렀건만 고분안의 벽화들은 그에도전하듯 유유히, 오연하게 자기의 그 화려한 색채와 광택을 떨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실로 두려울만치 신비한 세계였다.

거기에 매혹된 그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음에도 갖은 수단을 다 써가며 30여개나 되는 개성시안의 고분들을 날날이 탐색했고 그와 관련한 기술감정문건들을 연구했다. 방학을 바쳐 안악이며 강서지구의 고분속에 뚫고 들어 간것은 물론이였다. 한생 검질긴 꿈으로 나타나는 쌍영총의 그 《미인행렬도》를 알게 되고 반한것도 그마적이었다.

몇년후 김철수는 한때 친교를 맺었던 배천군 운봉광산 미술원에게 이런 격정적인 편지를 날렸다.

《…내 눈은 요즘 온통 령롱한 무지개빛으로 싸여 있습니다. 그저 보이느니 옛 건물들의 현란한 천연단청이요, 비추이느니 고려자기의 그 은근한 비색광채입니다. 그리고는 부르짖지요. 아, 천여년의 유구한 세월을 흐림없이 고이 지켜 오는 저 희귀한 빛같은 <정절>엔 과연 무슨 힘이 깃들어 있을까? 저 빛같은 오늘의 밝은 세상을 보태여 채색한다면 이 땅은 얼마나 더 아름다와 질가?

형님은 언젠가 저에게 삶이란 자신에게는 물론 남들에게도 듣기 좋은 힘찬 노래여야 한다고 했었지요. 지금껏 듣기 거부하고 미심쩍은 불협화음만 내던 제가 이제는, 정말 이제는 확실한 선물을 찾게 된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고구려를 불러 오는 노래입니다!…》

친구는 다행스러운 그의 선택에 좋은 날개를 달아 줄테니 한번 찾아 오라고 권고해 왔다.

기회가 생겨 가보니 처녀소개였다. 처음엔 필적 뛰었으나 《좋은 날개》라는 의미도 그럴법했고 때도 된듯 한데다 온 광산의 총각들이 눈독들이는 얼싸한 미안이라는통에 동의하고 말았다.

《자네야 고분속에 기여 드는 명수니까 선보기도 그 방법을 택하세.》

하여 안전등이 번쩍거리는 광부모자까지 얻어 쓰고 처녀가 일하는 막장압축기실로 들어 갔다.

친구가 한발 앞서 처녀에게 알리려 사라진 째에 무심히 갱벽을 비쳐 보던 김철수는 눈이 번쩍 띄었다. 번들거리는 광맥사이로 유난히 선명한 비색띠층이 가늘게 뻗쳐 있는것을 발견한것이였다. 흥분한 그는 그것을 농칠세라 정신없이 막장 깊이로 철벽철벽 깊이 들어 갔다....

온 막장이 실종된 덜툠한 신랑감을 찾아 복새판을 벌린 끝에 이튿날에야 겨우 고갱속에서 석수에 흠뻑 젖고 초기까지 만나 눈이 켜진 그를 끌어 냈을 때 친구는 바빠 맞았다. 달덩이같이 환한 얼굴에 한쌍의 말할줄 아는 표정적인 눈을 가진 처녀에 비해 가뜩이나 갱뽕한 김철수의 물결은 피죄죄하기 짝 없었던것이다.

다행히도 처녀는 속이 깊었다.

《전... 뭐랄가요. 물높이가 높아서 약간만 기울여도 <나의 그릇>에 물을 부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물》이란 지향과 열정을 뜻하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어 광산의 미인혁신자 김옥순은 그의 안해가 되었다. 덕분에 그는 남편의 피벅스러운을 오랜 세월 톡톡히 맛 보아야 했다.

첫 세례는 결혼식 이튿날에 차례졌다. 개성시 개풍군 려현리는 공민왕릉을 비롯한 고분들과 고려자기 가마터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물소동굴》이라는 깊이를 알수 없는 무서운 석회동굴이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안해가 자기의 포부를 높이 사준데 성수가 난 김철수는 새색시를 더욱 황홀케 만들자고 했는지 김옥순을 그곳으로 끌고 갔다.

그 유별난 신희려행이 김옥순에게는 좀 번덕스러워 보였으나 한편 모험에 대한 야릇한 흥분으로 가슴 울렁여 지는것도 어쩔수 없었다. 그러나 우쭐쪼족한 돌고드름들에 무시로 머리를 짓조으면서 뒤흔나마 엉금엉금 기고 나니 지친것은 물론 겁이 나서 견딜수 없었다. 그럼에도 남편은 끝 없는 《강의》로 더욱 그를 들볶았다.

《...왜정때까지 말이요, 이 굴입구에 굉장히 큰 못이 있었소. 그속엔 신통히 처녀들만 잡아 먹는 괴물황소가 살았대요. 지금은 물이 말랐으니 그놈도 굴속 어디에 숨었겠지. 동무 같은 새색시도 덮칠수 있소. 허허... 떨진 마오.》

김옥순이 조금도 떨지 않건만 제 흥에 겨운 남편은 보호자다운 담대한 너털웃음을 터치며 그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내 작년에 이곳 사람들이 잡아 먹히운 처녀들의 피가 그 못자리에 엉켜 있다는 옛말을 하기에 파보니 과연 선지피처럼 빨간 흙층이 나지는게 아니겠소. 순간 머리속이 번쩍하더군요. 옳지, 그 못이라는게 실은 이 동굴의 지하수가 흘러 나와 고인것일테니 빨간 흙도 동굴속에서 씻기여 나왔겠구나!... 그래서 동굴탐험을 시작했지. 아닐세라 굉장한 보물창고였소. 눈같이 하얀 찰흙에다 붉은 흙, 옥색흙... 한마디로 우리 조상들이 단청에 리용했다고 보아지는 각종 색감원료들이 다 숨어있더라 말이요. 마그네시움함량이 최고인 <γ>석도 여기서 찾았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오? 조상들이 단청의 광물수지를 다름아닌 <γ>석에서 추출했겠다는 실마리를 준단 말이요!...》

김옥순은 피로왔다. 이미전부터 얼음 같은 지하수에 정갱이까지 흠뻑 젖어 감각을 잃어 가는 데도 남편은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것이였다. 그 피벽에 대한 아량이 스러져 버린지는 이미 오래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을 실망케 하지 않으려고 사뭇 흥미진진한채 하는 표정을 유지하기조차 고통스러웠다. 그저 이 지겨운 동굴여행이 제발 빨리 끝나주지만 했으면!

돌연 김철수가 《여기요, 여기!》 하고 들뜬 고향을 지르며 그의 손을 힘껏 나구렸다. 그 서슬에 김옥순은 무릎을 호되게 쪼으며 어푸러졌다. 그러건 말건 남편은 혼자 징징징징 달려 갔다.

김옥순은 전지불빛에 드러난 눈 부시게 하얀 굴벽을 두팔 벌려 어루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입술을 깨물며 지켜 보았다. 왜서인지 눈물이 콧솟았다. 남편과의 그 몇걸음거리를 자기가 끝내 좁혀 내지 못할수 있다는, 흰 흙 한줌을 떼내여 취한듯 들여다 보는 남편의 환희에 찬 미소를 자기는 일생 받아 보지 못할수도 있다는 서러운 우려가 가슴 한귀를 허빈때문이었다...

그리고 기겁계, 그리고 열렬한 애착속에 운을 댄 김철수의 《고구려를 불러 오는 노래》 역시 과수업이나 음악처럼 한생 읊조릴 선물이 아닌듯 잘 이어 지지 않았다. 개성시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돌격대에 탄원했던 그가 얼마후부터 당일군으로, 행정책임자로 줄곧 제발되기 시작한것이였다.

미련은 집요하여 한가한 시간만 차려지면 놓치지 않고 고분벽화나 단청관계의 서적들을 뒤적이고 신간연구성과들을 료해하기도 했으나 정력을 쏟아 부어야 할 사업은 물론 다른것이였다.

아쉬움과의 부단한 싸움속에서 그렇게 20여년 세월이 흘렀다...

날이 활짝 밝아서야 겨우 한소랭이가량의 설익은 <γ>석을 굵어 낸 김철수는 기가 막혀 땅바닥에 펄썩 주저 앉았다.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헛되이 몸부림쳐야 한다면, 그렇다면?...

《수고합니다!》 하는 좀 거친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린것은 그때였다. 고개를 돌린 김철수는 장대한 체격에 얼굴이 검스레한 한 사나이가 비좁은 출입문을 꼭 채우고 서 있는것을 보았다. 총센 회색회색한 머리칼이며 이마의 굵은 주름 등으로 미루어 자기 나이또래쯤 됨직한, 어딘가 좀 낯 익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언제 보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제 그 <γ>석이구만.》

시나이는 제잡담 김철수결정으로 다가와 <γ>석 하나를 조심히 손바닥에 올려 놓았다. 그의 눈이 걸람스럽게 번쩍거렸다. 그러다가 의아쩍어 하는 상대의 눈길을 감추었는지 빙긋 웃었다.

《내가 차원경이요. 헌데 이런 구차한 판을 벌린걸 보니 내 제의가 맘에 없었던게구만?!》

《?!...》

《왜, 편지를 보지 못했소?》

그 량반이구나!... 비물에 젖어 볼품없이 구겨진 편지가 상기되자 김철수는 당황하여 어물어물 눈길을 떨구었다. 사나이는 알만 하다는듯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동무에 대해 도경(도시경영성)의 한 친구에게서 다 들었소. 그래 우리가 청하기로 했소.》

도시경영성소리는 김철수가 온밤 삭이려고 애써온 분노를 순간에 폭발시켰다. 그는 화덕을 쏘시던 불갈구리를 동맹이치며 벌떡 일어 났다.

《다 시끄럽소. 왜 식전부터 이 성화요? 돈에 환장한 런금술자따위한테 무슨 먹을 알이 있겠지구. 예?!》

사나이는 김철수를 유심히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 뽕소가 비낀듯 하여 김철수는 저릿저릿해 오는 손가락을 꼭 부르쥐었다. 그저 비꼬는 소리를 한마디라도 췌친다면 내 당장!... 그러나 입을 연 사나이의 말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김철수동무, 다 잊으시오. 그래야 하오. 대신 일을 합시다. 물론 우린 연구기관이 아니어서 현대적인 실험기구도 측정수단도 없소. 그러나 소성로는 보장해 드리겠소.》

김철수는 한순간 숨을 딱 멈추었다. 연구단계가 끝난 자기에게 지금 소성로 같은 생산시설이 얼마나 긴요한것인가. 그것만 있다면 딸내외한테 죄짓는 탄문제따위는 둘째고 연구성과의 현실적 도입까지도 가능해 진다!

김철수는 저도 모르게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당신은... 어데 계시오?》

《내 대동강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요.》, 김철수의 얼굴이 약간 흐려 지는것을 본 사나이는 다시 빙긋 웃었다.

《썩 내키지 않는게구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김철수는 냅다 채채기를 하였다. 간밤 맞은 비가 끝내 감기로 번진 모양

이었다.

《우선 몸조리부터 잘하십시오. 그다음 결심이 서면 아무때나 찾아 와도 좋습니다.》 사나이는 좀 망설이는 듯 하던 끝에 슬쩍 보태었다. 《물론 그사이 기술문건이라도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

《...》

김철수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저주로운 그 문건... 림부국장의 모욕적인 야유와 거절에 분별을 잃고 찾을 생각도 못했던, 구태여 찾을 필요조차 없다고 여겼던 기술문건이었다. 그것을 이 량반이 또 요구하고 있다!

숨소리가 거칠어 지는 김철수의 거동에서 로컬적인 불쾌감을 감촉한 듯 사나이는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달리 생각진 마시오. 나도 뭔가 짐작되는 게 있어서... 아무튼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나이가 사라진 다음에도 김철수는 오래동안 망두석처럼 굳어 진채 움직이지 못했다. 온몸의 힘이 쑥 빠진 듯 한 허탈감 때문이었다.

봉화대밀에서

그날부터 김철수는 고열에 시달렸다. 하면서도 줄곧 차원정부위원장의 제의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골을 썩었다. 기실 간밤의 《난로작전》같은 절망적인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던 그로서는 이런 동요가 너무 배 부른 흥정이었다. 그러나... 차원경의 기술문건요구가 일종의 불신, 적어도 될 문건작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보려는 역빠른 타산처럼 안겨 와 심사가 꼬였다. 그러다 또 다시 배반을 당한다면?!...

이튿날 점심참에 자그마한 키에 리지적인 눈매를 가진 40대의 여인이 찾아 왔다. 여인은 자기를 대동강구역건물관리소 책임기사 리상숙이라고 소개하며 약봉지와 묵직한 간식구역을 내놓았다.

《연구사아바이에게 우리 소성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모두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김철수는 어리둥절해 졌다. 아무런 파악도 없을 자기의 연구자료를 이들이 어떻게 검토도 없이 고스란히 믿고 받아들이려 하는 것인가?

《당신네의 그... 차부위원장은 내게 달리 말하는데...》

자신 없는 그의 말에 리상숙은 상긋 웃었다.

《기술문건 말이지요?! 그건 아바이가 완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로개조를 먼저 시작하자고 요구한거예요. 그러잖아도 부위원장동진 그것때문에 괜한 오해를 산 것 같다고 걱정하더군요.》

불시에 눈곱이 시큰하여 김철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난 전혀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접하는 게 아닐까.

《물론 나도... 그랬으리라 짐작해 보긴 했소만...》 열결에 튀어 나온 변명에 미간을 찌프리긴 했으나 김철수의 입에서는 구차스러운 말이 계속 흘러 나왔다. 《나도 인차 나가려했는데 이런 꼴이더라니... 고맙소. 찾아 와주어... 고맙소!》

그는 3일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 났다. 그리고는 더 망설이지도 않고 곧장 구역인민위원회를 찾아 갔다.

접수실에서는 품위 있어 보이는 중년녀인이 이름을 대기 바쁘게 텅큼 일어 나 청사안에까지 안내하려 들었다. 겨우 사양하고 한단한단 층계를 오르는 김철수의 심장은 고르지 않게 뛰었다. 하여 《부위원장》문제가 걸린 출입문을 마주했을 때에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누잡혀야 했다.

그리고 멀고 피로하던 나의 걸음이 정녕 이 문 앞에서 끝나고 성공이 미소를 뿌리며 문을 활짝 열어 젖혀 줄까?

그때였다. 약간 빠금히 툇인 문안에서 갑자기 성칼진 부르짖음이 튀어 나와 가슴을 떠박질렀다.

《여보, 그렇게 소성로를 내주고 구역의 생활문화는 뭘로 보장한다는 거요? 학력도 없는 촌령감한테서 무슨 과학다운 게 나올 것 같아서, 응?!》

도경의 그 림부국장이자!... 김철수는 대뜸 가슴이 싸늘해 왔다. 차원경의 특징적인 거센 목소리가 잇달린 것은 잠시 후였다.

《그래도 난 믿고 싶소. 아니, 믿소!》

《흠, 가령... 남의 연구성과를 가로 챌 것이라면?》

라이타가 책상에 떨어 지는 듯 한 소리, 무척 놀란 반응일 것이다.

《그렇게지. 차동무한테니 털어 놓는데 그 평강의 기술문건이라는 게 신통히 내가 원산에서 추진시켜 오는 것과 같더라 말이요. 그 대신 중요한 실험수치들은 엉터리더군. 이쯤하면 뭐 짐작되는 게 없소?》

《...》

《꼭 그렇다고 단정하고 싶진 않지만... 나도 학위를 가진 사람이요. 아는 사람의 글과 무식쟁이가 훔쳐 쓴 글의 차이쯤은 가려 볼 줄 알거든. 그러니 괜히 말년에 험잡군에게 속아 도덕적규탄을 받지 말고 관계를 짝 끊으시오!》

김철수는 눈앞이 휘- 돌아 벽을 짚으며 비칠거렸다. 언제 청사를 벗어 나 허둥지둥 정문밖으로 뛰쳐 나갔는지... 접수실의 중년녀인이 뭐라고 소리쳤으나 그는 듣지 못했다. 세상에 이런 기 막힌 일도 있는가. 10년세월 그 누구의 도움도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온 가산을 다 들이밀며 피 타는 노력 끝에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가 줄지에 남의 것을 훔친 것으로 되다니!... 더구나 리해할 수 없는 것은 《원산에서 추진하는 외장재》라는 난데 없

는 소리였다.

《ㄱ》석을 리용한 외장재연구에서 오래동안 《고군분투》해 온 김철수에게 있어 동업자처럼 그리운것은 없었었다. 하여 그는 나라의 거의 모든 건설연구부문에 늘 줄을 놓아 탐문해 보곤 했었다. 그러나 유성제가 건설에서 움직일수 없는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터여서인지 누구도 과거의 토성제에로 돌아 가려 하지 않았다. 칠감분야에서도 과거의것이란 고분벽화나 단청연구가 전부였었다.

극상 몇해전에 건설성산하의 한 연구소에서 《ㄱ》석에 흥미를 갖고 외장재개발을 시도한다는 소문은 돌았지만 김철수가 흥분하여 달려 갔을 때에는 이미 손을 뗐후였다. 《실용성이 불투명하다》는게 그 리유라고 했다.

그때 자기는 얼마나 실망했으며 또 외장재자체에 대한 의혹과 회의감으로 몸부림쳤었던가.

아니, 《원산》 운운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혹시 림부국장이?!... 뒤늦게야 너무도 황당무계하고 비렬한 그 험담군의 역살을 잡고 사리를 따질 대신 기가 질려 도망쳤다는것을 의식한 김철수는 툭 뗏어 섰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정문을 유유히 빠져 나온 승용차 한대가 그에게 먼지를 들썩우며 획 지나친것이었다.

그는 맥이 쑥 빠져 살림집들사이의 소공원의자에 무너지듯 주저 앉았다.

《다... 들었소?》

언제 따라 나왔는지 머리우에서 차원경의 목소리가 울렸다. 김철수는 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곧 사납게 몸을 돌키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그래 부위원장동무도 그 소릴 믿소, 예?!》

《...》

비로소 차원경은 곁에 앉으며 목직한 손을 그의 어깨우에 얹었다. 그다음 무겁게 입을 열었다.

《철수동무, 우린 지금... 문수거리건물들에 맨 회가루칠을 하고 있소. 비만 한번 맞아도 씻기고 얼룩이 가는 맨 회가루를. 그제 어떤 거린데!》

마감의 《그제 어떤 거린데!》하는 어조에는 아픔이 느껴 졌다. 그것은 왜서인지 오래전 문수거리에서 자기를 질책하던 사나이의 《하물며 여기야...》 하던 말을 방불히 되살려 주면서 가슴을 따끔하게 침질했다. 어쩌면 이 차부위원장이 그날의 사나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제 무슨 대수랴.

《당신은... 내 물음엔 대답을 피하누만?!》 참을수 없는 노여움과 울분이 치받쳐 김철수는 껍껍 말을 더듬었다. 《알만 하오. 내가... 어떤 너절하고... 추한 감투를 쓰고 더럽혀 지건 말건... 자기네 고충만 덜면... 된다, 그건데... 좋소. 난 그만 두겠소!》

우들우들 몸을 떨며 김철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순간 우악스러운 손이 그의 팔소매를 거머잡았다.

《이걸 놓소!》

《정말... 가겠소?》

낮으나 좀 서늘하게 느껴 지는 차원경의 물음. 김철수는 일순 주춤했으나 자신의 나약에 스스로 화가 치밀어 더욱 목청을 돋구었다.

《그렇소. 외장재를 버리면 버렸지 그런 치욕은 못 참겠단 말이요!》

순간 차원경의 깊은 눈확속에서 무엇인가 번쩍했다. 그때까지 잡고 있던 김철수의 팔소매를 놓아 버린 그는 휘파람소리 같은 목소리를 내뿔었다.

《그랬구만. 결국 자기의 비렬한 정체가 드러나자 꼬리를 빼는 놈팽이 같은 꼴을 보이겠다는건데... 가오. 막지 않겠소!》

《뭘-요?!》

김철수는 입귀를 푸들푸들 떨었다. 그러나 차원경의 말은 더욱 모질어 갔다.

《억울하다? 10년세월이나 바쳤다는 외장재도 시비질 한마디에 버리는 주제에?!... 우리가 그처럼 귀한 거리를 말기려고 했으면 땀지 어떤 믿음을 더 바라오? 그래 자기를 지킨다는게 그렇게 쉬울줄 알았소?!》

김철수는 머리칼을 쥐여 뜯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쓰라린 아픔이 심장을 비틀었다. 자기를 지킨다!... 너무도 옳은 말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자기》란 곧 온생과 녀을 다 기울인 《ㄱ》석외장재자체였다. 하여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눈물겨운 경난을 이겨 왔던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친구들의 호의와 동정에 주로 의탁해온 《보급로》마저 결판났을 때 실험로를 죽이지 않으려고 언 손을 호호 불며 뒤졌던 탄재무지들, 안해가 떨리는 손으로 한가지 또 한가지 꺼내주던, 제대를 코앞에 둔 만팔의 레장감들 그리고 나중에는 시료채취가 고려자기도굴로 단정되어 보안서에까지 끌려 다녔던 오욕... 그통에 온 시내에 《미친 돌귀신》으로 소문나버린 그였다.

그렇게 한사코 지켜온 《자기》, 아니 한번은 그것을 끝내 버렸던적도 있었었다. 그것은 돌밖에 모르는 남편의 뒤바라지에 몸고생, 마음고생이 극심하던 안해가 그만 병으로 쓰러졌을 때였다.

그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 간 김철수는 흠칫 놀랐다. 안해의 그 한쌍의 말할줄 아는 표정적인 눈이 열기설기한 주름에 싸여 아주 흐릿해진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던것이다. 죄스러움과 가책이 비애가 되어 가슴을 찢었다.

《여보, 난 여태 내가 당신의 <그릇>에 물을 부어 온줄 알았더니... 결국은 당신이 자신을 깡그

리 쏟아 쏟아 구려.》

마음속의 부르짖음이었다. 허나 입밖으로는 한마디도 번질수 없었다. 그 대신 안해가 가냘픈 웃음을 그리며 사죄했다.

《이렇게 누워 있으면 당신의 외장재가 늦어 지겠는데... 미안해요.》

김철수는 그만 속이 벌컥 뒤집혀 고향쳤다.

《다 진절머리 났소. 이제 당신과 돌을 바꾸지 않겠단 말이요!》

그날로 그의 집 창고에 쌓았던 실험로는 불이 꺼졌다. 김철수의 마음속에서도 빛은 사라져 공허한 뎡기만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직장에 출근한 그는 한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머칠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원 함흥분원을 현지지도하실 때 과학자들이 아직도 옛 단청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 내지 못했다고 몹시 안타까와 하셨다더군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요.》

《...》

김철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의 걸음은 향방도 없이 허청허청 옮겨졌다. 몇시간후 그는 이미 고향마을 덕바위촌이 굽이 보이는 태동대마루에 올라 있었다.

해질녘이었다. 이른 봄의 새침한 꽃샘바람에 째- 째- 설레는 술술사이로 봉화대의 우중충한 석벽이 바라보였다. 외적의 침입을 알리며 삼단 같은 불길을 황황 지퍼 올리곤 했을 그 봉화대는 지금 옛 조상들이 대대로 같이 앉고 씨 뿌렸으며 풍요한 수확을 얻어 왔던 가없는 전야며 삼포밭들 그리고 멀리 번쩍이며 흐르는 레성강일대의 토기점들과 고분들을 추연한 명상속에 굽어 보는 듯 싶었다.

바로 저 땅이 아니었던가. 조선의 맑은 하늘빛이 어려 그리도 투명한 비색상감자들이 랑랑한 음향을 터치며 쏟아 지던 땅, 장생불로명약으로 유명한 인삼꽃이 눈썹리 아득하게 피여 춤 추던 땅, 진귀한 비단이며 금속공예품들까지 흘러 나와 멀고 먼 동서방의 교역마차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 오던 보배로운 땅!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게 없는듯이 여기면서 나라가 겪는 일시적어려움의 타개책을 먼 지경밖에다 손을 뻗는데서만 찾으려 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의 앞선 최신과학기술성공들은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것들도 우리가 대대로 살아 가야 할 이 땅의 자양을 보태여 살 찌우지 않는다면 어찌 당당한 우리의것이 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조하셨다는 단청문제도 단순한 민족문화유산보존에 그치지 않는, 오늘에 덕을 보도록 개발완성해야 할 그 자양중의 한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요즈음 나는?!... 심장을 비트는 회오에 김철수는 피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이튿날 어둑새벽에 그는 배낭을 지고 집을 나섰다. 실험로를 다시 살리자는것이였다....

이제금 돌이켜 보면 그때 자기를 일떠세운 힘은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내 나라에 한점의 빛이라도 보태여야 하겠다는 티 없는 자각이였었다. 그랬던 자기가 그 봉화대밑에서 다졌던 맹세와는 다른, 순수성을 떠난 《자기》를 추구하는것은 아닐가?

무언가 진짜 추한 꼴을 보였다는 분한 생각에 김철수는 벌컥 자리를 차고 일어 났다.

《내게 말기겠다는 소성로나 보여 주시오!》

...30분후 그들은 구역유축의 단층지구에 자리잡은 건물관리소에 들어 섰다. 거기서는 김철수를 꾸밈 없는 반가움과 호의로 맞아 주었다. 그를 위한 실험실 겸 침실까지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1》석소성에 맞게 로의 개조안까지 다 토의하고 났을 때 차원경이 느닷없이 털어 놓았다.

《동무의 기술문건 말이요. 내가 그사이 찾아왔소. 헌데 <1>석의 마그네시움함량이며 소성온도 같은 기본수치가 빠져 있더군. 무슨 리유는 있었겠지만... 림부국장에게 언질을 준것도 사실이요.》

해명을 바라는 눈길을 감축했으나 김철수는 잠자코 있었다. 림부국장이 이상한 호기심을 보이며 보다 상세한 생산공정문건을 요구해 왔을 때... 그때의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경계의식을 어떻게 리해시키겠는가. 본능적인 보호심리로부터 그 중요수치들을 어물쩍해 버린 과정을... 아침에 있는 림부국장의 출현이 그런 예감을 보다 확실한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퇴근길에서 그를 빠스정류소까지 바래준것은 리상숙책임기사였다. 김철수는 관리소의 놀라운 환대가 오히려 이상했던 참이라 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내게 로를 이렇게 완전히 떠넘기면 관리소는 제 일을 못하겠는데... 내 외장재가 당장 성공하리라 믿소?》

리상숙은 처너처럼 귀엽게 상글 웃었다.

《누군가 말하기를 과학은 뭔가 보상을 전제로 하는 인간에겐 절대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더군요. 아바인 그런분이 아니지요. 부위원장장동지가 얘기해 줬어요.》 그다음 녀인은 또박또박 강조했다. 《우린 부위원장장동지의 눈을 믿어요!》

그의 설명을 듣고서야 김철수는 차원경이 화력발전소연재에 의한 벽돌생산체계를 연구도입하는 등 세건의 국가발명권과 여러가지 창의고안을 한 능력 있는 과학자형의 일군임을 알았다. 비로소 모든게 석연해 지는듯 하여 그의 마음은 혼

해 났다.

《글쎄 어쩐지… 많은 과학적발명들이 그에 맞는 과학실력을 지닌 일군을 만나서만 빛을 보곤 했지.》

기쁘게 긍정할줄 안 리상숙이 의외에도 가볍게 이마를 찌프렸다.

《그것만인가요? 전 아버지가 여기로 오기전까지 적지 않은 기술지도일군들을 찾아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이 무식할순 없지 않아요.》

김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너무도 옳은 지적이었던것이다. 하다면 그네들과 차원경의 상반되는 립장은 또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그건 내 일이에요!》

일을 시작하자 김철수는 침식을 관리소에서 하면서 주야전투를 벌렸다. 《남의 연구성과를 가로챈 《엔터리수지》가 아님을 한시바삐 증명해 보이려는 타는듯 한 초조감과 자기를 믿어 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성공으로 보상하리라는 자각에서였다.

하여 한주일만에는 새로 개조한 로에 불을 지필수 있었다. 이튿날 저녁에는 또 첫 완성품이 순조롭게 소성되어 나왔다.

성미 급한 한 녀인이 습식뿔밀분쇄기에서 흘러나와 탱크에 고이는 보통회가루와 꼭 같아 보이는 하얀 돌가루물에 손을 담그어 보고 나서 《에그 야!-》하고 호들갑스런 탄성을 질렀다. 그의 손가락들이 갓물을 만진것처럼 갇힌거린것이다. 사람들은 흥분하여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댔다.

《이게 그 <광물수지>라는거겠지요?!》

《그렇잖구. 참 신기하기두 하지.》

《허- 이 아주머니 벌써부터 욕심내는걸 보니 몰래 뽐아서 제 집부터 바를 차비다!》

김철수는 눈물이 치솟아 그들속을 빠져 실험실로 숨어 들어 갔다. 거기서 그는 마음 놓고 울었다. 10년세월의 고생은 드디어 끝나고 자기의 외장재로 평양을 단장할 꿈이 현실로 된것이었다.

차원경과 리상숙이 나타난것은 잠시후였다. 차원경은 눈두덩이 불그레하게 짓물려 있는 김철수의 얼굴은 못 본체 하며 짐짓 활기 있게 말을 불었다.

《외장재담보수명 말ियो, 그게 얼마나 될가?》

《예, 정확하건 다시 분석해 봐야겠지만… 대략 10년은 갑겁니다. 원가도 유성제의 25분의 1밖에 안…》

《대단하구만!》하고 환성을 올릴줄 안 차원경은 《흠.》 하는 코소리를 내고는 무슨 골똥한 생각을 쫓듯 미간에 주름을 모았다. 잠시후에야 그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 일떠선 광복거리를 돌아 보시면서 뜻 깊은 말씀을 하셨지. 거리전반

을 흰색바탕이 기본으로 되게 은근하게 칠해 놓으니 얼마나 정결하고 신선해 보이는가고…》

그것은 자극적인 색감이 인체에 주는 부정적영향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알락달락하게 채색하던 종래의 도시미화방식을 바꾸도록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으로서 김철수도 잘 아는것이였다. 그가 지금껏 진행해 온 외장재연구방향과 목표도 그에 준하여 결정되였었다.

《그래서 나도 흰색바탕에 연록색이나 연회색, 연분홍색 같은 안정감을 주는 색소광물을 첨가하자고 원천지들을 두루 찾아 두었소만…》

《그게 문제요.》 기다린듯 차원경이 심중하게 받아 물었다. 《그런 첨가물때문에 외장재의 부착력이나 내수성 같은게 떨어 지면 어찌겠소?》

《그만한 정도는 아무래도…》

《아니, 담보수명은 1년도 줄어선 안되오!》

차원경은 딱 잘라 말했다. 그다음 어째서인지 심란한 기색으로 줄곧 입을 다물고 있는 리상숙에게로 돌아 섰다.

《동무네도 탄이 떨어 졌다고 우는 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연재대용연구를 다그쳐 도입 해야겠소.… 반대하진 않겠지요?!》

마감말은 김철수에게 던진것이였다. 김철수는 어리둥절하여 저도 모르게 리상숙쪽을 결눈질했다. 문수거리에 맨 회가루칠을 한다고 그리도 안타까와 하던, 하여 립부국장의 험구도 무릅쓰고 한사코 자기를 끌어 들이며 서둘던 차원경, 그는 새 외장재성공이 너무 기뻐 당장 다량생산에 넘어가자고 찾아 온것이 아니였다. 반대로 해를 넘기며 연구해야 할지도 모를 색소광물첨가며 연재로에로의 전환 등 문제를 덧붙여 그 도입을 무한정 늦잡으려 하고 있다!

혼란에 빠져 김철수는 말을 더듬었다.

《부위원장동문 내게… <7>석매장지를 여기 평양 가까운 곳에 찾아 놓아야 할 일감이… 더 있다는걸 잊은가본데… 그걸 선행 못했단간…》

《알고 있소. 그건 내게 맡기오.》

차원경이 시원스레 밀막았다. 등이 단 김철수는 끝내 속에 얹힌 불만을 터치고야 말았다.

《난 모르겠소. 왜 자꾸 질질 끌자는건지… 사실 탄 같은거야 외장재의 경제적효과성으로 보나 수도미화의 결박성으로 보나 능히… 난 이젠 공식적인 투자를 요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침묵이 깃들었다. 차원경은 고개를 짓수긋한채 천천히 담배를 꺼냈다. 그의 불편이 어떤 피로움을 씹어 삼키듯 알릴듯말듯 실룩거렸다.

《<이젠>이라…》 드디어 그가 거센 목소리를 뜨직뜨직 짜냈다. 《그래, 이젠 공개 못할것도 없지. 우에다 손을 내밀만도 하고… 하지만 난 광석은 반비만 빼놓으면 원가가 거의 령이나 다름 없는 외장재라면 얼마나 좋을가, 그렇게 해서 절약되는 돈으로 지금 한창 날개를 활짝 피는 조국의

진보에 한걸음이라도 더 보탠다면 얼마나 리상적일까... 이런 욕심을 못 버리겠구만. 사실이야 이걸 다름아닌 철수동무가 간절히 바라지 않았소. 그래서 헛치 않은 이 길에 들어 선것이고.》

그리고는 가방에서 《과학기술통보》 잡지 한권을 뽑아 내밀었다.

《여기 연재에 대한 흥미 있는 논문이 실렸더군. 아마 색소광물첨가에 참고가 될거요.》

김철수는 더 이상 입을 열수가 없었다. 따져보면 자기는 첫 《출범》때의 사심 없는 마음과는 달리 수도미화의 절박성이라는 명분아래 어떤 《낮내기》를 서둘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림부국장이 찍어놓은 치욕의 락인으로 내가 순간마다 고통을 당한다는것을 그는 왜 고려하지 않는가?

가슴속에서 부걱부걱 피어 오르는 원망과 노여움은 차원경이 떠나자 애꿎은 리상숙에게 들부어졌다.

《동문 외장재가 고열탄으로만 쉽게 소성된다는걸 알면서도 왜 한마디 반박도 안했소? 연재를 가지고도 정말 자신 있다는거요?》

그때까지 침울하게 앉아 있던 리상숙이 고개를 꺾 들었다. 김철수는 그의 눈에서 뜻밖에 눈물이 뚫고 있는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바인 정말...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부위원장동지가 어떤 처지에 빠졌는지, 외장재문제가 어떻게 번져 졌는지, 예?!》

《?!...》

리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의외의것이였다. 며칠전 관리소에 구역이 시적인 생활문화 시범단위로 선정되었으니 그에 소요되는 회가루를 련관기관에서 받아 가라는 지령이 떨어 졌다 한다. 나라의 석탄사정이 매우 긴장한만큼 언제 성공할지 모를 외장재개발에 탄을 계속 낭비할수 없다는 리유에서였다. 그것은 즉시 차원경의 반발을 샀다. 그는 절대로 회가루는 쓸수 없다고, 그럴바에는 차라리 시범단위로서의 영예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나섰다.

문제는 심각해 졌다. 수도 평양을 꾸리는 사업의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홀시한다는 리유로 차원경은 해임문제까지 거론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것이였다.

《...그런데도 부위원장동진 평양지질탐사대 광물소대장과 함께 현지탐사를 떠났어요. <1>석매장지를 찾으려고요. 왜 그랬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집에 돌아 온 김철수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왜 그랬겠어요?》 하고 리상숙은 물었다. 이제라도 외장재가 성공했다는것을 보고하면 모든 일이 풀리련만 차원경은 위대한 장군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사는 평양을 허술하게 눈가림식으로 치장하느니 차라리 해임쪽을 택할 결심이었던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립장에 서야 하는가?... 감

감 있고 있던 《과학기술통보》를 상기한것은 그 순간이였다. 슬그머니 전실에 나가 문제의 그 론문을 읽기 시작한 김철수는 숨결이 가빠 올랐다. 론문의 필자는 연재가 콩크리트부가물로 훌륭히 쓰이는 근거를 그 조성이 세멘트와 비슷하다는 성분분석으로 증명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번개 같은 련상을 불러 온것이였다.

세멘트를 전혀 몰랐던 고대로마인들은 오늘까지도 옛 모습 그대로인 유명한 원형극장 등 웅장한 건축물들을 화산재를 리용하여 축조했다고 한다. 화산재란 한번 불에 탔던 돌가루이다. 거기에 강한 응집활성이 있다면 연재는? 연재 역시 한번 불에 탔던것이 아닌가?!... 이 추리가 옳다면 연재는 단순히 연료로뿐이 아니라 색소광물을 첨가할 때 낮아 질 부착력 같은것까지 보상해 줄수 있는 썩 먹고 알 먹는 식의 외장재보충원료로 될것이다. 차부위원장도 이것을 포착한게 틀림 없었다. 그렇다. 이것을 확인하자!

이튿날 아침 일찍 대동강역근처의 연재적치장에서 연재를 한배낭 지고 온 김철수는 곧 그 분석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관리소며 그자신이 여태 써오던 실험기구들이 변변치 않아 연재의 활성수치며 《1》석과의 리상적인 배합비률에 대한 검토가 첫 걸음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며칠간의 소득 없는 씨름질끝에 막다른 골목에 빠진 김철수는 할수없이 도경 건재연구소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 먹지 않을수 없었다. 발길질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자존심따위가 무슨 대수랴.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그에게 차례진 대접은 전혀 예상도 못했던 기 막힌것이였다.

《미안합니다. 연구소의 사업질서가 너무 몰려 비밀에 속하는 자료들이 자주 빠져 나간다는 추궁을 받아 나서...》 그를 맞아 준 상대는 여기서 한동안 딱한듯 갑자르더니 힘겹게 보태였다. 《더구나 아바이의 실험의뢰는 무조건 자르라더군요.》

밖에서는 이해의 때 이른 첫 장마비가 주룩주룩 쏟아 지고 있었다. 김철수는 물탕을 철벽철벽 튕기며 마구 걸었다. 차거운 비방울이 얼굴을 후려갈겼으나 가슴속에서는 번열이 일었다. 모든것은 너무도 명백했다. 림부국장은 그 《원산에서의 연구》를 앞세우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여 자기의 사지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것이다. 모름지기 대동강구역의 시범단위선정이며 외장재개발증지지령도 공교로운 일치만은 아닐것이다.

김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좋다. 더는 이런 굴욕적인 걸음을 하지 않을것이다. 대신 차원경부위원장에게 최소한의 실험설비들만은 요구하자. 달리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닌가.

헛씩거리며 관리소에 들어 선 김철수는 갑자기 우뚝 서버렸다. 소성로결에 세운 자동차적재함우

에서 여러사람들과 어울려 무언가 부리고 있는 차원경을 띠며 본것이었다. 어디서 덩굴었는지 바지가랭이와 팔소매는 물론 얼굴에까지 허영계 된 돌가루물, 폭 꺼진 눈확, 조갈든 입술… 아니, 저건 《ㄱ》석이 아닌가?!

비소리를 뚫고 떠들썩한 웃음과 싱갱이소리가 날아 왔다.

《제반 그만하시란대두요. 집에서 양복지를 내다가 휘발유를 채웠다는걸 우린 다 압니다. 그리고 온밤 곡괭이질을 했지요. 연구사아바이 일 때문에 부위원장동지가 아주 쓰러지면 그뎨…》

《뭘 <연구사아바이 일>?!》 차원경의 느닷없는 엄한 목소리. 《동문 생각이 틀렸어. 그건 곧 내일이야. 동무를 포함한 우리모두의 일. 알겠소?!》

눈이 마주친것은 그다음이었다. 차원경은 비로소 차에서 뛰어 내려 김철수를 처마밑으로 이끌었다. 얼굴의 비물을 훔치는 그의 입가에 쓰거운 미소가 그려 졌다.

《다 내탓이요. 실험설비는 갖춰 주지 않고 일만 일이라고 내몰았으니… 헌데 림부국장이 방금 전화로 여기에 오겠다고 알려 주더군.》

《?!…》

《너절한 일이지만… 뭘 더 숨기겠소. 왜 쏘아박박해서 달려 오는지 아오? 내가 좀 알아 보니 그는 지금껏 동무의 기술문건을 복사해서 슬쩍 제 이름으로 원산 어딘가에 도입시켜 왔소. 헌데 그제 실패했다오. 흠, 뭘리가 없지.》

《아니 그거야 감히… 설마?!…》

너무도 아연하여 입을 딱 벌리는 김철수가 못마땅한듯 차원경은 한손을 뺨 내저었다. 그때였다. 정문으로 마침 승용차 한대가 미끄러져 들어 왔다. 자동접이우산을 퍼들고 물웅덩이를 밟을 가봐 조심하여 내리는 사람은 바로 림부국장이었다.

《어- 개성량반이랑 마침 다 있구만!》

그가 먼발치에서부터 살갑게 웃으며 소리쳤다. 눈치를 보는데 한 그러면서도 좀 호기 있는 목소리였다.

《동무들이 성과를 보았다기에 우리 국에선 석탄문제를 전적으로 맡아 풀어 주기로 했소. 평양을 환하게 단장하는 일인데 네것네것을 가릴순 없거든. 그래서 내 원산의 연구성과도 보태여 시급히 다량생산에 넘어 가자는거요.》

마침내 그들앞에 이른 림부국장은 마치 누가 말을 가로챘가 겁내듯 서둘러 김철수의 손을 짹잡았다.

《아깐 안됐소. 그 량반들이 본위주의를 너무 부렸더구만. 그래 싫은 소리 했더니 이제부턴 전적으로 돕겠다더군. 참, 내가 직접 가져다 물리지. 어쩔소?》

김철수는 그에게 잡힌 손이 갑자기 저려 들어 어금이를 앙다물었다. 얼굴은 또 왜 이리 근질거

리는가. 벌레라도 기여 가는것처럼!

《난… 싫소!》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그는 속삭이듯 뇌였다. 그러자 지금껏 가슴속에서 고래치던 혐오감과 증오가 격한 고향으로 변하여 사납게 터져 나왔다.

《난 <런금술자>란 말이요. 남의 돈벌이에 제 비밀이 쓰이는건 죽기보다 싫어 하는, 알겠소? 당신은 그리 알고 제 <금>이나 계속 만드시오!》

김철수는 그달음으로 또다시 물탕을 텅기며 정문밖으로 뛰쳐 나갔다. 차원경의 다급한 부름이 쫓아 왔으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터져 나갈듯 과당거리는 심장의 요동에 맞추듯 《위선자!》, 《비렬한》하고 부르짖었을뿐이었다.

얼마나 철면피한 인간인가. 따져 보면 그의 행위에는 생리학이 풀이하는 동물적인 자기보존본능- 조건반사만이 있다. 외장제기술문건의 가치를 간파하자 사회에 유익하리라는 타산에 앞서 기술일군으로서의 제 실적을 올릴 기회라고 환성을 울리며 그것을 몰래 제 연구성과처럼 꾸미고는 먹이를 떼우지 않으려는 짐승처럼 상대를 가차없이 짓밟은, 나중에는 그 행동이 실패하여 손해를 보게 될것 같으니 태도를 바꾸어 꼬리치는 것으로 한몫 따내려는 그런 조건반사만이!

만약 이 사회의 보존과 발전이 곧 그와 한몸으로 융합된 자기의 생명유지와 긍정적《진화》과정임을 절감한 인간이라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것이다. 차원경처럼 나라일이 곧 《내 일》이라는, 하여 사회의 리익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채 바치는 헌신적반응을, 이것이 우리 시대 인간이 지녀야 할 《사회적조건반사》가 아니겠는가.

김철수가 정신을 차린것은 자기가 사는 살림집 앞마당이었다. 그는 놀라서 사위를 두리빈거렸다.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는가?…

멍하니 굳어 졌던 그는 불시에 몸을 떨며 허겁지겁 층계를 달려 올라 갔다. 그리고는 경황없이 문을 열고 웃방에 뛰어 들었다.

대뜸 피아노가 시야에 안겨 왔다. 안해가 매일 이다실이 걸레질하여 먼지 한점없이 목직하게 번쩍거리는 피아노였다. 건반에 손을 얹어 본지도 까마득하건만 여전히 아득한 수평선에서 흥떡이는 《흰 돛》을 찾아 바다에로 이끌어 가는 그 사무친 음향…

흰 물새 훨훨 파도우에 넘나들고
아득한 수평선에…

때없이 방안을 진동하는 피아노소리에 안해가 달려 왔다. 그리고는 문지방에 화석처럼 굳어 졌다. 그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다. 어떤 극적인 순간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피아노를 타지 않는 남편임을 잘 아는 그였다.

《당신… 웬 일이우? 무슨 엉뚱한 생각을…》

다음 순간 김옥순은 허둥지둥 달려 들어 피아노뚜껑을 꼭 닫았다.

《안되우. 이것만은!… 내가 일생 거절해 본게 없다는걸 당신도 잘 알지 않수. 하지만 그 애를 위해 그 어려운 때에도 손 대지 않은걸…안되우!》

눈물이 그러한 안해의 눈을 피하여 김철수는 혀를 깨물었다. 자기들이 이사 온 그날 저녁 대학에서 달려 온, 다 큰 사내가 된 아들이 울먹이며 속삭이던 말이 고막을 징 울린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마와요. 이젠 없어 진줄 알았는데… 고마와요!》

김철수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여보, 조건반사란게 뭘지 아오?》

자신도 모르게 느닷없이 튀어 나온 물음이었다.

그러자 기다린듯 림부국장의 그 살갑게 웃던 얼굴이 떠올랐다. 김철수는 추위 같은것을 느끼며 몸을 오싹 떨었다. 실험기구가 그러도 절실함에도 자기는 신상에 아무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울타리를 치고는 나라를 뜯어 먹을 투자만을 요구하였으니 그것이 림부국장의 행위와 크게 다른게 무어란 말인가.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나서 먼 신혼생활의 그때처럼 안해의 어깨를 살들히 껴안았다.

《여보, 내 일생을, 또 그걸 고스란히 받들어 온 당신자신의 일생을 부정 말아 주오. 응?!》

…이튿날 피아노가 실려 나간 텅 빈 방에서 김철수는 출근이 늦는다는 안해의 잔소리도 못하고 후련한 피로감에 싸인채 잠박 즐겼다. 그는 자기가 전날에 맞은 비때문에 또다시 된 독감에 시달리리라는것을 몰랐다. 그리고 그런 고생스러움을 앞으로 몇달 더 치르어야 한다는것도 몰랐다. 더우기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해 11월 15일 점착제나 촉매제 같은것을 전혀 쓰지 않는 토성범외장재를 완성하여 평양시의 생산문화, 생활문화에 크게 기여한 자신의 소행을 친히 료해하시고 높은 평가와 함께 텔레비존과 신문, 방송을 통해 널리 소개하도록 깊은 은정을 돌려 주시리라는것을, 하여 전국적규모의 큰 방식상하이 벌어지고 술한 기자, 촬영가, 지이 영화문학작가한테서까지 들볶이게 되리라는것을 몰랐고 알수도 없었다.

그저 별스레 시름이 풀린듯 한 기분속에 꿈을 꾸었을뿐이었다. 그 꿈속에서 김철수는 고혹적인 미소를 뿌리는 고구려 세 녀인의 은근한 비취색 치마폭을 처음으로 황홀히 어루만질수 있었다.

웃는 거리

지난해 4월 초 어느날, 눈부신 봄별이 쏟아져

내리는 문수거리의 한 고층살림집밑에 좀 갱뽕한 몸매의 로인이 건물벽체를 손으로 어루쓸고 있었다. 김철수였다. 그의 늙은이답지 않게 반짝이는 눈은 포근한 안정감을 주는 연회색벽체에 못박혀 떨어 질줄 몰랐다. 지난해 가을 그의 외장재를 바른 살림집이었다. 그러도 사납던 50년래의 강추위와 끊임 없는 폭설에 얼고 씻기우면서도 한점 얼룩이나 색바랜을 모른 외장재, 그 산뜻하고 정결한 《새옷》을 펼쳐 입고 건물은 하늘 높이 키를 솟군채 세상을 향해 활짝 웃는듯 했다. 그 미소가 투영되어서인지 거리를 물결치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빙글빙글 웃음이 떠돌았다.

김철수는 눈썹이 더워 났다. 문득 어느 책에선가 본 문구가 뇌리를 스쳤다.

《자기의 래일을, 조국의 래일을 두려움없이 바라볼 가능성을 가진 인간은 강하다.》

왜 《두려움없이》만이겠는가, 왜 《가능성》만이겠는가?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께서 내나라, 내 조국을 이끌어 강성대국건설의 넓은 길을 앞장서 열어 나가고 계시기에, 그 눈 부신 래일이 춤 추며 마중 오는것을 분명히 보고 있기에 평양사람들, 아니 온나라 인민은 저리도 환희에 찬 락관의 미소를 피워 울리는것이 아닌가!

김철수는 고개를 한껏 제끼고 태양이 빛나는 가없는 봄하늘을 우러러 혼자소리로 뇌였다.

《난 행복자지. 이 평양의 거리에 한점 미소라도 보태준 셈이니… 그게 행복자지!》

누군가 팔굽을 살며시 건드리는 바람에 김철수는 엉거주춤 돌아 섰다. 그앞에는 다급히 걸어 오느라고 처너처럼 얼굴이 빨그레 익은 리상숙책임기사가 서 있었다.

《여기 나와 게시물 알았어요. 빨리 가십시다. 부위원장동지가 기다려요.》

《오늘 같은 날까지 왜?》

좁전야 제16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 제출할 논문과 견본준비를 끝내고 머리를 쉬우러 나왔던 참이라 김철수는 저으기 짜증이 났다.

《전에 토론한것 있잖나요. 그 연구에 당장 불으라는겁니다. 저도 그래서 불려 왔답니다.》

《술도 못 돌리게 다불러 대는군.》 김철수의 입에서는 절로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 《난 이젠 60살이 넘은 환자란 말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김철수는 성큼 걸음을 떼었다. 느닷없이 10년전 이 이방에서 자기를 언짢게 질책하던 사나이가 바로 차원경일수 있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라 그는 심술 껌게 투덜댔다.

《그게 사실인지 따져 봐야지. 진작 알아 보고 골탕 먹여야 하는건데…》

하지만 그의 얼굴은 흥겨운 미소로 환해 져고 걸음은 젊은이들처럼 활가분하고 경쾌했다.

하늘이 따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씨야의 영웅도시 쾰크트-뻬제르부르크(이전 레닌그라드)에 도착하시기 며칠전부터 그곳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무겁게 실리어 무시로 대줄기 같은 비를 쏟아 붓고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번덕스러운 장마철의 폭우를 헤치시며 시안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참관대상에 도착하시었을때였다.

하늘을 근심스럽게 올려다보던 영접일군들은 이제 또 한소나기 쏟아 지겠구나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화환진정과 명예위병대사열, 박물관참관을 마치실 때까지 비

는 내리지 않다가 그이께서 승용차에 오르시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뒤를 따라 레닌광장으로 가는 로씨야일군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의 긴장은 풀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레닌광장을 참관하시겠는데 지금 퍼붓고 있는 비가 과연 멎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레닌광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시자 계속 퍼부을것 같던 소낙비가 똑 그치고 먹장구름으로 뒤덮였던 하늘이 흰히 열리기 시작하였다. 로씨야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용차에서 내리실 때마다 비가 멎군하는데 대해 머리를 기웃거리며 신통해 하였다.

그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레닌동상과 지하철도역을 돌아보실 때에도 그렇게 비가 멎더니 다음참관지인 끼로브공장을 향해 차에 오르시자 기다렸던듯이 또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 끼로브공장을 돌아보시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룬전기재들의 가동상태를 보시기 위해 야외에 나오시자 그리도 세차게 퍼붓던 비가 멎고 해가 비치기 시작하였다.

쾰크트-뻬제르부르크의 한 일군은 기쁨을 금치 못해 하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었다.

《**김정일** 동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비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번역시

사랑만은 영원하리

(그루지야) 카이쉰 굴리예브

이 세상 참혹한 전쟁도 세기를 두고
그대 사랑만은 죽여 버릴수 없었거니
영원히 살며 통쾌하게 웃어 댄다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죽음을 두고

그 어떤 무시무시한 탄알보다도
이 세상 위험한 폭탄보다도
이 땅엔 더 강한 사랑이 있거늘
사랑만은 영원하리

아 전쟁으로써는
사랑을 죽여 버릴수도
사랑의 높은 하늘 깨뜨릴수도 없거늘
그대밑에선 그 어떤 어둠, 그 어떤 암흑도

자취를 감춰 버린다 전쟁의 뒤를 따라
아 사랑만은 영원하리

사랑은 억년 드눌지 않는 요새
전쟁으로써는 파괴도 점령도 할수 없거늘
변함 없구나 생의 진리
바다의 심연속 처박힌 군함처럼
전쟁은 죽음만을 알리- 사랑만은 영원하리!

이 세상 무서울것 무엇이냐
청춘이여, 우리의 행복이여
노래하라 봄을, 사랑의 피리여.
불행의 세찬 바람 제 아무리 불어 대도
그것은 죽은 목숨-사랑만은 영원하리!

우리의 세월은 어떻게 흐르는가

전승일

영웅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기쁠 때는 기뻐서 웃고
슬플 때는 슬퍼서 우는
나의 입과 다름 없는
전승기념탑 영웅들의 입입니다

노예의 멍에를 끌던 날엔
헉헉- 마소의 단김을 뿔었고
분여지의 말뚝을 광광 박던 날엔
처음으로 기운찬 타령도
불렀을 입입니다

지금은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타들어 가는 수류탄을 물고
불이 터진 중기압철을 굳게 물고
무슨 말을 웨치고 있습니까

기뻐서 웃고 슬퍼서 우는
평범한 입이 될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칼을 물고 덤벼든 강도배들앞에서
어찌 사랑과 증오를
허만으로 다 말할수 있었겠습니까

처녀에게 속삭이고 싶었고
어머니 계신 고향의 하늘가에
떠워 보내고 싶었던
그 억만마디 소중한 말들을
영웅들은 불이 되어 웨쳤습니다

침략자들이 덤벼 든 땅에서는
영웅들이 하고 싶은 말이
노한 중기가 되고
불덩어리 수류탄이 된것입니다!

그대들은 내려 선적 없어도

한발자욱만 내려 서면
용단 같은 잔디들이
처절했던 전쟁의 피로를
다 풀어 주련만
그대들은 내려 선적 없습니다

피 더운 심장을 던져
안아 지킨 목숨들이
고운 꽃들만을 골라
안고 온 꽃뭉치들이
꽃산을 이루었건만
그대들은 내려 선적이 없습니다

허나 이 대돌우에
이 세월의 끝까지 자리를 정하고
그대들은 내려 선적 없어도
어찌 보면 내가 사는 그 어데나
그대들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까

처녀와 속삭일 때도
순결한 말마디들을 골라
이 심장에 넘치도록 채워 주었고
아침마다 차림새를 살필 때면

마음까지 비쳐 주는 거울이 되어 주었습니다

쇠물을 끊이는 강철로앞에선
강철과 슬라크를 가르느
엄격한 투시경이 되어 주었고
진리를 밝히는 교정의 창가에선
이 심장을 채찍질하는
참된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사들의 총창이
무엇을 지켜 번개쳐야 하는지
병사들의 군화끈이
무엇때문에 풀어 지지 말아야 하는지
이 나라 전호가마다 다 찾아 다니며
그대들은 피로 새긴 진리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돌우에 올라 선 때로부터
그대들은 내려 선적 없어도
내 인생을 가르치며
태어나고 태어나는 후손들을 가르치며
그대들은 조국땅 그 어디나 가 있습니다
수천만 심장결에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꽃송이

어쩌면 동갑일수도 있으리
병사는 피 붉은 가슴으로
침략자의 불구멍을 끌어 안았고
그앞에 서 있는 신랑신부 가슴우에선
붉은 꽃송이가 곱게 웃고 있다

그대들의 가슴우에
이 꽃을 달아 주자고
그 꽃송이 필 자기 가슴에는
불이 터진 총구멍을 끌어 안고
오늘도 대돌우에 서 있는것인가

어쩌면 이 병사

피 젖은 가슴우에
토양처럼 뿌리 박고
피여 난 꽃이 아니냐

한생에 한번씩은 다 달아 보는 꽃송이
그 꽃송이 필 가슴의 피방울을 뿌려
이 병사가 피원 올린 꽃송이가 아니냐

아, 이런 꽃은 시들지 않는다
땅우의 꽃들은 시들어 떨어 저도
영웅들의 가슴에 뿌리 박은 꽃은
천백년을 곱게 피여
신랑신부 한생을 아름답게 장식하리

승리상 앞에서

내 아직
불이 튀는 전호가에서
육박전의 날창 한번
닭아 보지 못한 이 손에
이 나라 산야마다 붉게 타는
들꽃 한송이
고이 들고 왔나니

받으시라 영웅이여
이 땅에 결전의 날이 와
고향과 작별하고 떠났던 이 몸이
만약 돌아 오지 못한다 해도
돌아 봐다오 그리고 믿어 다오
조국에 심장을 바쳐 길이 영생하는
그대들의 맨 뒤자리에
나도 와 서 있으리라는것을

우리의 세월은 어떻게 흐르는가

세월은 흐른다
전승탑 이 마당에 찾아 온
저 꽃리봉 단 아이들의 보조개우에
신랑신부 행복한 심장우에
한해한해 년륜을 감아 주며

세월은 흐른다
저 장알진 용해공의 손에도
눈 부신 은빛 조작변을 쥐여 주며
저 로인의 깨끗한 백발에도
생의 환희를 덧놓아 주며

이렇게 흐르리라 우리 세월은
강성대국의 봄바람을 타고
더 좋은 래일을 소리쳐 부르며
용용히 파도쳐 흐르리라

허나 우리 세월은 잊지 않는다
십년이 가고 백년이 가고
다시 또 천년이 흐른대도
전승기념탑 이 마당을

땅크밑에 날아 들던

저 너병사의 단발머리를 안고
우리 세월은 흐르리라
입에 문 저 영웅병사의 수류탄을 안고
우리 세월은 흐르리라

남해가에서 가슴치며 벗지 못한
저 피 젖은 군화들을 받아 신고
우리 세월은 울부짖으며 흐르리라
넘겨 주고 넘겨 주던 저 색 바랜 군기들을 이어
안고
우리 세월은 역세계 흐르리라

왜 우리 세월만은
웃음만을 안고 흐르지 못하는지
왜 우리 세월만은
부디 전승기념탑 이 마당을 거쳐 흘러야 하는지
세상이여 묻지 말라

억만년 흘러 갈 우리의 세월속에
50년대가 피로 새겨 준 철리가 있거니
침략자가 살아 숨 쉬는 한
조선의 세월은 평온할수 없다는것을!

길, 우리, 봄의 고향이 안고 있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

김용부

작품의 심오한 철학성은 언제나 종자의 철학적 무게와 정비례한다.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명가사에는 레외없이 무게 있는 철학적종자가 심어져 있다. 종자가 뚜렷치 않거나 무게 없는 종자를 심은 작품은 사람들의 정서적여운속에서 쉽게 사라지지만 무게 있는 종자를 안고 있는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든든히 뿌리를 박고 그들의 심장을 움켜 쥔채 영원한 진리의 선물로 되어 열렬히, 뜨겁게 울려 준다. 마치도 쪽정이는 물위에 떠서 인츰 논고를 따라 흘러 내리고 무겁게 영광은 알찬 씨앗만이 논물에 가라앉아 앙금을 움켜 쥐고 뿌리를 깊이 박은채 탐스러운 아지와 풍만한 열매를 맺는것과 같다고 할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에는 독창적으로 찾아온 종자가 있어야 하고 시인이 노리는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 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만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가사에는 시인의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도 있어야 하며 새롭고 풍만한 서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명가사창작의 기본비결은 짧은 가사속에 누가 무게 있고 특색 있는 종자를 깊이 묻어 두는가 하는데 있다.

혹자는 공리공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을 말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이 아니다. 상식이란 누구나 다 알아야 하고 또 다 알고 있는 명백한 지식을 말한다.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것을 두고 공리공담을 한다고 말할수는 없다.

실지에 있어서 시인들은 서정시, 서사시창작에서는 무게 있고 특색 있는 종자를 골라 잡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아끼지 않지만 가사앞에서는 팬히 담이 커져서 심오한 사색도 없이 무턱대고 손쉽게 써낸다. 심장과 뇌수가 준 붓이 아니라 오그랑수와 잔재간이 쥐여 준 붓으로...

이런 의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기념비적명가사들을 새롭게 음미해 보자, 종자탐구의 각도에서...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폭 넓게 멀리 내다볼줄 아는 시인의 시야에서, 준엄한 혁명의 력사와 장엄한 시대정신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의 작고도 넓은 가슴에서 명가사

《승리의 길》이 태어났다.

가사 《승리의 길》은 무게 있는 철학적종자를 심고 거기에서 《고난의 행군》시기 장엄한 승리의 행진곡을 분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가사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시로 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종자의 철학적무게를 규정짓는 기본징표는 일반화의 폭과 심도이다. 력사발전의 합법칙성, 인간의 운명문제해결방도를 어느 정도 폭 넓고 깊이 있게 일반화하였는가, 시대정신을 어느 정도 심오하게 반영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종자의 철학적무게를 문예학의 저울추로 달수 있다.

가사 《승리의 길》은 일반화의 폭이 넓고 중심이 깊다.

시인은 준엄한 조선혁명의 현시점에 서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큰 사람》의 시야로 굽어본다. 그것도 보통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풍만한 형상적표현수단을 가진 예민하고 정서적인 시인의 눈으로...

물론 다른 시인들도 한편의 작은 가사에 《큰》 력사, 《큰》 사상을 담고 폭과 심도를 보장한 철학적인 가사를 쓰려고 한다. 그러나 성공한 작품은 많지 못하다. 작곡가를 잘못 만난 탓일가, 아니다. 명백히 말하건대 그것은 일부 시인들이 사색과 탐구를 게을리 한데 있다.

한편의 작은 가사에서 거대한 폭과 깊은 중심을 보장하자면 련과 시행을 이룬 때 단어, 때 시구하나가 열, 백의 심오한 형상적의미를 2차, 3차원적으로 련상시켜야 하며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유발시켜야 한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홀린 피 붉은기에 있고
승리의 천만리우에 영광의 자욱이 있다

《머나먼 혁명의 길에 홀린 피 붉은기에 있고》라는 구절을 가만히 입속으로 외워 보느라하면 수령님 따라 시작한 혁명의 길에서 열혈의 붉은 피를 만주광야에 뿌린 수많은 항일투사들이 잇을수 없는 모습으로 눈앞에 떠오른다. 김혁, 차광수, 오중흙, 권영벽...

《승리의 천만리우에 영광의 자욱이 있다》이 구절을 읽어 가느라면 《E.C》의 기발이 세차게 휘날리던 화전의 언덕,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의 《만세》소리가 저 하늘에서 봄우뢰를 터뜨리던 안도의 등판, 불기둥이 솟구치던 보천보의 밤하늘이 눈앞에 어려 오고 광복후 새 민주조선건설의

우렁찬 마치소리, 미제를 타승한 전승의 축포소리도 쟁쟁히 들려 온다.

참으로 시인이 사색과 탐구속에서 피땀을 짜내며 한자한자 쪼아 박은 시어들과 시구들은 그 어떤 시나 소설문장도 쉽게 담을수 없는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런상시킨다.

가사 《승리의 길》은 시대정신도 심오히 일반화하고 있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이다. 시대정신은 시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다.

가사 《승리의 길》에는 시인이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주도적인 시대감정을 안고 몸부림친 흔적이 력력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 머리가 깨끗한 작가들은 현실을 바로 보고 비록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곤란해도 반드시 잘 살게 될 날이 온다는 신심과 락관에 넘치는 좋은 내용의 작품을 써내고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시기와 김행군시기에 우리의 생활은 어려웠다. 그러나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다. 선군의 기치 높이 드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만 믿고 승리를 락관하였으며 반드시 잘 살 날이 온다는 확신속에 모든 시련을 웃으면서 이겨 내였다.

장군님만 계시면 승리한다는 신념, 장군님께서 보살피시는 한 우리가 잘 살 날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의 의지이고 신념이고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이였다.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이 사상감정을 시인은 우리모두에 속한 한사람이 되어 자기의 진정을 터뜨렸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고...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이 형상적표현속에는 모든 시련을 이겨 낸 영웅적 우리 인민의 락관주의적혁명정신, 수령님을 따라 시작한 이 혁명을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기어이 승리 떨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 응축되어 있다. 그것도 단순한 기대나 소원이 아니라 필승의 신념으로 비껴 있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을 해왔다. 이 말속에는 지난 날 우리 인민의 눈물어린 소원이 한술속에 젖어 있었다. 실현의 가능성은 표면하였지만 그렇게 되어 주기를 눈물속에서 간절히 애원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이 말속에는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모두가 스스로 찾아 낸 진리, 믿음과 확신, 가능성과 필연이 담겨 진 절대적진리가 담겨 져 있다.

시인은 끝 없는 사색의 세계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가사의 종자로 심어 놓았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이 종자는 무게 있고 이처럼 무게 있는 종자를 심은 이 가사는 철학적으로 심오한 명작

으로 되었다.

우리

한창 명절기분에 떠 있던 2월 17일이던가 18일이던가 나는 시인 류동호의 집 전화번호를 미심결에 돌려 보았다. 2월의 백두밀영고향집앞에서 진행한 경축행사에 참가한 그가 벌써 돌아 왔을리는 만무할것이고 그래도 행어나 해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뜻밖에 전화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벌써 갔다 왔나?》 나는 놀라운 나머지 성급하게 물었다.

그는 아무런 가식도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백두산이야 우리 집인데...》

백두산은 자기 고향집뜨락과 같아서 그리우면 때없이 마음대로 다닌다는 소리이다.

그의 대답에 나는 어쩐지 가슴이 몽클하였다. 백두산, 백두밀영의 고향집을 화려한 시구절속에서가 아니라 폐사로운 생활속에서 아무런 꾸밈도 없이 진심을 담아 자기 집, 자기 고향집이라고 하는 그의 대답은 나의 머리속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시인은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을 친아버지로,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집을 자기의 고향집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어별이 크다고 나무람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만이 아닌 우리모두는 행복하게도 위대한 장군님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친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모두를 친자식, 친형제로 살뜰히 보살펴 주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언제 한번 자신을 우리 인민과 떼여 놓고 생각해 본적이 없으시며 행복한 대가정의 한식솔로 생각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10대의 나이에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우정에 대한 생각》을 상기해 보시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에서 너는 나이고 나는 너라는것, 왜냐하며 너도 우리의 나이고 나도 우리의 나이기때문이라는것, 따라서 어디 가서 어떻게 변해도 너는 귀중한 우리의 너라고 《우리》라는 철학을 심오하게 해명하시였다.

언제나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하나, 박동도 하나로 맞춰 가려는 시인은 장군님의 《우리》철학을 평범한 생활속에서 진심으로 체득한 시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사상정서적바탕우에서 명가사 《우리의 김정일동지》가 창작되였다.

이 가사의 사상적알맹이를 소박하게 《우리》라고 규정하고 싶다. 그러나 폐사로운 생활속에서 찾아내고 평범한 말로 규정 지은 종자에는 매우

심오한 철학적의미를 띠고 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주체문학의 심오한 철학성을 《우리》라는 말속에 집약되어 있는 생활의 진리, 다시말하여 《우리》철학을 얼마나 깊이 있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주체사실주의는 그의 영원한 형상원천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의 본질로부터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 말 그대로 《우리》에 대한 열정의 송가로 되어야 하며 《우리》라는 말속에 체현되는 집단주의적생명관의 생동한 현상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라는 말속에 비친 수령과 당,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노래하는것은 시인들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요 《우리의 김정일동지》는 수령형상시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으로 되어야 할 《우리》철학을 최상의 경지에서 구현함으로써 주체의 시문학이 도달하여야 할 높이에 올라선 명작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그 어떤 존칭수식사도 없이 그저 《우리의 김정일동지》라고 소박하게 표현한 이 작품이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파도치는 격정을 불러 일으키게 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라는 말은 인민의 수령이 인민으로부터 받아 안을수 있는 최상 최대의 존칭이고 이 말을 대신할수 있는 그 어떤 표현도 더는 없다.

가요는 사회주의 한지붕아래 행복한 대가정을 꾸려 주신 위대한 인민의 아버이를 노래하면서 장군님과 인민사이에 오가는 혼연일체의 혈연적련계를 그 어떤 요란한 수식사나 까다로운 《철학적 명구》도 없이 진실하고 간명하게 표현하였다.

그이가 인민을 하늘이라 부르시면 인민은 그 하늘의 태양은 우리의 김정일동지라고 노래하고 그이가 인민을 선생으로 부르시면 인민은 그 선생의 스승은 역시 우리의 김정일동지라고 노래한다.

아버이, 하늘, 태양, 선생, 스승 이 땅위에 존재하는 가장 숭고한 말위에 그것을 하나로 합쳐 《우리》라는 말이 존재하게 될 때, 수령이 인민을 《우리 인민》이라 하고 인민이 수령을 《우리 수령》이라고 할 때 그밖의 모든 천만마디 아름다운 형용사들과 무게 있는 수식사들은 빛을 잃고 마는법이다.

여기에 우리 시인들의 그 누구도 누릴수 없는 행복이 있다. 자기 정도자를 《우리의 김정일동지》라고 부를수 있는 시인들은 세상에 오직 우리밖에 없다. 이 가사는 《우리》철학의 심오한 구현으로 주체시문학의 성과작으로 되고 있다.

영원한 봄의 고향

명작에는 레외없이 시인이 독창적으로 발견한 특색 있는 종자가 심어 져 있다. 서로 어슷비슷한 종자는 필연코 류형적인 시를 낳게 된다.

시인은 혁신적안목으로 시대를 새롭게 관망하고 심오한 사색의 세계에서 발견이 깃든 특색 있는 종자를 골라 잡아야 한다.

심오한 사색의 세계는 명작의 《품》이며 특색 있는 종자는 명작의 생명선이다.

가사 《2월은 봄입니다》는 착상도 새롭고 종자도 특색 있는 인상 깊고 매력 있는 한편의 정교한 서정시이다. 시인은 깊은 철학적사색속에서 착상도 새롭게 하고 종자도 특색 있게 잡았으며 형상도 매력 있게 창조하였다.

해마다 찾아 오는 봄, 절기를 앞당겨 찾아 오는 백두밀영고향집의 봄, 이것은 부인할수 없는 자연현상이며 자연이 주는 정서이다. 그러나 시인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이 정서를 자연적인 정서로만 감수한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정서로 새롭게 음미하면서 우리 시대의 심오한 철학세계를 밝혀 냈다.

이깎숲엔 서리꽃이 반짝이여도
들창가엔 봄빛이 따스합니다
백두밀영고향집 트랙가에서
이 가슴에 안아 보는 2월은 봄입니다
...

정일봉의 고향집트락에 선 시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겨울이 장식한 이깎숲의 서리꽃과 고드름뿐이었다. 그런 속에서도 어쩐지 그에게는 고향집트락에 들어 선 기쁨과 안정감이 느껴 지고 어디선가 꽃향기를 풍기며 조선의 봄, 주체의 봄이 오고 있다는 감각을 폐부로 느끼었다.

그의 마음속에 비쳐 든 봄과 봄빛은 자연 그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정서를 통해 환기된 생활의 철학이 비친 하나의 새로운 미의 세계였다. 그래서 이 가슴에 안아 보는 2월은 봄이라고, 조선의 봄은 백두밀영고향집에서 시작되었다고 노래 불렀다. 아직 여기에는 새로운 착상이 깃들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 불렀다.

그러나 시인의 사색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 자연의 정서를 인간의 정서로 감수한 시인은 다시금 새로운 사색의 바다를 건너 보다 심오한 철학의 세계로 들어 선다.

그것은 바로 2월의 봄을 영원한 봄의 고향이라고 긍지높이 노래 부른것이다. 《영원한 봄의 고향》이라는 이 씨앗속에서 《2월은 봄입니다》가 명작으로 태 어났다.

봄은 인류시가사가 시작되어 수천년,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때에도 사랑과 함께 영원한 주제로 되었다. 그 어느 시대를 돌아 보아도 그 어느 시인을 꼽아 보아도 류다른 애착을 가지고 봄을 노래하지 않은 시인이란 없었으며 봄의 향기에 취해 시흥속에 잠기지 않았던 시인은 없었다. 우리 나라에도 그리고 머나먼 이국의 시인들도...

리상화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눈물을 머금고 정들었던 들에 물어 본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다고 가슴 아프게 대답했다. 그 눈물속에, 가슴저린 그 아픔속에 빼앗긴 봄을 되찾아 줄것을 바라는 시인의 절절한 기대와 소원, 뜨거운 열망이 비껴 있다.

영국의 랑만주의시인이었던 셸리는 서정시 《서풍송가》에서 어지러운 영국사회의 모든 부패한 오물들을 락엽처럼 훑날려 보내여 동토대의 한설 속에 묻어 버린 그 서풍을 결정적으로 찬양하여 노래 부르면서 시의 걸구를 《겨울이 가면 봄도 올것 아니냐》라고 력점 찍어 끝 맺었다.

뿌슈킨도 짜리전제하의 암흑의 농촌현실을 구슬픈 정서로 노래한 서정시 《농촌》에서 언제면 자유의 땅에 봄이 올것인가를 격조높이 웨쳤다. 그때 그 시들은 철학도 있고 정서도 깊은 명작으로 인정되어 세계문학사에 당당히 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철학적으로 인식했던 봄을 두고 어둡고 불공정한 당대의 현실과 대비하여 도래할 밝고 공정한 생활에 대한 비유적표현으로만 인식했다. 과연 그러한 봄이 어디서 어떻게 마련되는가 하는 뜻 깊은 사색의 세계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것은 바로 봄을 노래할 대상을 찾지 못했기때문이라.

그러나 오늘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삶의 봄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지켜지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봄이 하나의 상징적인 봄, 추상적인 봄으로부터 하나의 현실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고향》이라는 표현이 자연의 봄과 어울려 저 《봄의 고향》이라는 심원하고도 특색 있는 시적종자를 찾고 형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봄의 고향, 짙은 정서에 젖은 이 표현은 그저 정답게만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늘 쓰던 《마음의 고향》이라는 표현보다 철학적으로 더 심오하게 안겨 온다.

봄의 고향, 여기에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감정, 모진 고난을 이겨 내고 맞이하는 행복과 기쁨의 감정이 뜨겁게 어려 있다.

시인은 이 행복의 봄, 기쁨의 봄은 어디서 오며 그 누가 안아 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층 더 승화시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고 있다.

이 봄은 백두산3대장군이 안아 오신 봄이며 백두의 태양이 찬란한 빛을 뿌려 흑한속에서도 가꿔주고 지켜 주는 봄이다. 그래서 이 봄은 영원하며 봄의 고향도 영원한것이다. 시인이 발견한 이 진리성에 우리모두는 탄복한다.

그렇다! 우리의 병사들과 인민이 총대로써 방들어 가는 백두의 태양, 위대한 백두의 태양이 빛을 뿌려 영원히 빛날 봄의 고향, 위대한 봄의 고향은 영원할것이다.

우리 장군님 필체

(남녘겨레의 흠모심)

《6.15북남공동선언에 명기된 장군님필, 그것은 어느 서예가도 따를수 없는 명필체이다. 그 필체만 보아도 **김정일**장군님은 당당하시고 진취적이시고 대담하신 위대한 정치가, 장군중의 장군이심을 쉽게 알수 있다.》

서울에 사는 한 서예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내닫는듯, 룡이 솟구쳐 하늘로 오르는듯 힘 있고 시원하고 활달한 장군님의 필체에서 기어이 통일을 이루시려는 백두산 장군의 억척 같은 의지를 보았고 결심을 읽었

다.》

정치평론가 박진

《번개같이 붓을 달리는 장군의 비상한 속력에서 우리 국민은 이제 통일렬차가 초고속으로 달려 미구에 종착역에 가닿게 되리라는 확신을 굳힌다....

우리 국민은 **김정일**장군의 필체에서 통일의 태양, 민족자주의 빛발을 보며 그 빛발따라 전진하는 민족의 위용을 본다.》

력사학교수 박남수

작가와 애국

-소설가 황건의 생애를 더듬어 보며-

조성학

누구에게나 소설가 황건이라고 하면 먼저 단편 소설 《불 타는 섬》이 떠오를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단편소설 《불 타는 섬》을 읽으며 매혹되던 그 시절도 이제는 멀리 흘러 갔다.

그때 작품의 첫 머리에 새겨 진 작가의 이름을 되새겨 보며 이처럼 훌륭한 소설을 쓴 작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그려 보던 나에게는 오늘 그 이름이 우리 소설문단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소설가로 간직되었다.

그것은 소설작가가 되어 보려는 꿈을 안고 우리 나라와 세계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작품들과 그것을 쓴 작가들의 창작적개성에 대하여 파고드는 과정에 소설가 황건의 작가적모습과 인간적 면모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열렬한 애국자가 아닌 작가가 어찌 애국주의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있으며 인민을 사랑하지 않는 예술가가 어찌 인민을 위한 예술을 창작할수 있겠습니까.》

세계의 위대한 작가, 예술가들은 위대한 애국자들이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싸운 위대한 투사들이였습니다.》

애국과 열정으로 한생을 값높이 살아 온 애국적인 작가, 이는 바로 내가 더잘 알게 된 소설가 황건의 참모습이었다.

1. 산곡의 목부로부터 불 타는 섬에 올라

...

양사뒤로 무연히 펼쳐 저 올라 간 푸른 골짜기와 등마루를 향하여 양들은 구름처럼 하얗게 올라 갔다. ... 새솔에 덮인 가없는 푸른 바다를 구름처럼 소리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골짜기에서 등성이로, 등성이에서 골짜기로 양들이 옮겨가는 사이 남아와 장수는 하나가 골짜기에 섰으면 하나는 멀리 등마루에 서고 하나가 등마루에 섰으면 하나는 골짜기에 서서 휘파람을 불며 골짜기를 불며 그랬다. ...

그러한 속에도 양은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느 웅덩이에는 몇마리쯤 떨어져 있고, 어느만큼 가서는 어느 쪽으로 돌이켜 세워야겠다는것 이 그들에게는 환했다. ...

(단편소설 《남아의 양》중에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암담하던 그 세월 황건은 청춘의 푸른 꿈을 초야에 묻고 기쁨도 희망도 없는 우울속에서 고향땅을 짓밟고 주인행세를 하던 왜놈이 경영하는 목자의 목부로 일하였다.

주체7(1918)년 4월 28일 량강도 풍서군 유상하리의 가난한 화전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열한살에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갓 살림을 편 형의 집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나이가 쉰 우인 형은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되었다.

형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사립학교를 다닌 그는 그후 일본에 건너 가서 도쿄의 어느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학비난으로 고학살이의 피눈물 나는 체험을 겪어야 하였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가구점 직원 등 닥치는대로 일하여 버는 돈으로 힘겹게 공부하면서 그는 지식보다 먼저 나라 없는 민족의 수난과 고통을 뼈저리게 절감하였으며 이 나날 떠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잠들수 없었다.

이런 마음속에는 수려한 산기슭 절벽을 어루만지며 고향마을을 감돌아 흐르는 허천강의 유정한 물소리며 가난속에서도 서로 아끼며 위해 주던 이웃들이며 소꿉동무들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던 것이다.

끝내 힘겨운 이국살이를 더는 견디여 내지 못하고 1년만에 서울로 다시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쓰디쓴 환멸과 수모만을 당하였다. 그래도 좀 더 공부하여 불가 하여 보성고보에도 다녀 보고 교원생활, 기자노릇도 해보았으나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불행과 고통은 황건에게도 사정없이 들썩워 졌다.

그속에서 한가닥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은 문학에 뜻을 두게 된것이다.

보성고보에 다닐 때 수필을 쓴것이 신문에 발표된것을 계기로 점차 문학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습작으로 단편소설을 써서 낸것이 신문에 발표되었던것이다.

마음속의 우울을 달래여 주는 문학공부! 황건은 밤을 새워가며 닥치는대로 구해 들인 우리 나라와 세계고전문학작품들을 읽고 또 읽었다.

당시 그가 일생을 작가로 살리라 다진 맹세는 얼마 가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었다.

일제가 조선말과 신문, 잡지들을 모두 없애버림으로써 작품을 써도 발표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모든것을 포기해 버리고 고향 개마고

원에 돌아 와서 목부로 되었던것이다.

황건의 가슴속에서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이 세차게 끓어 번지였다.

광복전까지의 이 목부생활은 후날 그의 작품창작에 도움을 준 귀중한 생활체험의 나날이기도 하였다.

...

남아는 물고 다니는 수백마리의 양들에 목장장님의 이름을 붙여 《모리다》로, 서기놈과 왜놈앞잡이놈들의 이름을 붙여 《니시하라》, 《패대장》, 《개털양》으로 부르며 왜놈들을 물고 다닌다는 자신심에 부풀어 양들을 물고 다닌다.

그러나 삼태자를 낳고 엉덩이가 푸짐하게 생긴 양에게는 《큰에미》로 부르며 좋은 풀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삼태자를 낳으라고 애지중지 물고 다닌다.

사랑하는 조국, 그러나 남의 구두발에 짓밟힌 조국에 대한 모순된 감정에서 모태기였던 남아는 일제가 패망하여 도망치면서 수백마리나 들어 있는 양사에 불을 지르자 희생적으로 불속을 뚫고 들어 가 양들을 구원한다.

《실로 저것들은 모두 우리 조선사람의 피땀으로 키워 낸것이 아닌가? 저것들은 모두 우리 조선사람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귀중한 재산이 될것이 아닌가?》(단편소설 《남아의 양》중에서)

남아는 황건자신이였다. 광복후에 발표한 단편소설 《남아의 양》은 광복전 황건의 가슴속에 차넘치고 있던 애국심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조국의 광복은 황건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

하몽과 고분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국에서 산곡의 주인이 되어 누리게 된 기쁨과 환희로 어찌할바를 몰라 한다.

그 기쁨은 머슴으로부터 주인으로, 하바닥에서 막돌처럼 굴리우며 당하던 수난과 천대와 멸시로부터 긍지 높고 떳떳한 인간의 존엄을 찾게 된 것으로 하여 더욱더 가슴 벅차오르는것이였다. 그저 일을 많이 하자. 힘껏 땀 흘려 일해서 이 사랑, 이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답하자. 이런 강렬한 충동만이 그들의 온 마음들을 사로잡고 있을 뿐이다... (단편소설 《산곡》중에서)

광복후 처음으로 발표한 단편소설 《산곡》은 그의 가슴속에서 끓어 오르는 광복의 환희와 기쁨을 이렇게 터쳐 놓았다.

고향에서 광복을 맞이한 그는 면인민위원장으로 추천되어 새 조선건설을 위한 선전조직사업으로 분망한 나날을 보냈다. 들끓는 현실속에서도 그의 가슴은 문학창작에 대한 열망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였으며 그로 하여 고향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몇달이 지나서 평양으로 달려 갔다.

평양에 올라 와서 여러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몇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한 그는 주체37(1948)년

초에 작가대오에 들어 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암흑속에서 비탄에 젖어 헤매이던 그에게 재생의 광명을 안겨 주시었을뿐아니라 작가가 되려는 간절한 념원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문학의 길에 세워 주시었던것이다.

황건은 그때의 격동된 심정을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손잡아 이끄시어 창작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였으며 당의 작가로서의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시였다.》고.

영광스러운 당의 작가로 된 그의 심장속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불 타는 맹세로 끓어 번졌다.

단편소설 《목축기》를 써서 발표한 그는 광복된 조국에서 새 인간의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로동계급을 형상한 작품을 쓸데 대한 과업을 받고 즉시 가족까지 데리고 학송탄광으로 달려 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기쁨과 환희를 뜨겁게 체험하였다.

이 체험을 통하여 창작발표한 단편소설 《탄맥》은 주인공인 탄부이며 돌격반장인 일남이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작가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

《우리 오늘 서로의 가슴속에 읽을수 있는것과 같이 우리들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국토완정을 위하여 그 선진부대로서 새 비약에 나설 정열로 끓고 있소. 우리는 마치 우리들이 장벽식콘베아에 넘쳐 나게 석탄을 내어 가듯이 우리들의 그 끓는 정열을... 전 북조선탄광에... 전 북조선공장에, 그보다두, 전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까!》(단편소설 《탄맥》중에서)

작가의 불 타는 충성과 애국적열정은 광복후 짧은 기간에 10여편의 단편소설들을 낳게 하였으며 그것은 새 조국건설에 펼쳐 나신 우리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뜨거운 불씨를 심어 주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시기 그가 쓴 대표작들은 단편소설 《산곡》, 《목축기》, 《남아의 양》, 《준엄한 날》, 《탄맥》, 《해방기》 등이다.

조국해방전쟁은 황건의 애국적열정을 승고한 높이로 승화시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종군작가로서 남진하는 대오를 따라 락동강까지 달려 가던 그의 가슴속에 차넘친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이 땅에 기여 든 침략자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끓어 번졌으며 그로 하여 전투장마다에서 멸적의 총탄을 퍼부으며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고는 전투의 철참이나 행군도중에 수많은 전투기사들을 써서 인민군용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고무격려하였다.

이 나날에 그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인 《안해》, 《그가 돌아 온 길》, 《막심 156》, 《불 타는 섬》, 중편소설 《행복》을 썼다.

...

《그렇지만 래주야, 우리에게 그를 슬퍼 할 권리는 없어. 우리두 필요한 때에는 죽을 작정이 아니냐? 그 까닭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게 아니냐?》 《중편소설 《행복》 중에서)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을 간직하고 조국이 부르는 필요한 때이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갈 인민군용사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이 인생관!

이 인생관은 행복을 지키는 길에 바치는 조국의 참된 아들딸들이 지닌 숭고한 애국주의적헌신이었으며 이 세상 가장 긍지 높은 행복관이였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어느 날 전선신문에 실린 월미도 해안포병들이 발휘한 영웅적인 투쟁소식을 읽게 되었다.

작가는 즉시로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의 대대장과 문화부대대장을 찾아 가 영웅전사들의 투쟁이야기를 상세히 들었다.

그의 가슴은 세차게 높뛰었다.

이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다시 빼앗으려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끓어 오르는 적개심과 천백배의 원수격멸의 투지를 안고 조선의 아들딸답게 용감하게 싸운 민족의 장한 영웅들의 값 높은 위훈이 아닌가?

창작적흥분속에 사색을 거듭하던 끝에 붓을 든 작가는 영웅전사들의 심장의 박동을 자신의 박동과 맞추며 단편소설 《불 타는 섬》을 써나갔다.

월미도해안포병들이 간직한 무비의 희생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는 작가의 가슴속에 높뛰던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세계의 박동과 같은것이어서 소설은 훌륭하게 완성발표되었다.

...

《**김일성** 장군님은 지금 지도앞에서 월미도를 꼭 보구 계시겁니다... 원수들이 더러운 발을 들여놓은 조국땅 어디에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그중에도 미더운 당원들이 총칼을 들고 서있을것을 모든 정을 기울여 눈앞에 지키고 있을것입니다.》

... (단편소설 《불 타는 섬》 중에서)

소설의 주인공 리대훈중대장이 하는 이 말은 5만의 병력과 1000여척의 함선들, 1,000여대의 비행기 등 방대한 무력과 맞선 한개 중대의 인원과 단 4문의 포가 3일간이나 조국의 관문을 지켜낸 세계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싸움속에서 우리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 생겼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전화의 그 나날 자강도 깊은 산골 학원의 창가에서는 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단편소설 《불 타는 섬》에 대한 문학소조원들의 감상토론회가 있었다.

근엄하신 안광으로 타래치는 불구름속을 뚫고 멀리 남쪽하늘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조원들에게 뜻 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장군님께서 동무들이 당보에 실린 단편소설 《불 타는 섬》을 보고 월미도해안포병들의 영웅적 위훈에 대하여 토론하면서 중대 전원이 장렬히 희생된데 대하여 매우 섭섭해 하는가 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어린 무전수처녀 한명이라도 살렸으면 좋았을것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작품에 나오는 월미도의 해안포중대원들은 모두 희생되었지만 그들의 낮은 죽지 않았다고, 조국에 바친 그들의 생은 영원한것이라고, 그들의 고귀한 낮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살아 있다고,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핵이 있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월미도용사들은 비록 희생되었으나 그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으로 하여 그들의 삶은 영생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는 애국적인 작가의 높은 정신세계와 창작적재능에 의해서 작품이 더욱 감명 깊게 인식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황건은 목부였다. 그러나 그는 목부가 아니였다.

아버이수령님의 태양의 품에 안긴 어제날의 목부가 애국적인 투사로 당의 작가로 성장한것이였다.

2. 기하, 미술 그리고 문학

소설가의 기교는 무엇인가?

매 작가마다 자기의 독특한 창작적기교를 가지고 있듯이 황건도 개성적인 창작적기교를 가지고 있다.

황건은 어렸을적에 《기하박사》로 불리웠다고 한다.

한생을 소설작가로 일해 온 황건과 《기하박사》! 대단히 흥미 있는 일이다.

그의 작품들을 읽어 보느라면 기하학적인 회화적구도가 작품의 구성조직, 생활과 자연묘사를 조화롭게 맞물려 놓음으로써 인간생활세계를 립체적으로 형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학과 관계 없는듯이 보이는 기하가 문학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이것을 그가 쓴 작품에서 보자.

《...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살아 가는 고됨과 각가지 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 버린듯 그것을 터놓고 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들에게는 인종이 숙명처럼 생각되었는지도 모

른다. 그러기에 사람들속에서는 노상 뭉치거리, 웃음소리들이 나고 처녀총각들은 사랑때문에 열싸고 돌아 간다. 한쪽에서는 술을 먹는가 하면 남 몰래 밀려 다니며 투전을 논다. 상여를 내어 보낸 이튿날 혼인집에 가 술에 취하여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러나 그 뭉치거리, 웃음속에도 지하를 끊임 없이 흐르는 샘과도 같이 살아 가는 고됨과 슬픔, 압제자, 착취자들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집집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조석으로 소리없이 흘러내리고 있는것만이 틀림 없었다. 거기에서 이곳 사람들에게는 고국을 떠난 설움이 컸다. 그런데 그 모든 설움과 증오의 감정은 가슴에 맺혀 떨어질줄 모르고 사랑의 감정과 곧장 통한다. 내나라의 겨레들, 자식들과 후손들에 대한 생각이 강한 그만큼 원수들이 더 미운것이 아니겠는가? 원수를 미워 할줄 모르는 인간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줄도 모르는 인간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강한것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강한것과 통한다.

어떻든 사람들의 가슴속을 숨어 흐르던 그러한 설움과 증오가 고요하던 끝짜기, 대낮의 신작로 위에 이 세상을 저주하는 녀자들의 통곡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왔다.》(장편소설 《아들딸》중에서)

이 묘사문은 기하의 창문으로 내다본 문학의 세계가 이렇듯 생활세계를 전폭적으로 작은 글로 막에 담을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 준다.

황건은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기하박사》의 머리는 어린 그에게 그림도 곧잘 그려 내게 하였던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미술적소질은 생의 말년까지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의 한생의 갈피마다에는 이런 일화들도 생겨났다.

광복후 그에게는 자식들이 생겨 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는 자라나는 귀여운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재미나는 놀이감을 만들어 주거나 사줄 대신에 자식들을 무릎에 앉혀 놓고 크레용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자주 그려 주었다.

아버지로서 그가 그려 주는 산수경치며 집이며 사람의 초상이며 이 모든것을 아이들은 좋아 하였다. 크레용의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흰 종이위에 그려지는 아름다운 화폭들은 그 어떤 놀이감보다도 더 좋았으며 그 어떤 놀이보다도 더 재미났던것이다.

그림을 어찌도 생동하게 그렸던지 그 분야에 껌껌이었던 그의 부인까지도 혀를 찼다고 한다. 지금까지 소설가의 뒤바라지를 해오며 생활에서 남편에 대하여 감탄한적이 별로 없던 그였지만 남편이 그린 《미술작품》에 대하여서는 연해연방 감탄하였다고 한다. 그가 그리는 그림들은 전문가들 못지 않았으며 하나같이 선명하고 선이 굵

고 아름다웠다고 한다.

황건이 소설가로 되지 않고 미술을 전업으로 하였다면 이름 있는 미술가로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당시 함께 생활해 온 사람들의 이 말만 들어 보아도 그가 지닌 미술적소양이 얼마나 풍부하였는가를 짐작할것이다.

미술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불 탔으면 6남매 자식들중 한자식을 꼭 미술가로 키우리라 결심한 그는 자식들의 지적능력을 관찰하던중 둘째 딸이 적임자로 보여 미술공부를 시켰으며 중학교에 올라 갔을 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 미술소조에 보냈고 미술대학을 거쳐 전문미술가로 키웠다.

황건이 생의 말년까지 우정을 두터이 하고 있던, 인민예술가 정종여선생과의 친분관계도 결국은 미술에 대한 조예로 하여 맺어 진 친교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미술품상점에서 병풍처럼 커다란 산수화그림을 팔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샀다. 그런데 들고 가자고 보니 그림판이 너무도 커서 한쪽을 접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 이때 미술품상점에 들어 선 후리후리한 키에 중절모를 쓴 황건이 이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아니 그 그림을 왜 못 쓰게 만드오?》

황건으로서는 의아하여 물었던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황건은 대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꺼내서 값을 치르고 자기가 그림을 샀다.

사실 그때 그 사람에게에는 그렇게 큰 그림까지는 요구되지 않았다. 황건자신도 그날 그림을 사러 상점에 들어 선것은 아니였었다.

하지만 미술에 대한 각별한 취미가 황건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였던것이다.

그날 그는 큰 그림판을 메고 집으로 와서 방안에 걸어 놓았다. 개선동에 있는 그의 집에는 아직도 그 그림이 걸려 있다.

소설가 황건의 작품에 인간생활을 한쪽의 그림마냥 생동하게 형상한 기품진 묘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도 그의 풍부한 미술적소질에 바탕을 둔것이다.

...

실날 같던 초생달도 지고 사위는 어둑시그래하였다. 단지 하늘에 총총한 별빛만이 주위에 선 나무며 둘러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분간할수 있게 하였다. 그들은 생각들이 복잡한대로 침묵을 지키기 쉬웠다.

먼 아래마을쪽에서는 물방아수채에 찻던 물이 쏟아 지는 소리가 이따금 《썩-》하고 들려 왔다. 그리고 등뒤 수림속 어디선가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꿈속에서처럼 걸잡을수 없게 들려 왔다.

물방아수채에서 쏟아 지는 물소리는 한밤이 되면 더 높아 지면서 끝짜기에 가득 메아리치는데 근심이 많은 나뭇은 어머니처럼 그 서글픈 음조

로 잡자는 골짜기와 사람들의 넋을 밤 새도록 어루만져 주고 있는것 같았다.··· (장편소설 《아들딸》)

기하와 미술이 문학에 구현된 소설가의 독특한 묘사수법은 섬세성과 선명성, 립체성과 조형성으로 하여 인간생활반영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있다.

주체42(1953)년 4월부터 황건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설분과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 안고 그는 불 타는 열정을 다 바쳐 일했다.

낮에는 분과사업을 하고 밤이면 소설창작!

그것은 힘에 부친 일이었다. 그렇지만 보람찼다.

...

《오늘은 모든 조선사람에게 무한히 헌신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헌신성은 내 나라의 운명을 근심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끓고 있습니다. 이 헌신성들을 그 최후의것까지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오직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장편소설 《개마고원》 중에서)

소설의 주인공 김정식의 이 불 타는 호소는 작가의 심장속에 세차게 타오르던 충성과 애국의 불길이었다.

《황건은 <소>처럼 일했다.》

당시 함께 일하던 작가들이 한 이 말은 아버지수령님께 한몫 다 바쳐 충성 다해 가는 황건의 불 같은 헌신을 두고 한 말이었다.

소- 풍만한 가을을 위해 겨우내 얼어 붙었던 대지를 힘껏 갈아 엮는 소, 황건은 《소》처럼 일했다.

이 땅우에 부식된 무지와 몽매를 털어 버리고 사대의 허무를 씻어 버리기 위해 그리도 애써 일해 온 그였기에 애국적인 작가의 발자취는 력력히 이 땅우에 찍혀져 있는것이다.

1960년대 중엽까지 우리 소설문단에는 장편소설 작가들이 별반 없었다.

리기영, 한설야 등 몇명의 작가들을 내놓고는 누구도 감히 장편소설창작에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러나 황건은 대담하게 장편소설창작에 진입하였다. 풍부한 생활체험으로 방대한 원고매수를 써야 하는 장편소설창작은 높은 서정세계와 강의한 의지가 안받침되어야 하므로 험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장편소설창작에 진입함으로써 다른 작가들에게도 큰 충동을 안겨 주었다.

그는 직심스레 원고작업에 달라붙었다. 그 나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곤 하였다.

초저녁부터 쓰기 시작한 그에게 저녁식사를 하

라고 몇번이나 일렀는데 좀 더 쓰고 먹겠다고 하면서 그냥 써나갔는데 원고 끝내고 책상에서 물러난 시간은 부인이 아침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나온 새벽시간이었다.

이 땅우에서 계급적원썹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상을 보여 주고 있는 장편소설 《개마고원》을 탈고해 낸 그는 곧 아버지수령님께서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혁명전통주체의 장편소설창작에 달라붙었다. 그때 당시 작가는 영광롭게도 항일무장투쟁전적지담당사단의 성원으로 3개월간 중국동북지방을 답사하게 되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 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업적이 간직되어 있고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이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는 중국동북지방에 대한 답사는 작가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우리 당의 만년재보이며 초석으로 되고 있는 고귀한 혁명전통에 대한 다함 없는 칭송과 항일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그토록 뜨겁게 감수하였기에 직접 겪어 보지는 못하였지만 1930년대 전반기 당시 공산주의혁명투사들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혁명의 로정을 방대한 서사시적화폭속에 깊이 있게 그려 낼수 있었던것이다.

그가 쓴 장편소설 《아들딸》, 《자라는 대오》는 모두 이 주제에 바쳐진 작품으로서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 청소년들과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넋을 심어 주는데 참답게 이바지하였다.

주체47(1958)년부터 4년간 량강도 작가동맹지부장으로 사업한 그 나날에도 그는 언제 한번 창작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후 황건은 문학대학에서 2년간 교원을 할 때에나 다시 소설분과위원장의 사업을 맡아 할 때에나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바쳐 가며 우수한 소설작품들을 써냈다.

그는 자기의 뚜렷한 창작적개성으로 우리 나라 소설문학발전에 이바지한 이름 있는 소설작가였다.

황건의 독특한 작가적개성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심리묘사를 깊이 있고 진지하게 그려 내고 있는것이다.

...

불현듯 성학에게는 울분이 끓어 올랐다. 일제가 강점한 이후 오늘까지 굶고 헐벗고 매와 굴욕에 견디다 못하여 남부녀대 어린것들의 손을 잡고 야밤에 이 강을 건느고 일제와 맞서 싸우다 뜻을 이루지 못한채 이 강을 건느고 다시 칼을 품고 이 강을 되건너 국내로 들어간 사람들의 수를 어찌 헤아릴수 있으랴. 이 나루터와 이 강우에 부어진 그들의 한숨과 눈물을 헤아릴수는 없

는 것이며 원쑤들을 겨는 그들의 원한도 조국에 바치는 기약도 똑같이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너희들이 것처럼 부릅뜨고 껌껌거린다 한들 오늘 네놈들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알수 없는것과 같이 그 모든 조선사람의 머리와 가슴속을 오고 가는 생각들을 다 알아 내지 못한다. 너희들이 그럴수록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에 대한 지울길 없는 증오와 원한과 복수의 심정만 깊어 갈뿐이다. 그것을 너희놈들은 모르고 있을것이다... (장편소설 《아들딸》중에서)

이 심리묘사문은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한 성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 나선 투사들의 심장에 차 넘치고 있던 일제에 대한 끓어 오르는 적개심을 그대로 진실하게 그려 내고 있다.

이 묘사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심리묘사에는 파장이나 비유적인 형상수단을 쓰지 않고 인간의 내심에서 일어 나는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듯한 감을 많이 안겨 주고 있다.

이것은 소설가 황건의 형상수법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묘사방법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 묘사방법은 한두작품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그가 발표한 모든 작품들에서 흔히 보게 되는것이라는데 있다. 이 묘사수법은 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성격창조의 직접적수단으로 되고 있으며 구성조직을 치밀하고 강한 극성을 띠게 하는 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옥녀가 그렇게 서 있는 사이 그의 맞은편 뒤줄에 앉았던 용필이가 자리에서 일어 섰다. 여기저기서 반원들의 얼굴이 슬깃슬깃 용필의 쪽에 겨누어 졌다. 몇몇의 시선은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일어 서는가 하는 주의 깊은것이였다.

그들은 이내 시선을 돌렸으나 가운데줄에 기사장을 정면으로 대하고 앉은 덕범이와 왼쪽 뒤구석에 희숙이와 나란히 앉은 경훈의 말뚝한 눈은 용필의 얼굴을 지키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옥녀의 아래편에 앉은 명식의 눈은 기사장이나 용필의 쪽과는 반대로 출입문쪽에 겨누었는데 짙은 눈썹아래 검은 눈이 거칠고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까 또 기사장에게서 모욕을 당한 희숙이도 점차 성난 얼굴로 출입문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중편소설 《새벽길》중에서)

이처럼 황건에게 있어서 깊이 있고 섬세한 등장인물들의 내면심리묘사는 파장이나 꾸밈이 아니라 실지 현실에서 벌어 지고 있는 생활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펼쳐 보임으로써 독자대중에게 생활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고 있다.

소설가 황건의 이러한 개성적기교는 그의 일상생활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는 생활에서 진실하고 고지식하였다. 그러나 불의앞에서는 타협을 모르고 원칙적이었다.

전후 우리 나라 작가들의 생활에서는 낡은 사

회에서 물려 받은 습벽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 조직규율은 물론 창작사업에서도 무질서와 자유주의가 농후했다. 그렇지만 황건만은 유표하게 생활에서 절도가 있고 준수하게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동시대 작가들은 누구나가 말하고 있다. 특히 분과위원장으로서는 그는 자신의 실천적모범과 함께 분과내 작가들의 무질서와 자유주의에 대하여 호되게 비판하곤 하였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6남매자식의 아버지로서 집에서도 생활규칙을 엄격히 하였다.

오늘 황건의 6남매자식들모두가 **김일성** 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그리고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만이는 영예의 **《김일성상》** 계관인으로, 공훈과학자, 박사로, 둘째는 중요단위의 책임일군으로, 박사로 그리고 3남매는 우리 당의 중견작가로서, 기자로. 둘째 딸은 미술가로 끝끝까지 성장한 데는 자식들에 대한 아버지의 원칙적이고도 엄한 요구성에 의하여 거두어 진 성과이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 꽃을 가꿔 온 원예사의 사심 없는 노력과 정성의 결과이듯이 이처럼 한두자식도 아니고 6남매모두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 낸것은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황건의 노력의 결과인것이다.

그는 부인과 살아 오는 과정에 그에게 언제 한번 반말질을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레절 있는 말을 썼다고 한다.

그에게는 윤세중, 리근영, 리상현 등 문학동네의 친구들이 많았다. 서로 논쟁을 자주 하곤 하였는데 대개는 소설창작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허물이 없고 유쾌한 문학세계와 인간생활의 가장 가까운 막역지우들이었던것이다. 그들의 우정은 사심 없고 진실한 뜨거웠던것이라고 한다.

현역작가로 사업하던 그날에도 그는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정열로 장편소설을 써나갔다.

작가자신의 생의 총화작으로 되는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를 거의 마감단계에서 쓰던중 작가는 그만 뇌혈전증으로 쓰러졌다.

불보다도 뜨거운 열정의 분출이 그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 넘은것이였다. 병마의 아픔보다도 더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누구보다 먼저 헤아려 주신분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작가가 쓰러졌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향을 비롯한 갖가지 귀한 약재들을 보내주시였던것이다.

사랑의 불사약은 작가를 다시 소생시켰다.

황건은 뜨거운 격정으로 가슴 들먹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조국이 있었기에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불우한 인생을 한탄하던 지식인들

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났다는 사상을 보여 주는 장편소설 《새로운 항로》를 완성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것을 다 바쳐 경애하는 장군님의 참다운 문필전사로 살 충성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다.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편지를 보아 주시었다는 소식에 접한 황건은 친부모의 뜨거운 그 사랑에 목 메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그리고는 짧은 기간에 중편소설 《딸》을 써서 발표하였다. 단편도 아닌 중편소설을 그렇듯 짧은 기간에 써낸 작가를 보며 함께 일하던 작가들이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에 밝혀 진속도전의 원칙으로 썼을뿐이다.》

황건은 생의 말년에 장편소설 《잠 못 드는 기슭》을 구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건하신 유격구를 열렬히 동경하고 장군님을 희망의 별로 우러르던 그때 인민들의 생활감정을 청춘남녀의 생활을 통하여 보여 주려고 한다. 유격구에서 파견된 정치공작원의 영향하에 점차 계급의식이 싹 트고 자라 장군님의 품으로 찾아 가는 주인공들의 앞길에는 보람찬 삶이 있고 그속에서 청춘의 사랑이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그러나 장편소설 《잠 못 드는 기슭》은 미완성 유고작으로 되었다. 것처럼 불같이 뛰던 참된 당의 작가의 심장은 그만 고동을 멈추었던것이다.

그는 인생말년에 수기에 이렇게 썼다.

《그 기쁨을 위하여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그 기쁨을 위하여 일생을 흥분속에 고스란히 바쳐 오기도 하였지만 아직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서는 이 밤도 마음 편히 잠들수 없다》고.

뜨거운 심장에서 분출된 황건의 충성과 애국의 그 넓은 오늘 새 세대 우리 작가들의 온몸에 차 넘치고 있다!

3. 신인과 황건

신인작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신임에 의하여 수십여년간 조선작가동맹 소설분과위원장의 사업을 하여 온 황건은 주체사실주의문학예술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신인작가들을 수많이 키워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나날에는 신인들을 위해 바친 황건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일화들이 많이 생겼다.

그가 소설분과위원장의 사업을 맡아 하여 온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하면서도 영광찬란하였던 력사적시기였다.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기초건설, 사회주의 전면적완성을 위한 파감한 투쟁, 이 모든 아름다운 혁명투쟁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이끌어 오

신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작가, 예술인들앞에는 이처럼 방대한 혁명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회주의건설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할 절박한 과업들이 제기되었다.

이 나날 황건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을 창작가들에게 튼튼히 무장시키는 한편 주체문학예술을 새롭게 건설하는 길에서 소설작가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립장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새 문학세계의 창조자가 신인이다.》 주체사상이 구현된 새로운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할 신인작가에 대한 황건의 립장은 이것이었다.

그러나 낮은 사고방식에 물젖어 있던 당시 일부 작가들은 아직 거리가 멀었다.

전후에 우리 문단에 새롭게 들어 온 작가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특기를 뽐낸다고 하면서 남의것을 모방하는 사대주의사상에서 헤여 못나고 있었다. 지어 어떤 작가는 생활방식묘사까지도 유럽식으로 그려 놓고는 그 무슨 《재간》을 인정해 달라고 하였다. 황건은 이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 당시 작가동맹의 소설분과실에서는 황건의 열변이 자주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 소설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완강한 투쟁이었다고 소설가 리종렬선생은 그때를 돌이켜 보며 말하였다. 그의 비판과 투쟁은 원칙적이였다. 그것은 말로써 구호를 웨치거나 선동사업을 하지 않았던것이다. 자기자신의 실천적모범을 동반한 투쟁이었던것이다. 그 당시 쓴 중편소설 《새벽길》, 장편소설들인 《개마고원》, 《아들딸》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 쓴 단편소설들을 읽어 보느라 면 조선산간지대의 참신한 향토냄새가 물씬물씬 안겨 오는것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성과 주체성을 살리고 빛 내이기 위해 얼마나 애 썼는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고유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과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이 차넘치는 유구한 우리 민족성을 진실하게 옮겨 놓기 위한 소설창작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쓰고 또 썼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그는 신인들에게 늘 강조하곤 하였다.

《우리가 하는 창작사업은 단지 일개인의 <재간>을 뽐내는 그런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조국인민들이 받아 안을 크나큰 정신적량식을 창조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그리고 주체의 사회주의 내 나라 인민들의 깊어 가는 사상정신세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정신의 기둥을 쌓는 사업이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작가라는 값 높은 칭호가 간직되어 있다.》

깊이 사색하고 참답게 실천하기를 바라며 황건은 신인들과의 사업을 이렇게 해나갔다.

그는 작품창작에 모태기는 그 긴장한 속에서도 짬을 내어 출판물들에 소설창작강좌, 지상연단, 평론, 창작경험 등 신인을 위한 경험글들을 써내곤 하였다. 그는 신인을 찾는 데서도 신중하게 대했다.

금싸래기 고르듯! 그렇지만 일단 새싹을 찾지만 하면 주저하지 않고 소설가로 키웠다. 조국해방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전선동부에서 군사복무를 하는 상등병(리종렬)을 소설분과에 불러서 곧 작가로 되게 한 일이며 병으로 사회보장을 받고 있던 사람이 쓴 작품을 심의하고서는 너무도 기뻐 즉시로 중구역창작실에 소환하도록 한 이야기, 소설분과에 올라 온 작품들을 빠짐없이 읽어보고 재능이 보이는 작품을 써낸 신인들을 우산장에 가서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자면 수없이 많다.

그는 작가동맹에 배치되는 신인작가들에 대하여도 등한시하지 않았다.

언제인가 문학대학을 졸업하고 분과에 갖 배치받은 젊은 부원에게 분과내에서 부원이 해야 할 사업규칙에 대하여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설공부를 했지요?》라고 묻고는 무슨 소설들을 읽었는가? 소설을 쓴 것이 있는가 하는 것부터 물어서 그를 의아하게 하였다. 그후에도 분과사업에 대하여 토론할 일이 있어 늘 우산장창작실에 나가서 작품원고와 씨름하고 있는 황건을 찾아 가면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묻곤 하였다. 어떤 날에는 그 부원이 회의가 많고 동원이 많아서 요즘은 소설을 쓸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푸념하였는데 황건은 그의 말을 변명으로 들으며 좋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소설을 써야 해. 시간이란 건 쟁취해야지 저절로 찾아들지 않소.》 하면서 부원더러 인차 평양으로 돌아 가지 말고 우산장창작실에서 며칠 묵으면서 작품을 쓰라고 하였다.

《소설을 써야 합니다. 작가동맹에서는 작품을 써야 합니다.》 늘쌍 아래사람들에게 강조하곤 하던 이 말은 그에게 있어서 체질화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황건은 사람들을 대할 때 선이 굵직굵직했으며 부드럽거나 섬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작가로서 또 분과위원장으로서의 황건은 좋은 글을 쓴 사람에 대하여서는 각별히 친근하게 대하였다. 어찌 보면 글을 잘 쓰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듯도 하였다.

새싹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얼마나 높았던가 하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 적지 않은 소설가들이 황건선생에 의하여 제발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집에서 병으로 운신을 잘하지 못하고 있던 어느날 그가 방안으로 들어 서는 셋째 딸에게 갑자기 옷을 입혀 달라고 하였다. 눈이 등그래진 딸이 웬일인가 의아해서 수척해진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는 딸에게 그는 오늘 누구의 결혼식날이어서 가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딸은 놀랐다. 결혼한다는 사람은 신인작가였는데 그의 집이 선교에 있다는 것을 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몸상태로 어떻게? 이때 방안에 들어선 부인도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만류하였다.

그러나 우직스럽게 일어서는 남편을 모느니 말리지 못하였다.

《지금 젊은이들중에 그 사람만큼 글 쓸 사람이 없소.》

그날 그는 불편한 몸으로 사랑하는 제자, 촉망되는 신인작가의 결혼식에 참가하여 한쌍의 원앙새부부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신랑은 물론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던 작가들과 친척들, 마을사람들은 모두가 놀랐다고 한다.

신인을 아끼고 위하는 황건의 불 같은 열정에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다.

어느 날인가에는 한 신인이 쓴 작품이 한 출판물에 발표된 것을 읽고 잘되었다고 평가하는 바람에 병문안을 왔던 그 신인작가가 전문작가들은 물론 일반독자들도 잘 보지 않는 출판물에 실린 자기의 작품을 읽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 수 없게 한 일도 있었다.

내가 개선동에 있는 황건선생의 집에 찾아 간 적이 있는데 80고령의 정정한 부인과 그리고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막내아들(중앙방송위원회 기자)과 마침 어머니에게 찾아온 시집 간 셋째 딸(만수대에술단 작가)이 나를 반기었다.

셋째 딸인 시인 황성하는 초면이었지만 지면에서 열정이 차넘치는 그의 작품들을 많이 보아 와서 인차 구면처럼 가까와 졌다. 그때 방안에 군복 입은 사람도 있었는데 황성하는 자기의 남편이라고 나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인민군부대의 작가인데 가사 《동지》를 썼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특히 인민군군인들속에서 사랑 받으며 널리 불리우는 가사 《동지》를 쓴 작가라고 말할 때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황건은 온 나라의 신인들을 키우기 위해 애써왔을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주체문학예술의 믿음직한 후비들을 키워 냈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 졌다.

애국과 열정으로 한생을 우리 당의 작가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 다한 황건의 참모습은 수풀처럼 솟아 나는 우리 새 세대 신인작가들의 불 타는 심장속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황건은 생의 전 기간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행복한 작가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주체42(1953)년 가을, 주체43(1954)년 봄 그리고 주체48(1959)년 9월, 주체56(1967)년 11월 여러 창작가, 예술인들과 함께 황건을 접견해 주시고 우리 나라 소설문학이 나아갈 강령적지침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였으며 주체61(1972)년 9월 6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황건을 접견하여 주시고 창작가들이 창작생활에서 지켜야 할 귀중한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가에게 아버지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명함시계를 선물로 안겨 주시였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 주시고 사랑의 선물들을 여러번 안겨 주시였다. 그의 생일 70돛에 공화국국민의 최고 표창인 영예의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은정어린 생일상도 안겨 주시였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따사로운 그 사랑에 목 메어 황건은 태양의 품에 안겨 사는 크

나큰 행복과 긍지로 하여 솟구치는 격정속에 불타는 충성의 맹세를 다지곤 하였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필봉을 억세게 틀어 잡고 놓지 않은 황건은 주체80(1991)년 1월 19일에 값 높은 당의 작가로서의 한생을 마쳤다.

황건이 생을 마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주체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기관장으로 부고를 내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 주시였다.

황건은 생의 전 기간 3편의 단편소설집, 3편의 중편소설, 5편의 장편소설, 30여편의 수필 그리고 신인들을 위한 경험글들을 많이 남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창작활동을 하는 우리 작가들처럼 긍지 높고 행복한 문필가들은 이 세상에 없다.

과연 어떤 사람이 참다운 작가로 될수 있는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의 열정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심장을 불 태워 온 황건의 작가적생애가 바로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우리의 봄명절

김정철

징 치고 새납을 불며
열두발상모에 휘휘 감아
날 밝기도전에 끌어 냈구나
강변모래불의 이 하루를

후여 올라라 방울을 차라
구경군들 어깨성을 쌓은 그네터
꽃잎 같은 다홍치마에 싸여
까마득히 하늘가에 뗏다 이 하루는

봄명절이라 그저는 못 보내
수천년을 내 겨레 즐겨 온 봄명절
인민의 태양이 눈 부신 우리 세상
더더욱 그저는 못 보내

모내기경쟁의 마지막판막이로
새파란 잔디우에 웃가락이 뿌려 진다
《원군》, 《내 마을꾸리기》 승벽이
또다시 씨름판에 우뚝 마주 섰다

가마솥엔 살찐 메기탕
어려운 날을 일심으로 뭉쳐 이겨 온 정이
뜨거운 잔마다 철철 넘치여
정으로 빨갳게 익어 가는 봄명절

정월이면 대보름 둥근 달을 즐기고
가을이면 추석날 조상묘도 찾으며
봄은기아래 더 활짝 꽃 피는 우리 민속이여

오 이 땅과 아름다운 내것을 지켜
백년전쟁 천년봉쇄도
웃으며 헤쳐 갈

위대한 민족의
든든한 배심우에
우리의 오늘의
봄명절이 있다

푸른 전나무

김철인

1

희끄무레한 빛이 어두운 대기속으로 슬며시 퍼져 들어 온다. 아직은 그것이 광명인지 어둠인지 분간키 어려운 세계- 미명이라 부르는 그런 시각에 숲속에서는 피꼬리의 울음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몽롱히 울리고 있다. 새벽의 희벗한 빛발속에 우중충한 형체를 우렷이 드러내던 숲이 아침의 하얀 빛을 거의 안았을무렵에 피꼬리소리는 홀연히 사라졌다. 이제는 분명한 아침이다.

밤새도록 숲을 짓눌러 왔던 어둡고 끈끈한 정적이 숲의 구석마다 도사리고 있던 음영의 어두운 자취들을 죄다 걷어 가지고 물러 갔다. 사위는 신선하고 상쾌한 초여름아침의 빛나는 고요로 확 차버렸다. 흰 안개가 서린 풀섶들에서 방아깨비나 메뚜기들이 가끔 부시럭거리며 새로운 이 아침에 대한 저들의 견해를 발표한다. 허나 그런 애매하고 소심한 소리들로써는 이 아침의 고요를 설명해 낼수가 없다. 숲의 한구석에 나타난 밀화부리 한마리가 나무들사이를 서투르게 날아 다니면서 잠에 취한 목소리로 수선을 떨어 낸다. 하지만 다소 청 높고 기묘하게 느껴 지는 그 소리도 이런 장엄한 환희를 눈앞에 두고 숙연한 서정에 잠긴 숲의 정숙을 깨뜨릴수 없다. 철없이 떠들던 새는 고요의 장중한 힘에 눌려 불안간 울음을 멈추고 어리둥절하여 머리를 기웃거리고 깃을 가다듬으며 먼구스레 풍지를 추스른다.

이 고요의 신비를 접하지 않거나 그것의 은근한 힘이 채 가닿지 못한 곳이란 없다. 그것은 생명의 청초한 빛갈을 잎새마다 가득 엮고 넘치는 생의 정열을 주체하기 어려워 기동과 아지들의 껍질을 툭툭 터뜨리는 수다한 키나무들의 싱그러운 그늘아래, 도처에 뻗뻗하니 우거져 자라는 떨기나무들의 덤불속에, 옛말속처럼 뒤엉키고 타래지며 뻗어간 덩굴풀줄기들과 순들에, 겨금내기로 무성히 돋은 갖가지 풀들의 무수한 이파리들마다에 속속들이 깃들여 온 숲을 광활한 힘으로 지배한다. 이런 고요가 언제 이렇게 시작되었고 어느때 어떤 식으로 끝나는가를 명확히 설명하기란 어렵다. 이른 새벽 숲너머 먼 서광이 비친 동쪽 하늘가에 떠서 태양을 기다려 최후의 찬연한 빛을 명멸하던 금성- 우리 선조들이 계명성이라 불러 온 그 새벽이 충성스런 순직자마냥 스러지는 바로 그 시각에 이 꿈 같은 고요는 이미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태양의 부드러운 금빛광선이 숲에 흐르고 아침의 명랑한 빛을 즐기며 온갖 새들

이 떠들고 노래할때 고요는 언제였더냐싶이 사위는 여름날의 부산스럽고 활기 있는 소란으로 가득하다....

숲에는 여러갈래의 오솔길들이 뻗어 갔다. 길을 따라 가며 길옆에 드문드문 나무 긴결상들이 보인다. 아침의 정적과 사색, 한낮의 이야기들, 저녁녘의 즐거운 속삭임과 함밤의 환희론 비밀들... 허다하고 끝 없는 명상들의 거처지인 그 긴 의자들은 단풍나무결에도 장미덩굴아래도 소나무들 사이에도 있다. 어떤 결상뒤에서 자란 함수초는 부채살 같은 잎사귀를 활짝 퍼들고 땅을 향해 가웃이 옷초리를 기울였는데 그 모양은 말 없는 기쁨에 도취되어 생각에 잠긴 녀인의 자태를 연상시킨다.

이 숲속에 뻗어 간 여러갈래의 길들중 가장 넓고 긴 산책길의 구간마감에 이르면 혼성림이 끝나고 크지 않은 자연못이 나타난다. 못가풍경은 비교적 단조롭다. 하늘이 쪽빛이 그대로 비친 수면과 못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싼 나무숲의 운치는 수려하다거나 기발한 맛은 비록 없으나 단순하고 소박한 조화속에 어떤 고상하고 순결한 느낌이 안겨 온다. 물가에는 창포, 방동사니, 갈, 수련따위의 다년생수초들이 촘촘히 자라고 그것들의 형체가 거꾸로 비껴 있는 둥그런 늪은 마치 땅위에 눕혀 놓은 거대한 거울 같다. 수면위에 비친 흰 구름이 파란 하늘을 지나 천천히 떠간다. 어느 순간에 못의 깊숙한 밑바닥에서 기포무리가 솟구쳐 올라 와 꿈같이 잔잔하던 수면위에 물거품들이 터졌다. 거기서 일어 난 작은 원이 점차 큰 파문으로 확대되며 못은 꿈에서 깨여 난듯 가볍게 일렁인다....

못가주변에 변침대를 해 심은 두그루의 전나무가 나란히 서 있다. 간밤에 녹녹한 서남풍이 불고 가랑비가 두어시간 내린 까닭으로 전나무들은 함초롬히 젖어 있다. 뻗꼭이 일어 선 푸른 바늘잎새들이 수백수천의 물방울들을 구슬처럼 매달고 아침해살을 받아 눈 부시게 빛을 뿌린다. 말쑥하고도 기품이 있는 전나무의 모습은 새 군복을 차려 입고 선 어린 병사들 같다.

전나무들은 아마도 이 호젓한 못가와 주변의 숲에 깃든 태고적부터의 수많은 이야기를 알지 못할것이다. 그것들은 생을 시작한지 이제 불과 몇년 남짓한 애송이나무들이다. 그것들은 다만 자기들을 심어 준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침묵을 지키며 인간이 쉽게는 알아 들을수 없는 저들의 언어로써 이

야기한다. 무상의 자연속에서 해와 달, 별들의 영원한 운행을 바라보며 바람과 눈비, 흑한과 폭열 등 자연의 다난한 시련에 몸을 던지고 기쁨, 슬픔, 고뇌, 환희, 희망, 우수의 사연 많은 색조로 그 인상을 엮바꾸어 갈 이 어린 전나무들은 이제 먼 세월을 통하여 어떤 운명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화폭들을 창조할것이다.

이는 반세기전 공화국북반부 회성시 해방공원의 풍경일단이다.

××교도소 특별사동, 그곳 관리들이 일명 《모스크바》라고 부르는 옥사의 제37호감방의 무기수(비전향장기수)는 이 공원정경에 대한 풍경화를 필생의 작품으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도대체 숲의 고요라거나 나무의 언어라는것들이 어떤 추상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직관적제시와 해명을 요구하는 사실주의미술의 원칙에 부합되며 또 그의 대상이 될수 있는가부터가 의문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수인화가는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는듯 하였다. 그는 앞서 말한 초여름의 숲에서 싱싱하고 청초한 색조의 느낌들은 물론 그 정경속에 울리는 다양한 음향들까지도 느낄수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수십년간 구상해 왔던것이다.

《회화는 들리지 않는 선률이며 음악은 보이지 않는 그림이다.》라는 고전적인 견해도 있다. 하다면 수인화가는 감옥안에서 어떤 예술론적인 탐구나 사색을 거듭해 움으로써 그런 시도와 주장을 펼치게 된것인가.

그러나 그는 자신을 조금도 예술가라 생각해본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5월까지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했던 조선인민군의 하사관, 지리산과 월악산에서 빨찌산활동을 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된 이후 38년간을 인민군병사의 신념을 지켜 전향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전투원, 살아 있는 빨찌산이었다. 그는 평생에 한번도 미술교육을 정구적으로 혹은 전문적으로 받아본일이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전에 그는 회성시의 기계제작소에서 단야공으로 일을 했다. 그의 희망은 미술가가 되는것, 장차 미술대학으로 가서 공간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강의를 받아 보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전쟁으로 인하여 미술세로의 길을 중단하고 전선에 나왔다. ...

지금 70대를 맞이한 무기수는 반세기전의 일들을 유정한 풀빛 추억속에 돌아 보고 있다.

2

그는 그때 연성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처녀를 사랑하였다. 광복후부터 조국해방전쟁전까지 회성에서 산 사람들은 당시 그곳에서 유명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시장위원장이었던 리중업

을 첫 순서로 들고 다음엔 필경 시민청위원이였으며 해방공원의 관리공이였던 표령의 처녀 연성순을 꼽을것이다.

우선 그 처녀가 회성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한, 바로 그 녀자의 존재가 유명해 진 동기부터가 남다르다. 처녀는 광복직후 채 쫓겨 가지 못한 왜놈들이 시양묘장을 불 태워 버리려고 도적고양이들처럼 달려 들었을 때 늙은 아버지와 함께 그놈들과 필사적으로 싸워 새 조국의 재부를 지켜 낸 용감한 녀성으로서 이름이 났다.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소식에 접한 시자치위원의 리중업을 비롯한 시대표 몇몇이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저 평양으로 올라 갈 때 쌍태머리 연성순은 기어이 따라 나섰다. 이 처녀는 일행과 같이 200리길도 넘는 령을 넘어서 평양으로 갔다. 처녀가 평양에서 돌아왔을 땐 기다랗고 탐스럽던 쌍태머리는 없어 지고 하얀 목이 상큼하게 드러난 단발의 모습이었다. 리중업일행을 따라 갔던 그 녀자가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왔는가 하는 사실여부는 딱히 알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여하튼 기가 찬 처녀라고 혀들을 찼다. 성순은 광복된 이듬해 광복기념 시옹변경연에서 1등을 하여 또한 유명해졌다. 술한 시간을 들여 가며 옹변연습을 했던 야심만만한 멋쟁이들이 열아홉살 처녀한테 꼭지를 때우고 혀를 내돌렸다. 도시의 상공에 연성순의 이름이 비둘기처럼 날아 다녔다.

그 녀자는 노래도 춤도 일색이였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빠꾸기 뼈꼭뼈꼭
...

처녀는 기봉의 백학처럼 수려하게, 봄산의 뼈꼭새처럼 다정하고 흥겹게 춤과 노래를 펼칠줄 알았고 사람들은 그의 그러한 모습에서 더 없는 생활의 열정과 랑만 그리고 용기를 느끼며 감동하였다.

물론 많은 청년들이 그 처녀에게 감동되는 주되는 리유가 흔치 많은 미모에 있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성순은 광복이 이 도시에 안겨준 하나의 싱싱하고 환희롭고 아름다운 꽃이였다. 술한 총각들이 편지를 쓰고 처녀의 주위에 벌떼처럼 뭉쳐 돌아 갔다. 그 녀자의 아버지인 양묘장관리원령감은 마치 부마감을 고르는 부왕처럼 대단한 위세를 부리며 지냈다. 령감은 집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얼씬거리기만 하면 수상쩍게 바라보며 공연한 트집을 걸곤 했던것 이다.

《황새 기웃거리듯 뭘하고 섰나?》

《술개미시늉은 그만두고 썩 물러가지 못해.》

령감의 심술에 쫓겨 가면서 망신 당한 총각들은 봉건이 짝 찬 두상이라고 귀먹은 욕들을 마구 하였다.

김윤은 평감한테서 그런 욕을 얻어 들은 일이 전혀 없는 온순하고 조용한 총각이었다. 스물을 갓 넘긴 이 단야공은 쇠덩이를 다루는 사내답게 힘도 세고 체격도 단단한 축이었으나 너무 어지고 말이 없어서 왁짜들은 그를 속맥으로 치부하는 일조차 있었다. 그런데 이 《속맥》이 온 도시가 다 아는 민청간부이며 선동가인 연성순을 사랑하고 있다는걸 알았다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

김윤은 교대를 마치면 해방공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리었다. 미술공부를 하여 화가가 되는것이 그의 희망이었다. 아이적부터 무엇이든 그려 놓기를 좋아 했던 그는 자기가 공간예술에 천부의 소질이 있다는것을 몰랐었다. 그는 자기가 그린 공장의 5.1절 경축그림판을 본 시당 위원장이 그를 시미술가동맹의 화가에게 데려다 준 다음부터 비로소 미술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초학도로서 사생부터 꾸준히 해나갔다. 그가 가져 온 사생화들을 심중히 들여다 본 선생은 그에게 인물화보다는 풍경화를 그리라는것이 아주 좋겠다고 하였다.

《피테는 자연을 감득할줄 아는것이 진정한 예술가라고 했소. 풍경화! 이것은 결코 자연의 단순한 재현이나 기계적인 복사는 아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것처럼 바람과 물, 돌은 해와 지는 해- 현실적인 산 그림을 그려야 하는게요.》

시골도시의 은퇴한 화가(젊은 시절엔 화관을 메고 상해나 도교 등지를 방랑미술가로 전전했던)는 광복된 청년에게서 세계적인 풍경화가의 미래를 환상했다. 시당위원장에게 그는 이 젊은이를 어떻게 해서든 평양의 미술대학으로 보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선생의 가르침대로 김윤은 주로 숲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 그는 거기서 소묘를 하고 채색연습도 하였다. 합숙친구들이 그를 놀려 주듯 시까슬렀다.

《이봐, 공원이야 저녁에 눈이 맞을 처녀와 산보를 하는 곳이 아닌가. 저 친구 언제 봐야 덤불뒤에 들어 박혀 새나 나무를 그리고 있거든...》

그러나 그 친구들은 숲속에서 김윤이 그림을 그릴뿐아니라 아울러 의미심장한 일을 겪으려 간다는 사실을 알수가 없었다.

숲속에서 김윤은 양묘장에서 떠온 나무들을 심거나 이미 서 있는 나무들과 화초들을 가꾸곤 하는 연성순을 보았다. 처음엔 그의 가슴으로 막연하고 두근거리는 호기심, 미모의 처녀에 대하여 총각들이 흔히 가지는 선망과 동경의 작은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엔 털어 버리기 힘든 집요한 관심이 차츰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그것은 또다시 어떤 야릇하고 안타까운 희망으로 변해 갔다. 공원으로 가는 그의 걸음이 잦아 저 갔다. 일요일은 물론 이른 아침이나 저

녁녘에도 시간만 허락된다면 그는 부지런히 갔다. 어느 날엔가 김윤은 자기가 그 걸음을 이미 멈출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놀랐다.

《공원에는 왜 자주 가지?》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물음이 제기되면 그는 자신없이 대답해 보았다.

《그야... 그림을 그리러 가지.》

《허튼 소리!》

그 누군가가 총각을 사정없이 비웃는듯 하였다. 그럴 때면 가슴이 떨려 화관으로 붓을 가져다 댈 힘마저 잃어 버리는 김윤이었다.

그는 항상 으스스하고 호젓한 곳에 숨어서 화구를 펼치고 화초를 가꾸거나 나무가지들을 전정하는 연성순의 날렵하고 명랑한 일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는 처녀와 마주치는것을 매우 삼가하였다. 그는 똑똑하고 총명하기로 소문이 쩌한 그녀자가 자기의 거동을 보기만 하면 마음속에 품은 수상한 생각을 대뜸 알아 낼것 같아 몹시 두려웠던것이다.

어느 사람 같으면 필경 미술에 취미가 있는 청년으로서 자기가 편모하는 대상의 모습을 화관우에 수다히 옮겨 놓았을것이다. 그런데 김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변변치 못한 재주를 가지고 그렇듯 훌륭한 처녀의 얼굴을 막 그릴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게다가 선생까지도 그에겐 인물화엔 그리 전망이 없으니 풍경화를 선택하라고 혼시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는 대신 처녀의 손이 닿았던 대상들, 그 녀자의 보배 같은 우아한 손길이 스치고 지나간 나무며 꽃들을 죄다 그렸다. 처녀와 련관된 풍경은 레외없이 선생의 찬사를 받군했다. 선생은 그림들에서 넘치는 생동한 느낌과 어떤 힘들, 주로 색조나 명암으로 처리된 강렬한 인상들을 발견했고 풍부한 량질감의 조화에 감탄하였다.

《동문 확실히 비상한데가 있소! 동무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연성순은 이 로동자화가를 알지 못했다. 그 녀자에겐 아는 총각들이, 민청사업을 하는 선진적이며 진취적인 멋쟁이총각들, 공장들에서 선구자로 소문이 뜨르르한 청년들이 너무도 많았다. 연성순이 자기의 모습을 일구월십 주시해 가며 숲속에 들어 박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총각에게 관심을 가질 겨를이란, 주의를 돌릴 기회란 전혀 없었던것이다. 김윤은 오직 여름밤 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쳐다보는 소년과도 같은 심경으로, 먼발치에서 그 녀자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운명이 한번은 그에게 기묘한 행운을 던져 주었다. 사람들에게겐 산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주 행복스러운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기회나 순간이 있다. 그것이 전혀 우연적이고 짧고 아쉬운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일생에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다.

《동무들! 나무를 심자요.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우리 새 조선의 모든 산과 강기슭, 모든 마을과 거리가 록음이 우거지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답니다.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자요...》

김일성 장군님께서 몸소 평양시의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그날로부터 한해가 되는 1948년의 4월 어느 날에 민청위원 연성순은 민청원들앞에서 격동적인 연설을 하였다. 봄빛이 완연하고 사위가 청명했던 4월 6일! 시의 각곳에서 모인 노동자, 농민, 학생청년들이 《우리들은 민주청년 삼천만인민의 아들딸...》이라고 격조 높은 행진가를 부르면서 시양묘장으로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그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서로 골라서 떠나가고 마차와 소달구지, 손수레들에 실어 해방공원과 거리들에 날라 갔다. 김운은 전 나무모를 가져 왔다. 같이 간 합숙의 다른 친구들은 빨리 자라는 백양이라든가 화려한 단풍 같은것들을 택했는데 김운은 사철 푸르고 꽃꽂이 자라는 전나무가 마음에 들었다.

젊은이들이 양묘공(성순의 아버지)의 훈시를 듣고 나무심기를 시작하려는 참에 한 친구가 돌연히 엉뚱한 제의를 하였다. 서두에 남녀평등권법령의 중요성을 별안간 상기시킨 그 피짜는 국토를 가꾸는 이 선진적인 애국사업을 남녀가 서로 갈라 진 봉건적이고 구습적인 태도로 치르어선 안된다고 장황히 주장해 나섰다. 남자들은 와 웃었고 처녀들은 속이 뻐한 수작에 입들을 비죽거렸는데 식수사업의 발기자인 연성순이 손뼉을 치며 그 말을

찬성해 나섰다.

《좋아요! 그럼 각기 맘에 드는 사람들끼리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짝패를 못자요.》

법석 복새를 일구며 서로 짝패를 고를 때 연성순의 주위로 여럿의 친구들이 접근하였다. 그 녀자는 모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 저하고 같은 나무를 떠온 사람과 일하겠어요. 제가 무슨 나무를 떠왔는지 알아 맞춰 봐요.》

《사시나무!》

《안야. 단풍나무요!》

《자작나무다!》

등이 단 경쟁자들이 왈작 떠드는 속에 가벼운 미소를 짓고 섰던 처녀는 한켠 구석에 덤덤히 서있는 김운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리고 그가 들고선 전나무모를 가리켰다.

《나는 전나무예요.》

김운은 그만 나무모를 땅에 떨어뜨렸다. 심장이 후두둑 뛰었고 삽시에 눈앞이 뿌얘 졌다. 갑자기 귀도 막혀 버리고 고막이 무거운 휘파람소리를 내며 울었다. 온몸이 허공중으로 금방 떠오를것만 같은 허탈감마저 느껴 졌다. 흐릿한 시야로는 어떤 이상한 후광을 두른듯 한 그 녀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쳐 들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며 올려대는 소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은 피짜의 룡담에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웃는 소리도 그의 귀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과 귀며 육신의 모든 감각은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나 강렬하고 뜨거우며 격동적인 감정으로 확실히 들어찬 하나의 신비한 세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거의 반나절이라는 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를 알지 못했다. 연성순과 함께 일했으나 그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였다. 처녀의 요구대로 땅을 파라고 하면 묵묵히 삽질을 했고 물이 필요하면 말없이 물가로 뛰어 갔다. 처녀도 이곳저곳 주의를 돌리느라 김운에게 각별한 주의를 돌릴 짬이 없었다. 그들은 수십그루의 전나무들을 공원의 여기저기에 알맞출한 곳을 골라 가며 심었다. 연성순은 마지막 두그루를 숲속의 못가 주변에 심자고 했다. 그들이 일을 끝냈을 때, 태양이 서쪽에 거의 기울어 서쪽숲의 우듬지가 붉은 불길에 휩싸인듯 활활 타고 있었다. 진한 락조가 비긴 못가수면이 쇠물처럼 빨강계 물들어 고요한 미풍이 스칠 때마다 둥근 못은 홍보석조각들이 뿌리는 빛과 흡사한 짙고도 눈 부신 수천만개의 섬광을 일시에 피워 올렸다가 금시에 잔잔해 지곤 하였다.

이마전에 둔은 땀을 손등으로 훔치던 성순은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과묵한 짝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녀자는 문득 물었다.

《전나무를 좋아 하세요?》

《예...》

《어째서요?》

그 녀자의 검은 눈동자가 자기를 이윽히 응시하자 김운은 황황히 눈길을 내리깔았다.

《전나무는... 상록침엽수로서... 사철 푸른... 여름이나 겨울이나...》 하고 김운은 혼돈스럽게 말귀를 떠듬거렸다. 연성순은 방긋이 웃으며 그를 도와 나섰다.

《사철 변함이 없다는거죠.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든것이겠죠?》

《예...》

《동문 생각이 깊은 사람이군요.》

처녀의 느닷 없는 칭찬에 김운의 얼굴은 확 붉어 졌다. 그러나 연성순은 총각의 태도는 아랑곳 않고 다음 순간엔 벌써 어떤 공상에 잠겨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전나무가 언제 꽃 피는줄 아세요?》

《...》

《이렇게 어린 나무모를 심어서 30년이 지나면 유백색의 꽃이 핀다고 해요.》

《30년이요?》

《그래요. 30년이에요.》

처녀는 어느덧 앞에 선 청년의 존재도 까마득

히 잊고서 30년이라는 세월의 아득한 공간 저너머에 있는 미래를 애써 가늠해 보았다. 그 너자는 커다란 눈을 사르르 감고 속삭이었다.

《그때 이 나무들은 아름답리 나무로 튼튼하고 키높이 자랄거예요. 그리구 새파란 아지들마다 가득히 꽃을 피울거예요. 전 그걸 보고 싶어서 이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들에 꽃이 필 때 우리 도시는 얼마나 달라 질가요? 30년후에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훌륭해 질가요?... 이렇게 눈을 감구 한번 생각해 봐요.》

석양에 물든 숲의 모든것이 검붉게 보였다. 처녀의 자태도 그 붉고 검은 강렬하고 뜨거워 보이는 세계의 뚜렷한 일부였다. 김운의 시야에 흘러든 뜨거운 빛이 그의 심장을 또한 태우고 있었다.

《30년후의 우리의 생활은?!》

김운은 처녀의 말을 시처럼 외웠다. 그것은 시처럼 아름다운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멀리서 손짓하는 아득한 미래였다. 선풍가늠할수는 없으나 어쨌든 행복할것이라는 사실만은 벽차게 확신되는 미래! 도대체 그 무슨 힘이 미래에로의 이 환희론 흐름을 막을수 있으랴. 주위의 정경은 오로지 즐거움과 희망, 신뢰와 기대, 확신과 랑만의 색조들로만 담백 차 있지 않는가.

3

주체42(1953)년 7월, 전승의 그날에 전승의 열병식장에서 울린 경축의 포성과 만세소리를 김운은 듣지 못하였다. 옥사에 있던 그와 동지들이 정전협정조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수용소안에서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함성이 울렸다. 수감자들은 일제히 조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노래의 마지막구절이 채 끝나기전에 김운은 취조실로 끌려나갔다. 그는 뿌연 백열등밑에서 권총소제를 하고 앉은 자에게 준렬히 말했다.

《나는 인민군군인으로서 너희들과 교전중에 잡힌 전쟁포로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우린 공화국으로 돌아 갈것이다. 이제 우리가 더는 너희들의 수감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위의 계급장을 단 그자는 권총에 탄창을 맞추고 안전장치를 풀고 적발기를 당기고 나서 총구를 들어 김운의 이마를 천천히 겨누었다.

《불쌍하고 가련한 중생이여, 저주로운 그 운명이 고통의 이 세계에 내버려진 까닭은 무엇이드뇨...》라고 피이한 잠꼬대를 중얼거린 그자는 총구뒤에서 싸늘하고도 조소어린 눈알을 생쥐처럼 깜박이면서 김운을 조롱했다.

《흥, 지금부터 당신은 이 세상에 없는 목숨이여, 염라국의 대장에 이름이 오른거라 그 말이

... 너희들 공산포로들은 오늘 현재 분계선을 넘어 다 돌아 갔어... 현대 임자들은 왜 아직 여기에 있지? 대답을 해보시지 그래...》

그자의 눈은 살기의 쾌감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

《무어? 조국을 위해 싸운다고? 너희의 조국은 너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네가 근무했던 <공산군>사단의 인사과명부엔 네가 50년 10월에 퇴각중 락오해 버린 탈락자 혹은 행불자로 기입되어 있을것이다. 넌 지리산에서 이름도 없는 폭도들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비적으로 체포되었다. 그래 너를 여기에 누가 보냈나? 응? 너희들의 국가에서 너희의 이름은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너희의 조국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없는 자에게 그 무슨 영광을 베풀것이나. 너흰 이 세상에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방인 신세다 그 말이야. 알아 들었어?》

그때 김운은 치를 떨며 웨쳤다.

《야 짐승만도 못한 놈아, 설사 우리가 죽었다 해두 우리에게 영광이란것이 있다!》

격노한 수인은 철퇴 같은 주먹으로 피뢰군중위의 뺨쪽한 턱을 일격에 짓부셨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적들은 그의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감방에 돌아 온 김운은 이를 갈며 분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조국이 우리를 망각했다고? 공화국이 우리를 기억속에서 지워 버렸다고? 인의를 모르는 짐승의 무리들아, 신성한 료리를 모독하지 말라!...

김운은 쇠살창너머 캄캄한 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우러르며 흘러 온 길지 않은 생을 추억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지년간 날의 추억은 아픔과 눈물, 기쁨과 웃음들이 함께 깃든것이였다.

그는 아버지를 모른다. 그가 사물과 이 세상이란것을 어렴풋이 알 때 이미 어머니의 손을 잡고 류량의 길을 걷고 있었다. 엄마는 어린 아들을 이끌고 정처없이 다니었다. 엄마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그으며 오돌오돌 떠는 윤이를 병약한 몸에 그러안고 이제 아버지를 찾으면 집에서 살게 된다고 말했다. 그 엄마는 류량중에 로상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름조차 모를 어느 령마루우에서 피나리보짐을 지고 북쪽으로 흘러 가던 류량민길손들이 엄마를 땅에 묻어 주었다. 죽는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윤이는 죽은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묘실안에 뛰어들어 갔다. 사람들은 싸늘한 엄마의 목을 안고 우는 아이를 끌어 내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방랑의 길!... 세상에 홀로 남은 아이는 여기저기로 가랑잎처럼 굴러 다녔다. 거지떼들속에서 흘러간 소년시절이다. 세상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다만 그가 《도적》일 때 포악스런 관심을 보이곤 했다. 여하간에 생명이란 참으로 모질고 끈질기기도 한 것이었다...

광복이다! 8월의 푸른 하늘에 해빛이 눈 부시게 쏟아 지는 그날에 열일곱살의 거지는 만세소리가 진동하는 작은 도시의 거리에 멍청히 서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을 좇아 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안타깝게 찌프리며 소리쳤다.

《광복이다! 이놈아, 머저리 같은 녀석아. 너두 만세를 불러라.》

《?》

윤이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

광복?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왜놈들이 다 없어 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는 으스스한 순사들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자 기뻐서 손뼉을 쳤다. 그래서 그도 사람들을 따라 짜진 옷자락을 너풀거리며 뛰어 다녔다.

그는 공장에 입직하였고 성인학교에 다니면서 글을 배웠다. 세상이 파스해 졌다. 사람들은 이전 처럼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청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도 생활이란 것이 있으며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인간의 중요한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지나간 시절의 고통과 슬픔을 잊게 한 뜨거운 생활의 흐름이었다. 그속에서 그는 사랑이란 것을 체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김윤은 차거운 감방벽에 몸을 기대고 해방공원에서 나무를 심은 이후의 일들도 회상했다...

전나무들은 그의 생활에서 떼여 낼수 없는 피와 살 같은 한부분이었다. 그는 연성순에게 감히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그 나무들에 하였다. 눈바람이 심하거나 폭우가 내리는 날에 그는 속을 태웠다. 나무들이 상하거나 혹시 죽어 버린다면 처녀와 이어 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귀중한 생명의 끈이 동강나 버린다는 거의나 미신적인 관념조차 그의 마음속에 바위 같은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그의 화관우엔 전나무 두그루에 대한 수다한 속사와 소묘들이 나타났다. 오직 꼭 같은 나무들에 치중한 집요한 묘사들이 그의 선생을 의아하게 했다.

《개별적대상에 치중해선 안되네. 자네한테서 중요한건 전체를 파악하고 묘사할줄 아는 능력이야.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 나무들만 왜 자꾸 그리는지 난 알수 없구만.》

그러나 제자는 이상스런 그 일을 좀체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날이 갈수록 처녀와 통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시간은 그에

게 용기의 불길을 지펴 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마침내 운명적인 어느 한 날을 골라 숲으로 갔다.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첫 《통성》을 하기 위하여! 그는 첫말이 곧 사랑의 고백으로 되어야만 하는 심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새벽안개가 흐르는 고요한 숲속에, 못가의 전나무들앞에 그는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화관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어느 때의 허름한 작업복이 아니라 생활비를 타서 맞춰 입은 새옷을 입고 갔다.

고요를 깨뜨리며 멀리서 비자루소리가 들려 왔다. 처녀가 산책길을 따라 걸어 오는 것이었다. 김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쪽을 주시했다. 그 소리는 가슴을 부드럽게 애무하는가 하면 거칠게 자극하기도 하면서 점차 가까스로 다가왔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그것은 고요였다. 사방에서 귀 따갑게 우짖는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그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유독 부드럽고 다정한 비질소리만이 숨 죽인 관현악의 솔로선율처럼 숨 가쁘고 환희롭게 들려 왔다. 그 소리가 지척에 올릴 때 그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 나올듯이 팽창거렸다. 드디어 그 소리마저 끝났다. 그에겐 한순간의 무서운 정적이, 한순간의 아찔한 그 고요가 일년 맞잡이로 힘들게 느껴 졌다. 안개... 꿈 같은 첫 빛안개속에 사람의 형체가 우뚝이 드러났다.

《?!》

그의 눈앞엔 양묘장령감이 서 있었다. 젊은이는 얼굴에 일어 서서 굽적 인사를 했다.령감은 간밤에 어지간히 마셨는지 여적 취기가 가시지 않은 거나한 시선으로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임잔 누군데?》

《...》

령감은 주섬주섬 돌아 섰다. 김윤은 저도 모르게 주춤 따라섰으나 인차 굳어져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처녀는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로움을 참지 못한 김윤은 어느날엔가 양묘장령감의 뒤를 따라 갔다. 그리고 마을 우물가에 나온 아낙네들에게 물었다.

《연성순동무를 아시지요?... 그 동무가 왜 공원에 못 나오니까? 어디 앓기라도 하는가요?》

아낙네들은 그에게 호기심어린 눈초리를 집중하면서 참새들처럼 떠들기 시작했다.

《새망스런 말 다하우. 앓다니 원.》

《성순이가 평양에 공부하러 올라 간걸 모르우?》

《당학교라는델 갔어요. 이제 큰 간부가 될거래요...》

《...》

김윤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돌아 서서 발길 닿는대로 러벅러벅 걸어 가는 그를 보고 아낙네들은 수군거렸다.

《성순이하구 친했던 모양이제?》

《무슨 소릴. 개가 평양 간것두 모르구 있지 않나.》

《반했던 모양이야. 호호...》

김윤은 못가의 전나무들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안개가 말끔히 걷힌 깨끗하고 맑은 수면을 보고 있었다. 못새들이 우짖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이젠 어서 꿈에서 깨어 나라고 떠드는상 싶었다. 그런 일은 생활의 향다반사이며 그리 놀랍고 상심할 일도 아니니 의기를 잃지 말라고 저마끔 조잘대고 있었다. 새들의 노래는 김윤의 의식을 지배해왔던 꿈의 고요, 현실이 아닌 환상의 세계를 깨뜨렸다. 그 시각 그는 연성순을 본이래 거의 2년간을 헤매오던 신비와 공상의 세계가 해빛이 유난스런 파란 수면우에서 안개처럼 가뭇없이 사라지는것을 느꼈다. 물은 평정한 진실처럼 맑고 차거운 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가 한 처녀를 위하여 허위단심 짝사랑해왔다는 번연한 사실을 새삼스레 알고 그것을 가슴 아프게 시인하였다. 2년간의 모든 날과 달, 낮과 밤의 사연, 결코 발표할수도 내보일수도 없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것은 오직 두그루의 전나무들뿐이었다. 해빛을 받은 어린 전나무들이 그 어린 기둥과 연한 가지에도 불구하고 허공을 향해 꽃꽂이 단정하게 서 있었다. 어리나 기품 있는 그 모양이 순박한 로동청년의 눈길을 그리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전나무들도 김윤에게 생활이란 그래도 아름다운것임을, 또 그가 생활을 타타거나 원망할 권리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어떤 진리를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었다.

젊은이여! 너는 이 땅에 그저 나무만을 심은게 아니지 않느냐.

숲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김윤은 살창머머 가득 찬 칠혹 같은 어둠, 암담한 무한을 지꽃게 강요하는 그 살인적인 암흑을 쏘아 보았다.

(조국이 나를 기억속에서 지워 버렸다고? 그 땅에선 내가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을거다. 그것은 조국의 가슴에 뿌리 박힌 나의 삶의 표적이고 사멸하지 않는 증거다.)

김윤은 1953년 7월의 그밤에 감방마루를 손톱이 모지라도도록 긁고 파서 공화국기를 새겼다.

그것은 바람에 힘차게 나뭇기는 승리의 기발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발의 랑옆에 두그루 전나무의 형상을 새겨 놓았던것이다.

4

그것은 자기의 리념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살하기 위해 적들이 고안해 낸 인간고최악의 장소였다. 한평이 채 못되는(정확히는 0.75평이다.) 차디찬 마루바닥과 어둡침침한 천정, 철문, 쇠살

창, 세멘트벽, 희끄무레한 30축짜리 전등... 이 모든것들이 전사의 삶을 지켜 보는 말 없고 침울한 생의 동반자였다.

...

둘러 싸인 콘크리트벽
육중한 철창들이 삶을 막아 선
무덤속 판짜만 한 이 공간은
전사의 마지막순교지

...

그들과 함께 80년대의 재소생활을 겪었던 문인은 모진 고통과 기아에 죽어 간 명혼들을 추모하여 이렇게 썼다. 그 《살아 있는 무덤》속에 김윤도 있었다. 혁명순교자로서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들, 《죽음을 승인하는 자는 살고 죽음을 피해 달아 나는 자는 죽는다.》는 생존과 죽음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 그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생의 거룩한 영광을 닦아 나가고 있는 그들중에 김윤도 한사람이었다.

감옥안에서 동지들도 적들도 다같이 그를 《화백》이란 별명으로 불렀다. 진실과 거짓, 사랑과 악의의 기이한 결합이었다.

《화백》은 년말을 맞이할적마다 삶을 고수해 온 한해, 또 한번의 피어리고 간고하나 영광스러운 한해를 보내며 송구영신의 의지를 가다듬는 동지들에게 축하그림엽서를 만들어 나누어 주곤 했다. 손바닥만 한 종이장에 싸리꼬챙이로 먹물을 찍어 그린 그림엔 변함 없는 공화국기와 아지수가 늘어 난 두그루의 전나무가 그려져 있었다.

《화백》김윤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그렸다. 조국의 기발을 그리곤 하던 그의 오른손은 70년대에 전향공작반강패들에 의해서 부서져 영영 불구가 되었다.

《이 새까! 너희들 찾지도 않는 곳의 기발은 왜 그려? 조국? 니미랄! 수선 떨려 자빠 졌네. 이 미친 그림쟁이령감...전향을 해.》

적들은 우선 그를, 그의 육신을 물리적으로 철저히 파괴해 나갔다. 마르크스란 공산이데올로기의 조상이 그랬다지, 물질은 정신보다 앞선다고, 그러니 정신의 기반인 물질(육체)을 파괴해야 한다면서 교형리들은 그에게 모진 악형을 가했다. 파쑈권력의 총수는 교도소의 줄게들을 위협했다. 몇십명의 비전향수를 돌려 세우지 못하는 이 《국가》가 《북한공산주의》를 어떻게 타승할수가 있겠느냐...

《전향할래?》

《안한다.》

《하겠어?》

《아니!》

《죽어 버려!》

악한들의 단말마적인 야성의 울부짖음속에서

김윤의 정신은 흐려 지며 멀리 지나온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곤 했다. ...

세월은 얼마나 멀리 흘러 왔는가. 그때 붉은 숲속에서 전사한 그들의 시신이 묻힌 곳은 이제 더는 찾을 길 없으리. 꿈속에서처럼 들려 오는 새소리, 접동새의 울음소리다. 저 새한테 혹시 그들의 령혼이 접한것이나 아닌지. 그때의 전우들이 다가오며 김윤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동무를 그곳에 파견하였다. 신념을 지키는 전초선에 조국이 동지를 파견하였다. 동지는 영광스런 조선인민군의 병사이며 성스런 지리산빨찌산의 경찰대원이다. 당신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수령님과 당을 지켜 끝나지 않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부대정치위원의 말이다.

《30년 자란 전나무를 그려 줘요! 네, 아시겠어요?》

이건 누군가? 이것은 빨찌산의 가수 연성순의 속삭임이다.

아 연성순, 나는 그대를 1952년 10월 지리산에서 다시 만났다.

우등불이 어둠을 녹이며 타오른다.

마가울의 찬별들이 불기둥우에 금시 쏟아져 저 내릴듯 떨리고 있다. 야음속에 퍼져 가는 녀성의 풍부한 노래소리.

...

어두운 밤

탄환은 초원을 날고

바람은 전선을 흔든다

별들만 반짝인다

...

연성순이 별빛을 바라보며, 밤바람에 단발한 머리를 날리며 두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얹고 병사의 고향생각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 경찰대원 김윤은 불가에서 묵묵히 무기의 충신을 닦으며 연성순의 노래를 들었다. 그는 전쟁이 가져 온 야릇하고 불가사의한 행운에 대하여 생각했다. 전쟁!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그때 회성시에서의 생활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흘러 갔을것이다. 그때 헤어진 저 처녀와도 영영 만나지 못할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전쟁은 그들을 전선으로 불렀고 이렇게 지리산에서 다시 만나게 했다. 들은 말에 의하면 연성순은 1950년 6월 중앙당학교에서 남조선해방지구로 파견되는 정치공작대원의 임무를 받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연성순은 김윤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그 녀자에겐 그가 인민군 X사단의 경찰병이였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부상으로 대오와 떨어져 저 지리산빨찌산에 들어 왔다는 정도로 알려져 있을뿐이다. 그러나 그 녀자는 김윤과 전투원으로서 첫 인사들 나누었을 때 그가 회성에서

왔다는걸 알자 몹시 기뻐 했다.

《아유. 고향친굴 만났군요. 기뻐라! 다시 한번 악수!》

연성순은 작은 손을 담차게 내밀어 말없이 자기를 지켜 보는 경찰대원의 손을 힘 있게 그러쥐었다. 전쟁이 그 녀자를 퍼그나 변모시켰다. 그 눈에 이전의 랑만보다는 예리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김윤은 지리산에서도 연성순에게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내가 회성에서 동무한테 죽도록 반했던 여사여사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다, 과연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필요한것인가. 그예겐 가슴속에 묻어 둔 그토록 하고 싶은 말을 꺼낼 적절하고 온당한 기회가 오지 않았다. ...

그 녀자의 노래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듯 한 별무데기우에 퍼져 가는것만 같았다. 무수히 반짝이는 별빛, 쌀쌀히 불을 스치는 가을바람, 계곡을 채운 바람소리와 락엽진 나무아지들이 떨리는 소리들이 얹히고 휘감기며 그 녀자의 온몸을 휘감아 검푸른 허공의 별무리로 끌어 올리려는듯 하였다.

그때 김윤은 가슴속에 접어 둔 소묘종이를 만져 보았다. 그것은 연성순이 부탁하여 그린 풍경화소묘다. 김윤이 그림을 그리곤 하는것을 본 연성순은 무람없이 접근해 와서 그에게 청을 들었던것이다.

《화가를 희망하신다죠?》

《예...》

《참 훌륭한 리상을 갖고 계세요. 난... 그리 큰 리상가가 못된답니다.》

《아닙니다. 동문 지리산유격대원모두가 아는 선동가이며 가수이고 또...》

《그리구 또 뭐예요?》

김윤은 말문이 막혀 고개를 돌렸었다. 동무는 참 아름답고 훌륭한 처녀라고 사실 말하고 싶었다. 연성순은 픽 웃어 버렸다. 그 녀자는 김윤의 너슬너슬해 진 군복팔소매를 무람없이 끄당겨 바늘로 기워 주면서 말했다.

《저, 부탁 하나 있는데 들어 주시겠어요?》

《네...》

《동무가 사람들의 초상을 많이 그려 준다더군요. 저도 그림을 하나 그려 줘요.》

《?》

《그러나 제 얼굴을 그려 달라는건 아니예요. 전 회성서 공원관리원일을 하였답니다. 아버지가 양묘공일을 했으니까요. 공원과 숲을 가꾸는 로동자였죠. ...》

《!》

《제가 평양으로 올라 가기전에 해방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참 우린 48년도에 같은 민청원들이였을테니까 생각나겠지요? 시민청의 발기로 도시의 전체 민청원들이 식수를 하지 않았

나요. 그때 동무도 혹시 공원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난 전나무를 심었답니다. 원림속에다가 두 침구 결상옆에 두 침구 마지막엔 공원자연못가앞에 두 심었답니다.》…

김윤은 연성순이 그때 함께 일한 짝패를 상기하지 않는것이 몹시 섭섭하였다. 그래도 마음은 마구 뒤설레였다. 당장 이 여자에게 내가 그때 동무와 나무를 같이 심은 사람ियो 하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허나 연성순은 그의 심중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이렇게 말할뿐이었다.

《못가앞에 서 있는 전나무를 그려 주세요. 해방공원이 생각나시죠. 창포가 많이 자라는 늪도 아시겠지요?… 그려 주세요. 만약 잘 생각나지 않으시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죠. 네?》

《…》

그 너자의 마지막말은 김윤을 무척 슬프게 자극했다. 전선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이 경찰병은 불과 3~4년전에 자기가 얼마나 소심한 겁쟁이였는가를 생각하며 얼굴이 붉어 지었다. 연성순은 말끔히 기운 팔소매를 들어 이발로 실을 물어 끊었다. 거친 손등이 그 너자의 부드러운 입가에 닿자 김윤은 온몸을 가볍게 떨었다. 그의 팔을 내려 놓으며 연성순은 빙긋이 웃었다.

《됐어요. 그림은 꼭 그려 주셔야 해요. 네?》

《그리겠습니다.》

김윤은 그 너자가 원하는대로 크지 않은 종이에 소묘를 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기들이 심은 어린 전나무들이 아니라 거대하게 자란 나무들을 그려야 했다. 그 너자는 30년이상 자란 전나무를, 그것도 봄을 맞아 유백색의 솜꽃이 가득히 핀 전나무를 그려 줄것을 부탁했던것이다.

《!》

그 너자는 미래를 그리라고 말했다. 김윤은 소묘를 하면서 현재와 과거 그리고 연성순이 그토록 환상하는 미래라는것을 생각하였다.

미래, 그것은 항상 행복하게만 추측되고 상상되지 않는가. 그러나 혹시 이 가혹하고 처절한 전쟁이 미래에로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것이 아닐까? 전쟁은 미래가 다가오는것을 지연시키고 있지 않는가.…”

김윤은 전투와 행군의 여가에 미래에 대한 상상풍경화를 그렸다. 그것은 그가 전쟁전에 그렸던 그림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생에 대한 새로운 사랑과 적들에 대한 새로운 증오를 알며 소묘를 하였던것이다.…”

그 너자의 노래는 끝났고 대원들은 모두 잠이 들었다. 아직 소묘장은 김윤의 가슴속에 있었다. 연성순이 너대원들의 천막으로 가기전에 그한테 그림이 다 되였는가고 피곳 물었을 때 김윤은 아직 안되였노라고 그 너자를 피했다. 부대는 다음날 적들의 포위환을 풀기 위해 두개의 대오로 갈

라 졌다.

단풍이 붉게 진 림결령술이었다.

그 숲엔 사시절 평평 솟아 나는 커다란 샘이 있었다. 그곳 지형에 밝은 키다리 문동무(그도 경찰대원이었다.)가 샘의 이름이 《총각샘》이라고 알려주며 녀성대원들을 능청스레 건너다 보았다. 물을 마시려고 선 참 다가서던 연성순이 의아쩍은 눈초리로 경찰대원을 돌아 보았다.

《어째서 총각샘인가요?》

《옛날부터 그 물을 마신 가시내는 지가 바라는 총각님을 얻을수 있다 하능기오.》

《그래요?》

처녀는 약간 얼굴이 상기되었으나 머뭇거리지 않고 몸을 굽히더니 물을 마셨다. 그것이 거짓말이란것을 뻔히 아는 다른 대원들은 키득거리며 웃었다. 그러나 김윤은 웃지 못하였다. 입가에 물을 흠치며 일이 선 연성순이 어째서인지 흥시처럼 붉어 진 얼굴을 돌려 자기를 흘깃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 너자의 눈에서 흘러 나온 한줄기의 가느다란 빛이 일순간 김윤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

그의 가슴은 후두둑 뛰었다. 그의 뇌리엔 불시에 해방공원의 못가와 황혼이 지던 그 숲이 떠올랐다. 연성순! 동무는 그때 함께 전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자기옆에 서 있다는걸 왜 모르오. 야속한 그대여.

그들은 피아골에서 작별하였다. 전투가 끝난 다음 소묘장을 주마고 김윤은 그 너자에게 약속했다. 연성순은 어떤 희망이 강렬히 비낀 눈으로 그를 한동안 쳐다보았다.

《잘… 그려야 해요. 네?》

《최선을 다합니다.》

김윤은 그림은 이미 다 되였다는 말이 차마 나가지 않았다. 소묘장을 보면 모든것을 알게 될것이었다. 김윤은 그림뒤장에 사랑의 고백을 토박 토박 적어 놓았다. 포위를 뚫고 나가 다시 만나서 그림을 주리라.

가을날의 황혼이 불길처럼 타고 있는 피아골단풍숲으로 자동총을 돌려 맨 그 너자가 총총히 걸어 갔다. 단아하고 단정하게 꼳꼳한 자세로 뒤를 돌아 보지 않고 곧바로 갔다. 그리고 그 너자는 전투에서 돌아 오지 못했다.…”

전우들이 업어 온 그 너자의 시신을 보려 김윤은 정신없이 달려 갔다. 연성순은 이름을 알수 없는 분홍빛의 꽃들이 선렬처럼 뿌려 진 풀판에 누워 있었다. 김윤은 잠든듯 싶은 그 너자의 얼굴을 넋없이 들여다 보았다. 그는 군복 웃주머니에서 정히 접힌 소묘장을 꺼내어 아직껏 한번도 그 누구의 손길도 닿아 보지 못했을 그 가슴의 웃섧을 조심스레 헤치고 그속에 넣어 준 다음 그

녀자의 두손을 가슴우에 얹어 주었다. 전우들은 김운을 묵묵히 지켜 보았다. 그는 문득 시신 주변에 가득히 핀 꽃들의 이름을 물었다. 키다리 문동무가 주먹으로 눈굽을 문대며 그 꽃은 이 산에서만 자라는 쇠별꽃이라고 알려 주었다.

쇠별꽃! 여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꽃은 코스모스를 닮았다. 쇠별꽃이 펼쳐 놓은 분홍색의 웅단이 그 녀자의 시신을 감싸고 바람에 물결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

어두운 밤 탄환은 전선을 날르고
고향의 그대 생각 잠 못 이룬다
아 돌아 가리 사랑하는 그대여

전우들은 그 녀자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합창했다.

그 녀자는 끝내 김운이 고향도에서 전나무를 함께 심었던 총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 그 녀자는 지리산에서 만난 《고향친구》가 자기를 편모하고 있다는것을 알았을까? 그 녀자는 아무런 느낌조차 받은적이 없었을까?

문동무가 김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연성순동지는 김동지를 생각했던기라오.》

《그런 소린 마시오. 그건 연동지를 모욕하는것이요.》

《당신... 바보요. 총두 잘 쏘고 그림채간도 있소. 한데 사람의 맘을 아는 눈치는 아예 없는 바보라능기오. 하긴... 성순동지가 살아서 동무가 바보라는걸 알려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소...》

《...》

빨찌산전사들은 희생된 전우들을 지리산의 이름모를 산중턱에 묻고 그 밤으로 다시 혈로를 헤치며 전투에로 나갔다.

육신은 처절히 파괴되었다. 김운은 부서진 손을 책상우에 얹고 교형리들을 측정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죽음을 태연히 받아 들이려는 이 《순교자》에 대하여 교형리들은 한 없는 공포와 적의, 신비에 가까운 의혹과 불가사의를 느끼고 있었다.

취조관은 얼이 빠진 표정으로 무기수에게 말하였다.

《끝내 전향을 거부할 작정이요?》

《그렇소.》

《도모지 리해할수가 없소. 이젠 그저 광신이라니까, 광신이야.》

김운은 그자에게 불쑥 이런 물음을 던졌다.

《당신은 나무를 심어 보았소?》

《...》

취조관은 얼퍼름해 졌다.

《제 손으로 어디에든 나무를 심어 보았는가 말

이요.》

《그런건 모르우. 난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요. 산지기들이나 할 일을 왜 하겠소.》

《그러니 당신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리해할수가 없는거요. 우린 뭇이든 심고 가꾸는게 인생의 락인 반면에 당신부류의 인간들은 무엇이나 배고 짓밟는 일을 업으로 삼기때문이요...》

무기수는 손바닥만 한 띄창너머 파랗게 비쳐드는 한조각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띄창너머 아아한 하늘엔 모든 생명에 거룩한 축복을 내리는 태양이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높이 떠있을것이어니!

5

그들은 끝끝내 조국으로 돌아 왔다. 반세기에 달하는 긴 세월, 강산의 변모가 이루어 진다는 10년을 다섯번이나 반복한 기나긴 세월의 흐름이 조국의 위대한 기억속에서 그들의 이름들을 지워버릴수 없었던것이다. 조국은 그들을 신념과 의지의 강자, 화신으로 맞이하였다.

2001년 5월 어느 날의 중낮에 비전향장기수 김운은 회성시의 그 숲속에 서 있었다.

울창한 수림, 숲속에 시원히 뻗어 간 블록포장길들, 걸음길과 장미덩굴아래 즐비한 흰 긴결상들, 그 옛날의 못을 변모시켜 놓은 넓은 인공못가 그리고 솟구치는 분수, 웃음소리 소란한 뽕트들...

그는 50여년전에 심었던 두그루의 전나무를 찾았다.

《!》

못가가장자리로부터 불과 한미터쯤 떨어진 잔디관우에서 못가의 수면중심너머에까지 아득 긴 모습을 던지며 두그루의 웅장한 전나무가 서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심었던 어린 병사와 같은 그때의 애송이나무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50여년을 꼬박기 자란 나무들, 긴긴 세월의 풍상고초를 다 겪고 이겨 내며 살아 온 장년기의 나무들이었다. 젖빛꽃이 가득 핀 풍만한 몸체를 시위하며 아름다리기중에 억센 아지를 펴고 아찔하도록 키높이 자란 위엄차고 당당한 나무들, 한치의 탈선도 없이 푸른 하늘을 향해, 찬연한 하늘에 이글거리는 광대한 태양을 향해 창끝 같은 웃초리를 힘 자라는것 받들어 올린 거목들이다. 억세고 싹한 아지들은 장검처럼 드리워 지고 가지마다 수북이 돋은 날카로운 바늘잎새들이 록보석바늘의 묶음인양 푸른 불길을 뿜으며 빛난다.

김운은 지리산에서 그랬던 상상소묘와 현재의 정경간의 차이를 가늠해 보았다. 그는 전나무 주변의 풍치가 완전히 변모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때엔 이 주변에 전나무라고는 이 두그루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은 주위가 거의나 전나무들로 꾸려져 있다. 그것들과 50년전의 전나무를 구별케 하는것은 자기들의 나무들이 가장 크고 웅장하다는 그 점뿐이었다. 거의 30미터가량 자란 그들의 전나무주위에 10년, 20년 혹은 그이상 돼보이는 전나무들이 서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심은지 얼마 안돼보이는것들도 있는데 한쪽 공지엔 금방 심어 놓은 애 어린 전나무들! 받침목을 해서 세운것들조차 있었다.

《!》

비전향장기수의 눈길은 그 어린 나무들에서 젊은이의 눈처럼 생기를 띠었다.

얼마나 신통한가! 바로 저런 애송이전나무들을 연성순과 김운은 심었었다.

그는 어린 나무들과 자기들의 거목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다. 그것은 반세기란 세월의 아득한 격간을 둔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세대의 상징이며 모습이었다.

그때 숲의 한켠에서 두런두런 말소리들이 들리더니 못가옆의 작은 공지에 나무모들과 삽들을 든 남녀청년들 여럿이 나타났다. 보매 그들은 나무를 심으러 온 모양이었는데 가져 온것들은 다 전나무모들이었다. 그들은 인차 구멍이를 파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그들의 식수광경을 바라보던 김운은 저도 모르게 젊은이들결로 다가갔을 때 늙은이를 아까부터 주시하던 한 처녀가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야! 비전향장기수동지예요.》

청년들이 환성을 지르며 그를 둘러쌌다. 그들과 한참이나 인사를 나눈후에 김운은 물었다.

《저 어린 전나무들도 모두 여러분이 심은겁니까?》

《아니예요. 선생님, 저건 지난해에 군대로 간 우리 상급생오빠, 언니들이 심은거예요.》

처녀가 새까만 눈을 반짝거리며 대답하는데 일동중에 제일 의젓해 보이는 친구가 슬며시 나서서 정중하게 얘기했다.

《선생님, 저희들도 래일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온 학급이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구 우리가 여기에 전나무를 심는 이유는...(어린 청년은 자못 심각해 졌다.) 우리 고향도시에서 오래전부터 하여 온 전통때문입니다. 저기 저 두그루의 제일 큰 전나무들을 보십시오. 저 나무들은 공화국영웅 연성순동지가 1948년 4월 6일에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향이 낳은 영웅은 그때 민청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당의 명령을 받들구 남반부에 정치공작을 나갔고 그후 지리산유격대에

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후에 그 영웅의 이름이 우리 도시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저 나무들을 심은 연성순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곤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군대로 가는 청년들은 저마다 이곳에 와서 전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를 심고 간 사람들은 모두 조국에 충실한 영웅전사들이다, 그들처럼 되기 위해 우리도 여기에 나무를 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

청년은 열정적으로 말을 계속했으나 비전향장기수는 더 듣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넘쳐 흘렀다.

연성순동지여! 그대는 지금 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계시는가. 그대를 잊지 않고 그대의 생을 빛내주는 조국의 목소리를.

...

청년들을 보내고 숲속에 홀로 남은 김운은 언뜻 불어 오는 바람에 다시금 생각에서 깨어나 사위를 둘러 보았다.

못가 건너편 혼성림의 나무들이 서둘러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들뜬 기쁨을 표시하려는듯 마구 설렁거린다. 그러나 이편의 전나무들은 못가수면을 휩 스쳐 온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깊은 명상에 잠긴 거인마냥 서 있는 두그루의 전나무! 그것들의 주위에 모여 선 크고 작은 전나무군은 근무에 전념하는 위병집단처럼 숙연하고 엄엄한 자태를 흐트리지 않고, 해별과 바람아래 수선거리는 사시나무며 단풍나무며 자작나무들의 먼 광경을 말없이 지켜 볼뿐이었다.

전나무들의 모습에 겹쳐 활짝 웃는 연성순의 아름다운 얼굴이 다가왔다.

사랑으로만 타던 그 맑고 검은 눈동자!

아 동지여, 영원히 꺼지지 않을듯 빛나던 그 눈으로 이 푸른 전나무들의 장한 모습들을 보라. 동지의 녀이여, 보시라!

두그루의 전나무는 불현듯 몸체를 천천히 흔들었다.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이하게도 그 거목들은 스스로 웅장한 몸을 흔들고 있었다. 주변의 크고 작은 전나무들이 일제히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와! 와아!

전나무들은 생명을 바치고, 일생을 바쳐 사랑과 정의와 신념을 지킨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경의와 찬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침묵의 격동을 못 이겨 그 나무들은 조국의 아들딸들이 창조한 미래와 영원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내 조국을 더 사랑하고 싶어진다

로정법

《조선문학》을 받아 들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적중하랴.

우선 손에 쥐는 맛부터 좋다고 해야 할것인가.

근면한 친구의 땀내나는 체취처럼 코를 쿡 찌르는 쫄쫄한 종이냄새와 인쇄잉크냄새를 흥흥 들이키며 뽀뽀하고 매끌매끌하게 감촉되는 잡지를 뒤집었다 폈다. 결코양부터 구경한다.

주체90(2001)년 12호이다.

만날 때마다 충동의 피를 끓여 주는 열정의 동무, 당의 동행자, 네가 아니었다면 그 힘들던 시절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을거다.

성급하게 두번째장을 펼치고 《차례》를 훑는다.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단편소설◇란...

(이전에는 집필중에 있는 장편소설들도 서너절씩 편집하곤 했었는데...) 하고 해보는 생각.

단편소설 《어머니들이 태어나다》(리영환)

소설가의 이름부터 반가웁다. 《벗은 만사람도 적다》, 《버드나무》의 작가.

글줄들마다에 비낀 작가의 성실하고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에 끌려 들었던 소설들이다.

단편소설 《노을》(정영중)

정동무, 책상앞에다 장편소설원고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도 용케 시간을 내어 또 썼수다려.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산더미》속에 숨어서라도 자꾸 쓰시오.

단편소설 《돈지갑》(강귀미)

제목이 글렀군.

《담임선생》, 《표창장》, 《삶의 위치》... 이런 작품들은 제목부터가 참 좋았는데...

담당편집원도 제목때문에 작가한테 좀 시비를 했을거라는 내판의 짐작을 해본다.

《젠장것, 빌어 먹더라도...다시는 이놈의 배 안 탈가다.》,

이것은 총련의 소설가 박종상이 1960년대에 신문 《조선신보》에다 여러회에 걸쳐 연재한 단편소설 《하늬바람》의 첫 문장이다.

그의 소설들마다에 진하게 풍기는 조국애와 토색이 짙은 이채로운 생활정서.

이번호에 실린 《어머니심정》에서도 그것을 기대하고 싶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에 그려지는 생활에는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이 있는가 하면 가정생활도 있고 과거생활과 미래에 펼쳐질 생활도 있다. 작가는 그

모든 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을 가지고 작품의 종자에 따르는 다양한 생활을 자유분방하게 그려낼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깊은 생활체험을 통해 작품의 종자를 형상적으로 펼쳐 보일 줄 아는것이 작가의 재능이다. 그것으로 언제나 독자들을 작품의 세계에 끌려 들게 하던 강귀미의 《돈지갑》부터 《열이》로 보기로 하였다.

《...너무 오랜것이어서 색이 바랜데다 네귀가 닳고 떨어 진 밤색의 닢다닥은》 지갑을...

이제는 우리 출판물들에서 《돈지갑》이란 단어조차도 찾아 보기 힘든데 새것도 아닌 그런 지갑을 버젓이 소설의 제목으로 달았던 말이지요?

소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의 어린 시절은 일본땅에서 흘러 갔다. 그 시절 할머니는 제비공지 같은 나의 머리태를 땅아주며 이런 옛말을 들려 주었었다.

<옛날에 한 착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지갑을 하나 얻었다. 주인을 찾아 주려 해도 제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돈지갑을 열어 보았지. 돈지갑에는 엽전이 딱 한알 들어 있었더라. 주인은 없고 배는 고프고 해서 그 사람은 지갑안의 엽전 한알으로 떡을 한그릇 사먹었다. 그러니 이제는 빈 지갑만 남았지. 그런데 얼마후에 돈지갑을 만져 보니 글썽 엽전 한알이 또 들어 있더라. 아니냐?...그건 한알 꺼내 쓰면 한알 생기구 또 꺼내 쓰면 또 생겨 나는 신기한 돈지갑이었던다...》

옛말은 끝나고 할머니는 부엌으로 동자질하러 나갔으나 나는 조고만 두손에 떡을 올려 놓고 창가에 앉아 끝없이 출렁이는 파란 바다를 내다보며 골똘히 생각하였다.

(나도 그런 신기한 돈지갑을 하나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그런 지갑이라면 한창 땀시 부리기 시작한 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으면...)

어쩔수없이 소설의 세계로 끌려 든것이다. 제목이 글렀소 어쨌소 하던 생각은 까맣게 잊고서...

시작이 참 좋다는 느낌, 만시름을 잊고 동화의 세계로 들어 서는듯 한 차분한 감각, 뭐니뭐니 해도 소설은 시작이 좋아야 하리라는 자기 각성.

장편소설이든 수필이든 평론이든 읽으라고 쓰는 글일진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먼저 독자들의 눈길을 끌어다 놓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다.

독자한테는 나의 소설을, 또 나의 평론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독자는 성미가 급하여 첫장을 읽다가도 시원치 않으면 작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작가가 삼년석달을 공들여 그 소설을 썼다는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탁 덮어 버린다.

꼭 참고 한페이지만 더 읽게 되면 《하, 이 좋은 소설을 영영 덮어 버릴번 했군.》 하는 경우도 드문한것이어서 독자가 그런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첫 시작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마치 《마술》이나 부러듯 제목부터 바로 보이지 않던 이 시비군을 자기의 이야기속으로 끌어 들인 작가의 솜씨를 인정하지 않을수가 없다.

나는 서둘러 소설의 장수부터 세여 본다. 다섯장만, 11페이지이다. 퍼그나 긴 소설인데 끝까지 처음처럼 읽어 낼가, 그 다음 문장,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갔다. 반세기라는 세월이…

그 옛말을 듣던 때로부터 10년후 나는 귀국의 배길에 올라 조국으로 왔고 다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은 할머니가 되었다.…”

유혹하듯 나를 자기의 이야기속에 슬쩍 끌어다 놓고는 이제는 빠져 나가지 못하게 그 《유혹》의 고삐를 땅에 박힌 생활이라는 말뚝에다 붙들어 매고 있는 작가를 본다. 거짓말도 진짜처럼 그럴듯하게 꾸며 내는 동화작가가 아니라 땅에다 발을 붙이고 선 소설가들…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소설을 다시 읽기 시작한다.

읽는 사람에게 숨 쉴 틈을 주고 있는 작가의 여유 있는 자세, 나이도 있는 작가이니 독자를 끝까지 이끌어 가리라는 믿음에서 오는 안정감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 읽은 그의 소설들이 그것을 보증해나선다.

소설의 앞부분에서 작가는 애뜻한 마음으로 33년전에 있는 자기의 신혼생활에 대한 회고를 한다. 시집을 와서 첫 일요일에 있었던 일을…

갓 시집 온 새색시는 남편이 혼자 살던 방을 쓸고 닦고, 가구배치도 새로 하고 온통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여 《이 방에도 너주인이 생겼》음을 알린다.

《아, 이제 내가 살던 방이 맞긴 맞소? <남자냄새>라곤 재털이밖에 남지 않았구만!》

옷장서랍을 정리하다 명주천으로 싸놓은 돈지갑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나는 채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돈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시할아버님은 근 한세기가 지난 오늘 자신이 남긴 그 돈지갑이야기로 손자며느리가 소설을 쓰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하시였을가.…”

풀지 못하게 고삐를 든든히 붙들어 매면서 작가가 독자에게 보내오는 여유작작한 미소이다.

이제는 영치를 든든히 붙이고 마음을 녹차히고 읽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남편과 시부모들에 대해 쓰고 있다는것에 우선 믿음이 간다.

(물론 지어 낸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아니, 이전에 쓴 그의 소설들에서도 독자는 주인공들속에 선 작가자신을 보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또다시 《이거 정말 계급교양의 글들에서 자주 나오는 짚신이나 배짱병이에 대한 이야기 비슷한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품는다.

《…경상남도 상주사람인 나의 시할아버지는 일찍 상처한후 외아들인 시아버지를 공부시켜 불가하여 일본으로 건너 갔다.》

《합바집은 일본인 과부가 운영했다.

이 너주인은 눈꼬리가 축 처진데다가 두볼이 늘어 저 보기만 하여도 심술이 넘실넘실하였다. 로동자들속에서는 <부르독크>라는 별명으로 불리웠다.》

《너주인은 꺾하면 일손이 굵프다고 욕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눈치가 무딘 주제에 일본에까지 공부하러 와?! 와세다대학에라도 가보지 뭐?>라고 비꼬군 하였다.》

《<그따위년의 말은 흘러 버려라. 내가 이제 너를 그년 말하는 와세다대학에 꼭 보내지 않나 봐라.>

합바집에서는 조선인로동자들은 물론 일본인로동자들도 항상 조선바지저고리를 입고 호기있게 다니는 시할아버지를 은근한 경이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었으니 허리춤에 무명천으로 만든 돈주머니를 언제나 덜렁덜렁 매달고 다니는것이였다. 모두 같은 로동자들이라 그 돈주머니가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눈물겹게 보이기도 하였다.

시할아버지에게는 <무명돈주머니>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눈꼬리가 축 처진데다가 두볼이 늘어 저 보기만 하여도 심술이 넘실넘실》한 합바집 주인년의

물결이 선히 보인다.

또 조선바지저고리에 돈지갑을 매달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너를 그년 말하는 와세다대학에 꼭 보내지 않나 봐라!》하고 호기를 부리는 《무명돈주머니》령감의 모습도 방불하다.

한두줄의 초상묘사와 두서너마디의 생활적인 대사로써 작가는 살아 움직이는 자기의 주인공들을 독자들앞에 내세워 준다.

로인은 아직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한 어린 아들을 기어이 《와세다대학》에까지 보내려고 जु기던 담배마저 끊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고 그렇게 1년나마 모으다 보니 돈주머니는 약간이나마 배가 나》왔다.

학습장을 사러 상점에 갔던 로인이 돈주머니를 몽텅 잘리우고 들어 왔다.

《…맥없이 함바집에 들어 섰을 때 돈주머니가 없어 진것을 제일 먼저 알아 본것이 <부르독> 너 주인이었다. 아마 그 돈주머니에 제일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었다.

<아니 긴상, 돈, 돈주머니가 어데 갔소?! 아, 혹시 마음 드는 너차라도 생긴게 아니요? 아들 공부와 너차를 바꿨소?>

(흥, 네년도 나를 놀리는구나. 하긴 네년도 똑같은 도적놈종자지.)…》

로인은 다시 밤색돈지갑을 하나 사서 이번엔 복대속에 깊숙이 감추고 다닌다.

《…제 나라도 눈을 번히 뜨고 빼앗긴 바보가 돈주머니인들 왜 떼우지 않겠나. …》하며.

(참 멋들어 진 령감인걸, 성격이 좋거든.)

나는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흥흥 코소리를 낸다.

돈주머니를 하나 몽텅 잘리우고도 여전히 맥을 놓지 않고 호기를 부리는 로인, 어찌다 술을 한잔 마시면 《리완용 이놈!》하고 술상을 팡 내려치며 호통도 빼고… 그런데 일하러 갔다 오겠하던 로인이 차에 치운다.

운명직전 로인은 눈물범벅이 된 아들에게 돈지갑을 꺼내주며 《…그득 채워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하며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다.

《…그득 채워 너에게 주려고 했는데…》

가슴을 쿵 찌르는 이 한마디의 대사속에서 독자는 로인의 한생을 보며 로인 한사람만이 아닌 광복전 제일조선인들의 피 맺힌 역사를 본다.

생활적이면서도 작가의 깊은 사색이 집약된 이런 대사에 맞다 들리면 나는 잠시 읽던것을 멈추고 생각해 본다.

내가 쓰는 소설의 대사에 대해서…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단 한가지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소설의 2, 3, 4절에서 작가는 이국땅에서 고아로 된 주인공 성락이의 간고한 생활과 간포대치진, 조국광복과 그후 총련현본부위원장으로서의 주인공의 헌신적인 애국사업, 자녀들의 귀국, 칠순에 이르러 자식들결으로 와서 보내는 주인공의 행복한 여행, 특히 류례가 없는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세자식을 희망대로 공훈설계가, 박사, 부교수, 공훈과학자들로 키워 준 은혜로운 조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조국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집도 생기고 공부도 할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간다.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지만 소설에서 이 말이 주는 여운은 크다.

작가의 뒤편에 대해 생각해 하는 여운이다.

세상이 이미 알고 있는 제일조선인들의 수난사를 이야기하면서도 독자들을 다시 깨우쳐 주고 다시 생각해 하며 새롭게 감동시키고 있는 작가로서의 뒤편에 대한…

비범하고 특이한 인간들이 아니라 늘 자기결에 있는 평범한 귀국공민들과 제일조선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독자는 뚜렷한 뒤편을 안고 있는 작가의 얼굴을 보게 된다.

《…시아버지는 더 나이 들어 파철을 수집할수 없게 되었을 때는 살림집 옆 아동공원에 나가 오랜 시간을 앉아 계시군 하였다.

조국의 푸른 하늘, 옥색 합각지붕이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룬 평양대극장, 줄 지어 늘어 선 살림집들, 경쾌하게 달리는 무궤도전차, 무성한 나무잎새와 꽃으로 단장한 아동공원, 온갖 유희놀이터, 좋아라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것이 시아버지가 보고 또 보아도 싫은줄 몰랐던 조국의 모습이었으리라.

시아버지는 아흔한살이 되던 해에도 지평이를 짊고 나서군 하였다.

시아머니가 걱정스러워서 <당신 또 어디 나가 시러우?>하고 물으면 시아버지는 혼연히 대답하군 했다.

<아동공원에 나갈란다. 내 죽는 날까지 우리 조국을 실컷 바라보고 죽을란다.》

×

…나는 지금 돈지갑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은 옛말을 생각해 본다. …

나도 그런 신기한 돈지갑을 하나 얻었으면 하던 어린시절의 꿈.

허나 돌이켜 보면 40년전 귀국의 배길에 몸을 실었을 때 벌써 나의 그 꿈은 실현된것이 아니었던가.

만약 나의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나는 어린 시절처럼 소곤소곤 말하였을것이다.

<할머니, 나에게는 지금 옛말보다 더 신기한 돈지갑이 있어요. 아무리 써도 마를줄 모르고 소원한것은 모두 성취시켜 주는 그런...>》

연주는 끝났으나 좋은 음악이 서리서리 남겨 놓은 여운으로 하여 일어 날 생각을 잊고 잊는 관객의 심정으로 소설의 마감장을 덮는다.

마음이 따스해 진다.

목소리는 높지 않아도 거기에 부딪친 심장은 절절하게 속삭인다.

조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더 사랑하라고...

작품의 우열에 대한것은 그후에 생각한다.

처녀시절부터 할머니로 된 오늘까지 작가로서의 한생을 바쳐 조국을 노래하는 작가,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따스하고 다정하며 소박하고 거짓이 없어 좋다.

강귀미의 소설들마다에 단즙처럼 배고 그윽하고 따스한 향기로 풍기는 조국에-그것은 작가 자신의 체취이고 체온이며 숨결이다. 쉽사리 다른 작가들과 갈라 보게 하는 그의 얼굴이기도 하다. 소설의 첫장부터 친근감과 기대를 가지고 펼치게 되는것은 이때문이다.

이상에서 나는 깊이 생각을 정리해 볼새가 없 이 소설의 폐지폐지를 넘기면서 그시그시의 즉흥적인 느낌을 적어 보았다.

그후 도안의 작가들과 이 소설에 대해 나눈 의견을 몇줄 더 적는다.

시인 전승일

《새해공동사설이 나오기전에 쓴 소설이긴 하지만 독자들의 손에는 잡지가 1월 초에 들어 갔으니 마침 4대제일주의사상을 받들고 쓴감이 나서 더욱 좋구만. 시대적인 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반응한 좋은 소설이요.》

소설가 리극

《강귀미작가의 돈지갑안에 무려 3대에 걸치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력사가 담겼거든.

단편다운 체취를 가지고... 하긴 좀 무리한감이 들긴 하지만...》

소설가 강일주

《웁소, 내 생각엔 그 돈지갑의 차크를 채우지 못했을것만 같소. 너무 배가 불러서...》

《그 지갑은 차크라는 발명품이 나오기 이전의 것 이라고.》

《그럼 단추라도 있겠지. 끈이라도 있겠고... 끈도 없는가? 그렇다면 작가가 달아야 하오.

간포대지진,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이야기, 총련현본부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집까지 팔아서 동포교육사업에 헌신하는 이야기 등

작가가 너무 마음을 놓고 쓴감이 있소.》

《웁은 말이요. 읽는 사람이 마음을 놓게 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은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건데...》(소설가 리희남)

《모두 필요한 이야기들이긴 하오. 하지만 주인공의 개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방향에서 대담하게 함축을 하고 주패장을 간추리듯 네귀가 반듯하게 쳐서 지갑안에 쑥 넣고 차크를 채웠으면 그 돈지갑이 얼마나 맵시가 있겠소. 단추라도 말이요.》(소설가 리명)

《돈지갑은 단추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불룩해 더 좋구요.》(부원 리영일)

《하긴 그래.》

군데군데 작가가 더 사색을 깊이 하고 썼으면 하는 이야기도 몇마디 오고 갔다.

실례로

《조국의 푸른 하늘, 룡색 합각지붕이 예술적으로 조화를 이룬 평양대극장, 경쾌하게 달리는 무궤도전차, ...무성한 나무잎새와 꽃으로 단장한 아동공원, 온갖 유희놀이터, 좋아라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것이 시아버지가 보고 또 보아도 싫은줄 몰랐던 조국의 모습이었으리라.》 하는 묘사이다.

푸른 하늘, 극장, 경쾌하게 달리는 무궤도전차, 유희장, 좋아라고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이런것들은 우리 나라에만 있는것이 아니다라는 시인 정동찬의 의견에 모두가 공감했다.

《<시아버지가 보고 또 보아도 싫은줄 몰랐던 조국의 모습>을 읽는 사람들도 흡족하도록,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길수 있도록 썼어야 했소.

작가가 지금까지 축적해 오던 감정을 터뜨리는 소설의 절정부분이여서 더 그러하오. 아쉽거든.》

어쨌든 이런 논의가 있기전, 이 소설을 처음 읽고 났을 때 나는 선생노릇을 하는 큰딸과 유치원교양원을 하는 둘째딸한테 어서 읽게 하여 자기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우리 제도제일주의 사상이 가득 찬 이 신기한 《돈지갑》을 열어 보이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안해도 이 소설을 읽으면 긴긴 겨울밤을 지루해하는 동리 로친들한테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것 이라고...

내 조국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 지는 소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천만자루의 총검을 대신할 그런 소설을 나도 어서 써야 하리라는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강귀미의 더 좋은 새 소설을 기다린다.

-청진에서-

나는 협동벌사람이다

리진협

포전길

처녀총각 그때처럼 웃으며
안해와 나란히 걷는 포전길입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수줍음 타던
그때의 그 모습은 세월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헐치 않습니다 함께 웃으며 나란히
이렇게 포전길 걷는다는것은
한포기 감자밭에도 우리 땀이 깃들고
한줌 벼알도 총알처럼 무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못 다한 일을 놓고 부끄럼 타는
그것만은 몸에서 씻지 못한 부부입니다
그럴 때면 나란히 서도 불편을 느끼고
실련을 당한듯 마주 보지도 못한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웃으며 함께 걷는 포전길
믿으십시오! 우리 부부가 흘린 그 땀을!
벌에 살면서 가을앞에 부끄러우면
우린 오래오래 마주 보지도 못한답니다

불이 났네

불이 났네 불이 났지
복닥대며 엿서 돌며
북방의 《가을》과 봄이
몸 따갑게 비벼 치네

이제는 제 자리 내라는듯
감자수확 끝나는 차례차례
감새 마른 흙밭새로
어슬렁 어슬렁 봄물은 기여 들고

쫓기기에 숨 가쁘다면서도
제 자리 걸음 놓는 감자수확기
썰레질 트랙트르는 우동통
한바탕 욕설이나 퍼붓는듯

불이 났네 불이 나
감자에 모춤이 가느라 오느라

《승리》호 《충성》호 적재함마다
가을을 실어 가느라 봄을 실어 오느라

하! 아직도 한창인 감자가을
그것 아니면 이리 바쁘랴 봄이
모내는기계는 껍싼 모손으로
이거사 굵뜨다 길을 내라는데

그래도 배심 만만히
우람찬 몸체를 흔들씩
감자수확기는 땅밑에서 퍼담아 쏟는다
달 뜨는 저녁까지 감자폭포만!

모 내는 봄아 탓하지 말아
《굵뜨게》 가는 이 감자가을
온벌에 불을 단 실속 있는 그 걸음 있어
더 높이 더 빨리 달리는거다 우리 조국이

실참의 속사

선 보이자고 하면 호호...
그것이 대답이던 처녀
오늘은 방긋이 그 입술 열리네
-어찌나 아직 전
시집 갈 차비 못됐는걸요

기다렸다는듯
몰방으로 터진다
한차례 그 시까스름
누구는 분조농사 통채로 가져 가라 하고
누구는 제 집 염소 고삐 벌써 《끓어》 주고

분조장도 그만 못 배겨
속구구 계산에 열손가락 모자란데
문득 《정색》해 진 처녀의 목소리
핑! 활시위 된 공간을 조용조용 흔드네

-전 말이지요
이 땅이 통채로 쌀함박되어
동해 출렁 서해 출렁 쌀을 일 때
강성대국 큰 집으로 시집 간답니다 호호!...

나는 협동벌사람이다

나는 이 봄에
가을을 안아 보는 벌의 사람
풍요한 벌바람 벌써 쏘이며
어디 가나 웃을수 있는 벌의 주인

건듯 코를 높인 추녀아래
어느 집 문을 열어도 부끄럽지 않으리니
당당히 말할수 있어라
나는 벌을 가꾸는 전야의 사람이다

러행길의 대합실과 출표구
명승관광의 답사길에 선대도
부러움의 눈길을 온몸에 모으며
나는 내 자리를 땀땀이 향유할수 있고

어느 락아소, 유치원에 들어 서도
반기는 아이들 마음껏 안아 줄수 있어라
료양소, 휴양소 떠나는 이들에게도
잘 다녀 오라 어디서든 손 저어 줄수 있어라

끝없이 축복할수 있어라
우리 병사들의 벌어 진 어깨
그우에 번쩍이는 총창의 서리발
그것으로 굵이쳐 갈 선군시대의 승리머

어디에 계실가 우리 장군님
그리움에 불 타는 눈시울 적시며
나의 축원은 이 벌을 지나
전선길 굵이굽이 따라 설수 있나니

행복하다
이 봄날에 가을을 마중하는 나는 농민
세찬 들바람에 얼굴 터갈리어도
이 행복에 한껏 웃는 벌의 미남아

아 눈속에서도 비속에서도
풍요한 가을만을 안아 오리니
가을은 가을마다 이 땅이 웃음으로
한껏 무거워 지리
나는 그 행복을 가꾸는 협동벌사람이다!

상식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주체76(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쓰인 이후 경제의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지구환경과 자원을 보호하며 환경보호를 매개 나라의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무대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은 인간에게 풍부한 물질적부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지구환경을 대규모적으로 파괴하였다.

인간은 옛날부터 자연으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고 그것을 리용하며 그 과정에 나오는 폐기물을 자연계에 다시 버리는 방

법으로 경제활동을 벌려 왔다. 결과 자연이 심히 파괴되고 오염되었다. 화석연료, 광물자원과 같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에 의해 인류가 위기에 빠질뿐아니라 산림, 수산자원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도 열대림을 기본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파괴, 지구의 사막화, 어업자원의 고갈 등으로 황폐화될 위기에 처하여 있다.

그리하여 환경자원이 이 이상 더 파괴되면 인류의 존재와 발전 그자체가 지속될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지배하게 되었으며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문제와 밀접히 결부되게 되었다.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장래의 수요를 내다보고 지구환

경과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여야 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는 미래의 세대가 자기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조건을 보존하면서 현 세대의 수요도 보장하도록 자원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목표로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심을 높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은 오늘 지구환경파괴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외면과 실지 행동에 옮기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빈 말로 하여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로메달

김리돈

1

추석이라 계절은 역시 속일수 없는상 싶었다. 푸르청청하던 나무가지들에는 어느새 떡잎이 드문드문 섞이고 서늘로운 바람이 들크무레한 산열매향기를 실어 왔다. 머루가 까맣게 익고 찹쌀이 가 빨강게 불 붙는 계절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묘소에 이르자 낫을 들고 벌초부터 시작하였다. 날씨가 가물었던탓인지 낫질에 먼지가 뽀얗게 떠올랐다.

내가 옷동을 벗어 불이고 황이 들기 시작하는 잔디며 속새풀들을 눕혀 나가는데 누님이 조카애를 앞세우고 올라 왔다.

《삼촌...》

올해 다섯살에 잡히는 순아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쫄르르 달려 왔다.

《순아가 컸구나.》

조카애를 버쩍 안아 올린 나는 그 애의 오동통한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일찍 올라 왔구나.》

누님은 몹시 반가와 했다. 내가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 청년돌격대에 간간후로는 처음이었다.

워낙 친동기간이라고는 저와 나뿐이어서 그런지 나에게 끄찍이 정을 쏟는 누님이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누님의 말이 어머니는 집에 들린 자기와 함께 오다가 친지를 만났는데 인차 올라 올것이라고 했다.

순아는 이것저것 물어 보기도 하고 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고해 바치기도 하면서 끝없이 재잘거렸다.

《그래 어머냐. 돌격대생활이?...》

누님은 입을 내려 놓고 다가와서 내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이제 일 없어요.》

나는 돌격대생활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누님은 시시콜콜이 물었다. 몇시간 자고 몇시간 일하느냐, 무슨 밥을 먹으며 배는 고르지 않느냐, 지어는 빨래를 제 손으로 해입느냐 하는것에 이르기까지 알고 싶어 했다.

《힘은 들겠지만 일을 잘해라. 어머닌 노상 네 걱정뿐이란다.》

모름지기 나를 두고 어머니와 누님사이에 말이 오고 간 모양이었다.

《빠와 살을 아끼면 싸움에서 이길수 없다는 말도 있지만 무슨 일이든지 몸을 적시면 못해 낼일이 없단다. 네가 어련하겠냐만...》

누님의 정찬 목소리는 그대로 가슴에 차분히

젖어 들었다.

《춘기야, 어머니가 요즘도 공사장에 나오곤 하시니?》

나는 어리둥절하며 어머니가 언제 공사장에 나왔던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누님은 어머니가 해진 장갑이랑 어깨받치개랑 걸어 모아다가 빨아서 기워 가지고 공사장에 나갔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

나는 기계적으로 낫질을 하며 어머니가 기웠을 어깨받치개를 되새겨 보았다.

《너두 이 다음에 자식을 두면 알게 될게다. 사람은 자식을 두지 않는 동안은 어머니의 마음을 절반두 모른다구 했단다.》

누님은 옷사람다운 말투로 타일렸다.

벌초가 끝나자 우리는 잔디가 잘 살지 않은 봉분의 곳곳에 잔디를 떠다심고 메워 진 물궂도 손질했다. 그러느라니 벗어 놓은 내 옷에 먼지가 뿌영게 앉았다.

물궂에서 잔돌을 주어 내던 누님이 먼지가 오른 내 잠바옷을 집어 들고 활활 털었다. 그런 다음 옷을 잔솔포기우에 얹어 놓으려던 누님은 어째서인지 옷을 든채 내앞으로 다가왔다. 누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한껏 어려 있었다.

나는 의문이 실린 눈으로 누님을 쳐다보며 엉거주춤하니 허리를 폈다.

《수고했다. 얼마전에 중간총화를 했다더니 그때 받은거로구나!》

누님은 뒤집어서 든 잠바옷의 속주머니에 달려있는 공로메달을 내려다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나는 누님이 그 공로메달을 내가 탄것으로 알고 있다는것을 눈치챘다. 해빛을 받은 공로메달이 반사하는 빛이 가시처럼 나의 눈을 찔렀다. 순간 내 얼굴은 단박 화끈 달아 올랐다. 그처럼 계면쩍기는 난생 처음이였다. 도대체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는지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이걸 보면 무척 기뻐 할게다.》

누님은 버젓하니 곁에 달고 오지 왜 속에 달고 있느냐고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누님 사실 그건...》

내가 몇번이나 누님의 말허리를 꺾으며 그 공로메달은 내것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누님은 애당초 귀담아 듣지 않았다.

사실 그 공로메달은 내가 탄것이 아니였다.

2

그럴만 한 일이 있었다.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에서는 추석날 거의 모든 대원들이 조상묘를 찾아 보러 간다. 대동강으로 천렵놀이를 간다 하며 떠나갔지만 나는 아무데도 끼이지 못하였다. 나에게도 찾아 보아야 할 아버지의 묘가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울적한 마음으로 빈 집같이 고요가 깃든 천막에 구겨 박혀 있었다. 성묘하러 갈수가 없었던것이다. 마음속에 가책이 무겁게 실려 있었기때문이다.

한달전 일이었다. 성토작업이 시작되면서 그만 일에 지친 나는 맥을 놓기 시작했다. 외아들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나는 한편 어머니가 그리워 졌다. 공사장에서 한시간만 걸으면 집에 들어 설수 있었다.

어머니는 비 맞은 수팔풀이 되어 불쑥 나타난 나를 반겨 맞으면서도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낚새를 보다가 어머니에게 내대신 돌격대에 나가겠다는 동무가 있어서 그만 들어 오고 말아야겠다는 말을 비쳤다.

어머니는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만한 곤난도 견디어 내지 못하면 사람구실을 못한다고 엄하게 타일었다.

나는 고개를 접고 아무말도 못했다. 사실 직종을 바꾸어 주지 않는다고 직장장과 다툼질을 하고 결집에 여기 물길공사장천막에 배낭을 풀어 놓은 나는 든든한 마음의 준비가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일이 여간만 힘들지 않고 먹는것으로부터 잠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난관을 이겨 내야 하는 돌격대생활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다.

《시련은 마음속에서부터 이겨 내야 한다. 힘은 마음속에 있지 팔다리에 있는것이 아니야. 이제 부터라도 채심해라.》

어머니는 이렇게 오금을 박으며 그날 밤중으로 나를 돌려 세웠다.

전 같으면 설복도 해보고 때도 써볼것이였지만 어머니는 그럴 여지를 남겨 놓지 않았다. 야속하다고 하리만큼 오지부동이었다.

《돌격대생활에 정을 붙이기전에는 이번 추석에 두 오지 말아!》

아버지의 묘앞에 뿔뿔한 자세로 서기를 바라는 어머니였다. 나는 어머니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삭이지는 못했다.

나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이 전에 없이 모질어 졌다고밖에는 달리 생각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분부대로 돌아 섰다. 가슴속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고까운 생각이 자주 머리를 들곤 하였다.

그런 형편에서 돌격대생활에 아직 정을 붙이지 못한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묘소를 찾을수 있겠는가. 그래서 천막에 남은 나였다...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침대우에서 덩굴던 나는 싱숭생숭한 마음을 털어 버릴 심산으로 빨래감들을 궁겨 들고 빨래터로 나갔다. 게으른 사람 명절날 일한다는 말이 옳은것 같았다. 오래동안 묶여 두었기때문에 추석날이라고 해서 오늘까지 빨래하지 않았다가는 당장 갈아 입을 옷이 없을 형편이었다.

《춘기동무, 정말 산소에 안 가겠소?》

느닷없이 날아 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중대장이 천막앞에 버티고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중대장은 아버지산소가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왜 가지 않으려고 하는가 따졌으나 나는 다른 사정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대꾸했을뿐이었다. 그러나 구구한 변명에 넘어 갈 준대장이 아니었다.

《왜 그래, 전번에 집에 갔을 때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데 아니요?》

중대장이 넘겨 짚었으나 나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안 가면 어머니가 걱정할거요...》

중대장의 말이 옳았다. 사실 나도 어머니가 돌격대생활에 정을 붙이기전에는 추석에 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가지 않으면 몹시 섭섭해 하리란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성나면 보리방아 더 잘 쥘는다더니 나는 그 누구에게 행풀이라도 하듯 빨래방치를 휘둘러 댔다.

중대장은 묘 보러 가지 않겠으면 빨래를 빨리 끝내고 중대부로 오라고 이른 다음 천막으로 들어갔다. 급한 일감이라도 생긴 모양이었다.

아닐세라 긴급 작업지령이 떨어 졌다고 했다. 어제밤 중원에 가서 세멘트를 싣고 오던 자동차가 미끄러운 길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였다. 대기시켜 놓은 자동차를 타고 가서 세멘트를 옮겨 싣고 와야 했다. 천막에 남아 있는 대원이라고는 나까지 4명뿐이었다. 마음이 울적한데 추석날 세멘트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어이 없었다. 나는 옷가지들을 죄다 빨아서 입고 갈 옷이 없다고 뻔칠가 하다가 군말없이 적재함에 오르고 말았다.

중대장이 운전칸에 오르자 자동차는 출발했다.

누렇게 늙실대는 들판을 가로 지른 자동차는 수삼나무들이 키를 솟구는 나지막한 등성이에 올랐다. 울적하던 기분이 차츰 가서 지는것 같았다. 가을날씨치고는 류달리 따스한 해벌이 아지랑이라도 피워 올릴상 싶었다. 등성이를 내려 서니 앞에 갈림길에 나타났다. 중원으로 가려면 곧추 가야 하는데 자동차는 왼쪽길로 들어 섰다.

이 길로 가면 10리나 도는데 왜 이쪽으로 가는 것일까?...

나의 이런 의문은 자동차가 달마산이 올방차를 틀고 앉은 골짜기에서 급정거를 한후에야 풀렸다.

달마산중턱에는 아버지의 묘가 있었다.

운전칸문이 벌럭 열리면서 중대장이 발판에 한 발을 내짚고 적재함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춘기동무, 어서 내리라우.》

《?...》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눈만 끄벅거렸다.

《동문 오늘 여기서 개별임무를 수행해야 돼.》

중대장의 목소리는 길지 않았으나 어딘지 모르게 살뜰한 정이 배여 돌아왔다.

그제야 나는 얼핏 짐작이 갔다. 하지만 모른척하고 무슨 임무냐고 물었다.

《아버지묘를 찾아 보고 3시간후에 이 자리에서 기다릴것. 복창.》

진짜 엉큼한 중대장이었다. 움짹달짝할수가 없게 되었다. 자동차가 나때문에 10리나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몽클했다.

《이런 꼴을 하구야 어떻게?...》

몸을 훑어 보며 내가 난처해 하자 중대장은 입고 있던 자기의 잠바옷을 벗더니 던져 주었다.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니까 뭘 좀 마련해 가지고 올라 가라고 일렀다.

눈뿌리가 화끈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나는 추석날에도 일을 시킨다고 중대장을 인정사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어이없어 하지 않았던가.

자동차가 꼬리를 감춘 다음에야 나는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며 중대장의 옷을 살펴 보았다. 속주머니에 전번 중간총화때 받은 공로메달이 달려 있었다.

그런데 글썽 의외치 않게 보았던 중대장의 그 공로메달이 나를 곤경에 빠뜨린 것이었다.

3

어머니가 올라 온것은 얼마후였다.

어머니는 돌격대생활에 정을 붙이기전에는 추석에도 오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어제밤부터 나를 기다렸다고 했다. 물길공사장에 나온 나보다 더 마음 쓰는 어머니였다.

나는 어머니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럴수록 어머니는 내 거동을 주의 깊게 살피며 윈심을 썼다. 전에 없이 반가와 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접하자 나는 철없이 엇드레질을 한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정말 잘 왔다.》

어머니는 상석에 챙겨 가지고 온 음식들을 올려놓으며 내 얼굴을 훑어 지게 들여다 보곤 하였다. 얼굴이 몹시 축가 보이는 모양이었다.

했으나 어머니의 말은 달랐다.

《생각했던것보다는 얼굴이 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은것 같았으나 마음속에는 물기가 고여 오를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슬그머니 어머니의 얼굴에 눈길을 박았다.

흰서리는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였다. 언제나 떠돌곤 하던 어머니의 미소가 나때문에 주름속으로 자취를 감춘것 같이만 생각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물길공사장에 나가는 했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체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였다.

늙으면 추억속에 산다고 하는데 서글픈 추억이 아니라 기쁜 추억을 안고 살도록 해야 할것이 아닌가.

한줄기 불어 오는 바람이 상석우에 깔아 놓은 하얀 종이를 가볍게 날렸다.

나는 잔솔포기우에 엮어 놓은 잠바옷을 끄당겨 입으며 상석앞으로 다가섰다.

《어머니, 저걸 좀 보세요. 멋 있지요!》

상석을 살피던 누님이 내 가슴을 손짓하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였다.

《영? 공로메달이로구나. 어디보자...》

무엇이 빠진것이 없나 하고 상석을 살며 보던 어머니는 꺼꺼부정했던 허리를 폈다.

나도 그때에야 비로소 내 가슴을 내려다 보고 와뜰 놀랐다. 누님이 속에 달았던 공로메달을 어드새 곁에 달아 놓았기때문이었다.

이걸 어쩌면 종단 말인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글거리는 난로라도 뒤집어 쓴것 같았다.

그렇다고 아니라고 할수도 없으니 이런 진퇴양난이 또 어디에 있을가 싶었다. 아닌게 아니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 갈것만 같았다.

내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속을 태우고 있는데 어머니의 희열에 넘친 목소리가 가슴을 후비였다.

《수고했구나. 정말 수고했어.》

어머니의 얼굴이 확 피어 났다.

공로메달을 떼야 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을 하며 가슴으로 가져 가던 내 손이 얼핏 굳어 졌다.

내앞으로 다가와서 가슴에 달려 있는 공로메달을 무슨 희한한 보물을 만지듯 앞면과 뒤면을 몇번이나 뒤집어 보기도 하고 쓸어 보기도 하는 어머니는 노상 기뻐 어쩔줄 몰랐다. 주름이 펴이면서 그속에 갇아 들었던 미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듯 웃음이 눈언저리와 입언저리사이를 춤추듯 오르내렸다.

어머니가 즐거워 하는것은 더할나위 없이 좋았지만 내 마음은 멍이 든것처럼 무죽했다. 나를 위해서라면 소갈데 말갈데 다 다니며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한 어머니와 같이 기뻐 할수 없다는것은 나에게 있어서 더없이 죄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어루쓰다들던 공로메달을 내 가슴에 꼭 눌러 대었을 때 하마트면 비명이라도 지

를 번 했다.

《장하다, 자식들의 자랑이자 부모들의 기쁨이란다. 그게 락이지.》

어머니는 여태 끼고 있던 근심걱정을 모조리 털어 버린듯 행복에 넘쳐 있었다.

나는 속으로 내 공로메달이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정했지만 그 목소리는 목구멍을 넘어 서지 못하고 가슴 밑바닥에 잦아 들고 말았다. 오래간만에 보는 어머니의 기쁨을 차마 가라 앉힐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글썽 곁에 달지 않고 속에 달구 오지 않았겠어요.》

누님은 훈장가운데서 제일 낮은것을 받았기때문에 내가 먼구스러워 한다고 느꼈던지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돌아 보았다.

어머니는 표창을 받을만 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창을 받을만 한 준비를 갖추었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제인가 아버지 첫 공로메달이 제일 높은 훈장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했가지요?》

누님은 술병의 마개를 따서 나에게 넘겨 주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랬단다. 네 아버지두 처음 공로메달은 탔을땐 그랬지.》

그때를 더듬어 보듯 어머니는 빙빙 원을 그리며 술개미를 쳐다보았다.

《삼촌, 나무...》

순아가 발돋움을 하며 손을 쳐들자 웅색하기이름에 없던 나는 조카를 불안아 올렸다. 그애는 머루알 같은 눈알을 굴리며 공로메달을 만지작거렸다. 순아의 꾸밈 없는 동심앞에서 나는 못매질을 당하는 심정이였다. 게다가 누님이 순아에게 너두 이 다음에 커서 삼촌처럼 이런 훈장을 타야 한다고 이르자 나는 사람구실을 하라고 면박을 당하는것보다 더 뼈근했다.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곤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수치감으로 가슴은 터질것만 같았다.

《어머니!》

안타까운 감정을 어디다 대고 하소할 곳이 없어 부르기는 하였으나 어찌자고 불렀는지는 나도 딱히 알아 차리지 못했다. 무엇인가 사리를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을 열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고작이였다.

나는 끝내 속마음을 터놓지 못했다.

제가 끝나자 우리는 묘 한옆에 차려 가지고 온 음식들을 퍼놓고 둘러 앉았다.

어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겨 다시금 공로메달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네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나보다 더 기뻐했을게다.》

이렇게 말한 어머니는 술을 한잔 부어 내 앞으

로 내밀었다.

《아버지가 부어 주는 술인줄 알고 마셔라.》

나는 조심히 술잔을 받았다. 투명한 액체가 남실거렸다. 어머니의 진심과 소원이 담긴 술잔에는 아버지의 뜻도 비껴 있었다.

《어머니!》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어서 마시구 어머니에게두 한잔 부어 올리려무나.》

내 생각에 움해 있다가 누님이 텅겨 주어서야 나는 어머니에게 술을 부어 드렸다.

오늘은 기쁜김에 한잔 마시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술잔을 입에 대자 순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앵두 같은 살이 볼록볼록 도드라진 앙증한 손바닥을 짹짹 마주쳤다. 아마 할머니가 술 마시는것을 처음 보는 모양이였다.

알락달락한 잠자리 한마리가 상돌끄트머리에 앉아서 대가리를 가웃거렸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땀이 내뻐 이마를 식혀 주었다.

이윽고 요기도 끝나고 어머니와 조카애는 먼저 자리를 떴다.

누님과 나는 내려 가기에 앞서 묘 주위를 다시 한번 돌아 보았다. 얼마후 누님이 이제는 내려가자고 재촉했으나 나는 선뜻 발길을 떼지 못했다.

참말 이대로는 아버지의 묘앞을 떠날수 없었다.

나는 상들앞에서 누님과 마주 섰다.

《왜 그러니?...》

나의 거동이 심상치 않아 보였던지 누님도 의심스러운 눈길로 나를 마주 바라보았다.

나는 점도록 고개를 틀고 섰다가 내 가슴에 달려 있는 공로메달을 뻗었다.

《누님, 사실은 이 공로메달이 내것이 아니예요.》 터놓으니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한결 가슴이 후련해 지는것 같았다.

《뭐라구?...》

깜짝 놀란 누님은 대번에 얼굴색이 하얘졌다.

나는 전후사연을 주옥 이야기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 꼼짝달싹하지 않고 서 있던 누님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다.

《내가 그만 실수를 했구나...》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던 누님은 어찌면 좋으나 하는듯 나를 멍하니 올려다 보았다.

《내 당장 어머니에게 빌겠어요.》

아까부터 어머니앞에 토실하고 싶던 나였다.

잠시 아연한 기색으로 앉아 있던 누님은 드디어 일어 서더니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만 뒤라. 그걸 알면 어머니...》

누님도 어쨌으면 좋을지 바이 갈피를 잡을수 없는 모양이였다.

《이런 어이 없는 일이 또 어디 있으니... 그것두

아버지의 묘앞에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님의 말은 내 마음을 사정없이 긁어 내렸다.

아. 나는 불효막심한 놈이다. 어머니의 소박한 소원을 풀어 드리지 못한다다가 돌아 가신 아버지앞에서까지 망심을 거역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는것을 알기만 하면 어머니는 아연실색 할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가슴에는 아픈 상처가 깊숙이 남을것이다. 그러니 이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어머니를 더 괴롭힐것 없이 그 고통을 내가 다 안고 삭여야 한다.

나는 끝내 어머니에게 벌어 진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했다.

4

어머니는 중대장의 공로메달을 내가 탄것으로 알고 더 없이 기뻐 하고 있었다. 나는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는 애오라지 그 한생각뿐이었다. 그런 자각이 없었다면 나는 천막에서 추위를 이겨 내겠다는 생각부터 하지 못했으것이다.

눈보라가 용을 쓰며 천막을 북 두드리듯 했다.

그래도 나에게는 숙소를 옮기는것이 봄이면 날아왔다가 가을이 되면 더운 지방으로 날아 가는 계절조처럼 생각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의 생각은 천막으로만 끌리었다.

대동강의 얼음이 쨍쨍 갈라 터지는 대한추위가 덮쳐 들자 개천-태성호물길공사장 지휘부에서는 천막에서 생활하는 각 중대들에 주변마을로 숙소를 옮기라는 지시를 펴구었다.

찬바람이 코끝을 얼구는 천막에서 새우처럼 꼬부리고 자던 돌격대원들은 파스한 온돌방에서 자게 되었다고 떠들썩 고아대며 짐들을 옮겼다.

하지만 나는 천막을 떠나지 못했다.

우리가 말은 여기 공사구간을 끝내자면 앞으로 서너달은 이 천막에서 지내야 할것이며 천막을 비워 놓으면 후에 소대원들이 고생을 사게 될수 있었다. 불현듯 내 머리에는 사그리져 가는 난로불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숙소를 옮긴다는것을 알고는 누구도 난불을 보지 않았을것이다. 나는 먼저 탄재를 굽어 내고 구멍을 대어섯개 뚫어 놓았다.

이윽고 퍼런 불길이 울리 솟았다.

어느새 난로는 벌겋게 달아 올랐다. 얼어 들었던 몸이 풀리고 성애가 붙었던 천막의 벽에서도 물이 흘러 내리며 김을 뽑아 올렸다.

온몸이 훈훈해 오자 천막에 남아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남아서 이겨 낼수 있다는 생각이 굳어졌다. 춥다고 천막 하나 지켜 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지킬수 있으랴.

나는 숙소를 옮기려고 썼던 짐을 풀어 놓았다.

모름지기 이 순간부터 나에게는 나의 사색구역

이 생긴것 같았다. 나의 중대와 소대, 물길공사와 천막에 날이 갈수록 정이 이끌렸던것이다. 소대와 중대동무들을 위하여, 공사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라면 내 한몸의 어려움은 이겨 내야 한다는 각오가 은연중 생기었다. 아니, 마음만 굳건해 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수 있다는 자부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밤이 이슬했을 때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중대장이 천막으로 들어 섰다. 내가 보이지 않아서 이집 저집 찾아 다니다가 천막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것을 보고 들어 왔다는것이였다.

《뭐라구? 천막을 뜨지 않겠따?... 그게 정말이요?!》

중대장은 내 얼굴에 맞구멍이라도 낼듯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건디여 내겠습니까.》

《동문 정말 괜찮은 친구야.》

중대장은 다짜고짜 나를 끌어 안더니 뜨거운 가슴을 대인채 힘을 주었다.

《동문 벌써 이겨 내구 있소.》

밖에서는 불 맞은 표범처럼 길길이 날뛰는 사나운 눈보라가 천막을 통채로 뚫다 꽃을듯 갈개였다.

그날밤, 나는 중대장에게 그의 공로메달로 하여 아버지의 묘앞에서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을 속 시원히 털어 놓았다.

그날부터 열흘만에 온 중대가 다시 천막으로 돌아 왔다.

천막에서 대한추위를 이겨 낸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눈아래로 보였다. 봄철에 들어서면서 다리공사를 맡아 가지고 마지막 기동공크리트를 칠 때만 놓고 보아도 그랬다.

우리가 기동공크리트치기를 마무리했을 때는 날이 어둑어둑해 오는 저녁무렵이였다. 예정했던 날보다 하루나 앞당긴 우리 소대는 모두 흐뭇한 마음으로 기동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너나없이 기분이 떠서 한담을 나누었다. 나도 여간 기쁘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방금 친 공크리트기동앞에 절벽처럼 서 있는 흙벼랑이 미라하게 생각되었다. 해토무렵이 아닌가.

아닐세라 나는 거기에서 흙이 부실부실 떨어져내리는것을 발견하였다. 기동기초를 파느라고 언덕을 파낼 때 지내 급하게 경사를 지워서 흙벼랑이 되어 버렸던것이다.

눈 여겨 살펴 보니 회수도 찾고 떨어 지는 흙량도 차츰 많아 졌다. 흙벼랑이 무너져 내리기만 하면 채 굳지 않은 공크리트기동이 휘틀을 댄채

안쪽으로 쓸리거나 기울어 질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사이에도 흙은 자주 떨어 져 내렸다. 틀림없이 흙벼랑이 무너져 내릴 징조였다. 종일 파스한 해벌에 김을 피워 올리며 기지개를 켜던 흙벼랑이어서 무너져 내리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흠벼랑이 무너져 내린다고 소리치며 그앞으로 달려 갔다. 내 말을 듣고 식당으로 가던 대원들이 돌아섰다. 창황중에 달려 간 나는 어쩔바를 몰라 하다가 콘크리트기둥과 흠벼랑 사이에 들어 섰다. 흠벼랑을 쳐다보니 무너지는 것은 초를 다투고 있었다. 나는 부질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흠벼랑쪽에 잔등을 돌려 대고 서서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었다. 흠사태를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뒤미처 동무들이 달려 왔다. 그들도 제각각 내 생각을 알아 채고 나의 왼쪽과 오른쪽에 바투 서서 흠벼랑쪽에 잔등을 내뒀다. 서로서로 결사장의 허리를 꼭 부둥켜 안았다. 콘크리트기둥과 흠벼랑 사이에는 삽시에 사람담장이 생겨 났다. 이 담장이 과연 흠사태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인가.

《무너진다.》

누군가 소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기라도 한 듯 흠벼랑이 움짚하며 솟아 올랐던 파도가 떨어 지듯 곤두박혔다. 순간 대원들은 든든하게 《용접을 한철판》이 되었다.

검붉은 흠사태가 우리모두를 덮쳤다. 누구라 할것없이 흠속에 묻혔다. 우리는 두어걸음 드리였지만 이를 악물고 그 이상은 물려 서지 않았다.

1초, 2초, 3초...

견디어야 한다는 애오라지 그 한생각밖에 없었다. 이런 때 노래라도 불렀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미처 그런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차츰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사람이라도 자리를 드리면 터진 동으로 물이 쏠리듯 그리로 흠이 밀려 들것이다.

모두 비지땀을 흘렸다.

《동무들, 5분만 견디자. 5분만.》

누군가 이렇게 소리쳤지만 나는 5초도 견딜 것 같지 못했다.

바로 그때 중대장이 식당에서 식사하던 대원들을 이끌고 달려 왔다.

콘크리트기둥은 무사했다.

그렇지만 서로 꼭 껴안았던 대원들의 허리는 모두 하나같이 퍼렇게 피멍이 졌다.

중대장은 나를 불안고 추켜 올리며 그런 정신이면 화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5

팔마산우로 높이 들린 하늘에서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술개미 한마리가 빙빙 원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처럼 추석날을 기다리던 나는 그때와는 달리 중대장이 꾸려 주는 구력을 들고 걸어서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서느러운 바람이 들크무레한 산열매향기를 날라왔다. 자연은 늙지 않는다더니 올해도 지난해

와 마찬가지로 머루가 까맣게 익고 찹팡이가 빨강게 불 났다.

벌써 어머님과 누님이 올라 와서 묘소를 휘면하니 거두어 놓았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내 얼굴부터 찬찬히 살폈다. 어머니와 누님에게 인사를 하자 순아가 덤석 안겼다.

어머니와 누님이 상석에 제물을 차려 놓기 시작하였다.

나는 순아와 함께 꽃을 꺾어 놓았다.

제사준비가 끝나자 나는 숙주머니에서 공로메달을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조심히 상석우에 올려 놓았다.

《아니, 어찌자구?...》

깜짝 놀란 누님이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며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잘 생각했다. 어서 올려 놓아라.》

어머니는 공로메달이야말로 상돌에 올려 놓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혼연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풍속이나 풍습에 좀 어긋난다고 해도 공로메달을 상돌우에 올려 놓고 싶은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중대장의 공로메달을 달고 량심의 못매질을 당하며 정신적인 고역을 치렀던 나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 공로메달은 내가 수여 받은 것이었다.

훈장수여식이 있는 날 중대장은 내가 자기를 이겨 냈기 때문에 공로메달을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싸움가운데서 자기를 이겨 내기 위한 싸움이 가장 어려운 법인데 내가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었다. 자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사람은 많지만 이긴 사람은 흔치 않다고 한다. 자기를 이긴 사람은 어떤 싸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생활이 가리켜 준 진리이다.

나는 천막에서 추위를 견디며 내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세상에는 공로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아마도 나처럼 기뻐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는 훈장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 지는 공로메달이었다.

《어머니, 저건 작년 것이 아니구...》

모든 것을 제각각 알아 차린 누님이 작년에 달았던 공로메달이 춘기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려 하자 어머니는 자기도 안다고 그의 말을 막았다.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어머니는 작년에 내가 달았던 공로메달이 중대장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가. 또 이번에 내가 받았다는 것도...

나는 지금 이 시각이야말로 어머에게 지난해에 하지 못했던 솔직한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하였다. 죄다 털어 놓고 용서를 빌자.

《어머니, 오늘에 와서야 뭘 숨기겠습니까. 사실 작년에 내가 달았던 그 공로메달은 내 것이 아니

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1년동안
이나 가슴에 묻어 두었던 말을 실토하고 나니 내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
다.

《새삼스럽게 그 말은 왜 하느냐. 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웃음을 머금고 조용히 하는 어머니의 말에 나
도 놀라고 누님도 놀랐다. 어쩌면 그럴수 있단
말인가.

《알고 있었다니요?...》

《지난해 추석날 난 네가 달고 있는 공로메달이
네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있었단다. 아마 중대
장의 것이었겠지...》

어머니는 또 한번 가볍게 웃었다.

나는 아연했다. 누님도 나도 입을 다물고 있었
는데 어떻게 그 내막을 알수 있었던 말인가.

《부모가 아무리 늙고 아는것이 많지 못하다구
해두 자식들의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잘 들여다
본단다.》

어머니는 별치 않게 말했지만 나에게는 마디마

디가 그대로 뇌리에 소중하게 새겨 졌다.

《그럼 그때 왜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더없이 신성해 보였다.

《그때 꾸짖었으면 이번에도 아마 넌 공로메달
을 타지 못했을게다.》

해빛에 반짝이는 공로메달처럼 어머니의 얼굴
에도 미소가 한껏 떠올랐다.

어머니의 말이 정말 옳았다. 그러니 나는 얼마
나 지극한 어머니의 정신적포옹속에서 일하고 있
는가. 털어 놓고 말해서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한
지나 다름 없는 천막에서 대한추위를 이겨 낼수
없었을것이며 쏘아 저 내리는 흠사태를 몸으로
막아 나서지도 못했을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량심의 꺼리낌이 없이 어머니라
고 부를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모의 묘앞에
설 자식의 자격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 보았
다. 세상에 어머니 대신할 어머니가 없듯이 자식
들 역시 그 누구도 자기를 대신할수 없는 자식이
되어야 할것이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왔다.

아, 어머니!...

나는 고무신임자를 찾는다

-신천박물관 진렬장앞에서-

리영백

얼마나 가슴에 품고 아꼈으랴

현물세달구지 선참 물고 읊에 갔던

새신랑이 처음 사다준 고무신

이랑이랑 맨발로 씨를 묻으며

이람이랑 맨발로 김을 매며

늘 발머리에 고이 벗이 놓던 고무신

애뜻한 사랑과 꽃다운 행복이었다

부엌에서 몰래 신어 보고 끌어 보면

봄날의 흠처럼 마음이 부풀던 고무신

어데 갔느냐

새 생활의 봄꿈을 안은 새각시

소중히 아끼던 고무신임자는 어데 갔느냐

어찌 그를 땅속에서 찾으랴

그는 우리의 생활속에 있다

그처럼 열렬하던 삶의 지향과 꿈은...

타다남은 저 고무신을 불덩이로 안고

그처럼 순결한 인생을 무참히 불 태운

실인귀 미제를 단죄하는 심장들에 있다

그렇다 신천의 고무신임자는

나다 너다

복수자- 우리 인민모두이다!

레루뭇에 대한 시

-새로 발굴한 신천의 59구 유해앞에서-

김명익

내 지금토록 살아 오며 몰랐더라
옥야천리, 푸른 강 지나 질풍처럼 달리는
저 렬차궤도의 레루뭇에조차
증오의 시가 있다는것을

아득히 지구를 휘감으며
산업혁명의 기관차가
인류문명을 싣고 장장 이 세기로 왔거늘
저렇듯 철의 궤도를 따라

하거니 철길의 저 레루뭇이
차마 인간의 머리에 박혔다면
력사여
이것이 과연 산업혁명의 비극이라

오욕하지 않으리 인간문명의 혁명을
하건만 오늘날 신천의 유골에서
철뭇을 뽑았을 때 분명 그 뭇이었으니
오, 두 세기를 이어 인간두뇌에 박힌 레루뭇이여

말하여 다오 신천땅아
어느 나라 어느 족속들이 무엇이 사무쳤길래
철길뭇까지 뽑아다 인간정수리에 찢느냐
인류의 그 살인귀는 미제, 미제, 미제...

생각할수록 이 나라 사람들
미국이란 땅에 돌 하나라도 던졌던가
너희들 철길에서
철뭇 한개인을 뽑아 던진적이 있다더냐

우리는 안다 자칭 《평화의 사도》 랍시며
그 무슨 유혹곡인양, 합주해 대며 내흔드는
《인권옹호》의 화려한 간판들
죄다 철길 레루뭇을 뽑아다 만든것임을

오호라, 이것이 미국이거니
세상사람들 오죽이나 저주해 왔던가
아메리카를 콜롬부스가 발견한건 좋지만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것이나고

인류의 량심이여! 이 시인이 고백하거니
이 땅의 철길뭇에조차
분노의 시가 있는줄 미처 몰랐노라
미제의 조선침략사가 있는줄을

더 말해 무엇하리 태평양 건너
너희들 양키페들이 아니었다면
조선사람들 백년에 백살은 더 살았으리
사람머리에 철길뭇을 치는 살인귀가 없었다면

진정 레루뭇에 증오가 있다
옥야천리 푸른 강 지나 렬차는 달리는데
이 땅엔 저 철길뭇 하나에도
끝나지 않은 복수의 시
민족의 원한이 서려 있구나

그렇다 미제를 멸살시키지 않고는
이 하늘아래 살수 없는 우리는 조선사람들
오, 오! 천추만대를 두고 원하노니
미제 없는 세계에 우리 살리라

가사

걱정 마세요

한채경

천리행군 떠나는 날 그이는 부탁해요
총대가 될 우리 아기 잘 키우라고
아기를 받아 안고 나는야 말했어요
아이참 그런 걱정 아예 마세요
아 군관 안해 대답은 한마디
걱정을 마세요 걱정 마세요

《병사들을 위하는 날》 그이는 당부해요
식탁이 푸짐해야 장수힘 솟는다고
마당 가득 계사니들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이참 그런 걱정 아예 마세요
아 군관 안해 대답은 한마디
걱정을 마세요 걱정 마세요

가족훈련 관정의 날 그이는 물었어요
백발백중 명사수 자신이 있는가고
전투배낭 메면서 나는야 말했어요
아이참 그런 걱정 아예 마세요
아 군관안해 대답은 한마디
걱정을 마세요 걱정 마세요

시행과 운률

리주정

의미적단위인가 운률적단위인가

최근에 발표된 시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이다.

시행은 어떤 단위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문학은 일찌기 가요예술에서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음악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삼아왔다.》

시는 가요예술에서 발생한것으로 하여 음악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름답고 풍만한 서정이 시의 음악성을 담보하는 내용이라면 운률은 그 음악성을 살리는 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간단히 말하여 서정은 시의 음악적인 내용이고 운률은 그 존재방식이다. 그러니 시행은 시의 음악성이 존재하는 구체적단위라는것인가?

가요예술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시행은 악단과 맞물리는 단위이다. 악단에서 소절들이 반복되면서 리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음악적정서를 일정하게 매듭 짓듯이 시행에서도 쌍을 이룬 음절군이 반복되면서 운률적기초를 형성하고 서정은 그것과 조화되어 일정한 기복을 이룬다. 결국 시행은 서정과 운률적기초가 조화되는 단위, 시의 음악성이 존재하는 기초단위인것이다.

운률적기초와 시행

우리 시가의 운률적기초는 성음상 대응하는 내외구의 반복이다. 쉽게 말하면 엇비슷한 음수량과 음향가를 가진 음절군이 쌍을 이루고 그런 형태가 다시 반복되는것이다. 그저 간단히 쌍을 이룬 음절군의 반복이라고 할수 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 주는 거룩한 자옥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중에서-

도식으로 본다면

3/4//3/2//

3/4//3/2//이다.

여기서 3·4음절이 쌍을 이루고 그것이 응축된 형태인 3·2음절이 다시 반복되면서 강한 물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형식을 7·5조라고 한다.

민족시가의 운률적기초에는 8·8조형식도 있다.

백두산 줄기 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올려 가네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

만세 만세 **김정일** 장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중에서-

도식으로 본다면

3/4//4/3//

3/4//3/4//이다.

이것은 8·8조의 변형이다.

8·8의 일반형은 4/4//4/4//이다. 그래서 일명 4·4조라고도 한다.

시의 운률적기초가 매 시행에서 이루어 질 때 류창한 운률이 생긴다.

이삭아//

땀을/ 달라면// 깡그리/ 땀을 줄테다//

살점을/ 달라면// 살을/ 떼줄테다//

갓 서른/ 오르도록// 입밖에도/ 못내본//

사랑! // 그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줄테다//

지어// 목숨을/ 내라면// 목숨까지도/ 바칠테다//

-런시 《전야의 사랑가》중의 시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김정곤)에서 (《조선문학》, 주체90년 1호)-

운률적기초가 한행에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그것이 두번이상 반복되면 운률이 늘어 지면서 끈질기고 검질긴 정서를 나타낸다.

...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다 말올 해다오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리상화)중에서-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겨 봄마저 빼앗긴 우리 민족의 설분과 그것을 찾을 길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 시인은 의도적으로 쌍을 이룬 음절군을 네번이나 반복시키고 있다.

운률적기초가 두개 행을 거쳐 조성되는 경우에는 사색적인 정서가 생긴다.

그것은 행이 끝나면 반드시 호흡을 하면서 정

서적공간을 두기때문이다.

창밖에/ 비 뿌리고//
날이/ 저무니//
가슴 가득/ 떠오르는//
수령님/ 생각//

-시 《창밖에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김석주)중에서-

시에서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눈비속을 헤치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흠모와 숭배에로 독자들의 정서를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을 바꾸어 운률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운률적기초가 세개 행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보다 상념적인 정서으로 독자들을 끌어 들인다.

그립다/
말을 할가//
하니/ 그리워//
그냥 갈가/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시 《가는 길》(김소월)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것처럼 시행이 운률적기초에 맞게 조성되면 시의 음악적형식인 운률이 절로 생기고 그에 따라 시의 음악적내용인 서정도 살게 되는가.

아니다.

문제는 서정에 있다.

운률은 어디까지나 시의 음악적형식인것만큼 시의 음악적내용인 서정과 조화되어야 한다.

한행에서든 두행에서든 이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좋은 것은 한행에서 이루어 지는것이다.

한행에서 서정과 운률이 조화되어야 한다는것은 정형률이어야 한다는것이 아닌가?

자유시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정형률과 자유률

정형률은 중세기에 확립된것으로서 자기 시대의 고유한 특성인 도식성을 가지고 있다. 정형시의 전형적형태는 시조이다.

자유률은 현대인들의 자유분방한 정서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자유률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운률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률이 정형률과 다른것은 우선 음절수선택에서 상대적자유가 있는것이며 다음 쌍을 이룬 음절군의 반복에서 자유가 있을뿐이

다.

정형률에서는 첫행에서 규정해 놓은 음절수를 시전반에서 고착시키지만 자유률에서는 음절수가 시의 정서적내용에 맞게 규정되며 한행에서 쌍을 이룬 음절군의 반복이 꼭 규정되어 있는 정형률과는 달리 한번 될수도 있고 두번 또 그 이상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실례를 통하여 보면 잘 알수 있다.

날거든/ 뛰디마나// 쏘거든/ 솟디마나//
부용을/ 고갯난닷// 백옥을/ 못것난닷//

-《관동별곡》(정철)중에서-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은//

가장 밝은 빛을// 여기에/ 모아 오고//

밤이면/ 펄럭이는// 저/ 기복에// 벌들이/ 미끄러져/ 내린다//

-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박세옥)중에서-

물론 이것은 한행에서의 운률조성 즉 1차운률 조성에서의 차이이다. 행과 행에서 하는 2차운률 조성이나 련에서 하게 되는 3차운률조성에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으나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것이다.

그러면 한행에서 조성되는 1차운률에서 정형률과 자유률의 공통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운률적기초이다. 즉 쌍을 이룬 음절군의 반복이다. 정형률이든 자유률이든 이것이 시운률조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자유시에서도 정서적내용과 운률이 꼭 맞물리도록 하며 그것이 될수록 한행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서정과 운률의 조화는 매행에서 시문장의 완결을 전제로 한다.

시행과 운률

시행에서는 음악의 악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운률이 뚜렷해야 할뿐아니라 서정의 일정한 기복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자면 매 시행에 진술부가 있어 시적대상에 대한 시인의 사상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꼭 짚어 말하면 매 시행이 문장론적으로 완결되어야 한다.

자기 시대를 대표하여 민족의 유산으로 전해오는 시들에서 그런 실례를 찾아 볼수 있다.

시 《김일성장군찬가》(리찬), 《조선은 싸운다》(조기천), 《우리 당의 행군로》(리용악), 《나의 조국》(김상오), 《어머니》(김철)...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누구나 장군은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우리의 장군이 늙어서야 되랴!

-시 《김일성 장군찬가》(리찬)중에서-

이 시는 광복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흥지구
에 가시였을 때 수령님을 환영하는 모임에서 혁
명시인 리찬이 삼가 읊은 송시이다. 조국광복의
밝은 아침 새 조선의 광휘로운 빛발을 안고 오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 없
는 감사와 흠모, 송축의 열렬한 감정이 시인의
가슴에 불 타올라 매 시행에서는 그 열화의 정서
가 운률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

레문을 통하여 알수 있는것처럼 한 시행에서
문장완결이 이루어 진 시들의 근본특징은 시인의
독특한 정서적체질이 시대의 주도적감정으로 승
화되어 숭고한 인민적정서로 토로되는것이다.

이런 시들의 특징은 또한 철학적깊이가 있고
정서가 짙은 어휘, 함축되고 정제된 표현들이 쌍
을 이루고 반복됨으로써 매 시행마다 개성적인
운률이 조성되어 자유분방하게 내려치는것이다.

2개행을 단위로 시문장을 조직하는것은 매 시
행에서 문장을 조직할 때보다 뜻을 펴기는 쉬우
나 그 대신 운률에서 구속을 받는다. 이 경우 대
구적문장을 조성해야 하므로 앞뒤행이 문장론적
으로 맞물려야 하고 그것을 반복전개해야 하므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창작실천에서는 한행에서의 문장완결
과 2개행에서의 문장완결을 시의 정서적내용에
따라 조성하게 된다.

감방속 긴긴 세월의 마른 바람에

눈물도 말라 버린줄 알았는데

웃음도 날려 가 버린줄 알았는데

...

물어 보자, 동지여

어떻게 간직했던가

그 많은 눈물과

그렇듯 깨끗하고 선량한 웃음을

-시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중의 시 《보통
사람》(오영재)에서 (《조선문학》, 주체90년 5호)-

레문의 앞면에서는 뒤의 두행이 첫행과의 련관
속에서 대구를 이루면서 《감방속 긴긴 세월의 마
른 바람》 즉 원수들의 악행과 회유속에서도 변함
없이 참인간의 아름다움인 눈물과 웃음을 간직한
불굴의 영웅들을 생략된 4·4조로 절절히 노래하
고 있다.

뒤면에서는 단순문으로 첫행을 완결시키고 3행
과 4행은 그 행의 수사학적질문에 기초하여 시문
장을 결속함으로써 앞면에서 노래하던 신념과 의
지의 강자, 비전향장기수들의 그 고결하고 순결
한 눈물과 웃음에 레찬을 보내고 있다.

둘이상 행에서 문장을 완결시키는 경우 정서
와 운률을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때는 여러
가지 보조적수법들이 종합적으로 리용되어야 하
므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어떤 시인들은 보조적
수법은 고사하고 운률조성의 기초원리인 성음상
쌍을 이루는 음절군의 반복도 지키지 못하면서 3
행이상 지어 한개면에서 문장을 조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시들은 레외없이 운률이 파괴되었으
며 서정자체도 없다.

초소로 떠나던 날

동구밖까지 따라 나와 온 마을이 배려주던

추억 깊은 풀송구리 오솔길은

가로수 휘늘어 선 대통령

제대병사 그만 어리둥절

-시 《제대병사 고향길 잊었네》(김광호)-

시련은 5개 행으로 되어 있는데 문장론적단위
는 두개이다. 1~4행이 한개단위이고 5행이 한문
장이다. 시를 읊을 때에는 랑송자의 사유가 반드
시 이 의미적구획을 따라 간다. 그러나 사람의
호흡과 력사적으로 형성된 틀감은 8·8조나 7·
5조를 지향한다. 물론 8·8조나 7·5조에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으나 레문의 시처럼 늘어 저 가지
고서는 도저히 의미적구획과 운률적구획을 일치
시킬수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시행을 운률과의 관계속에서
몇가지 서술하였다.

우선 시행은 시의 음악성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위라는것.

다음으로 시행은 운률적기초가 이루어 지는 단
위라는것, 다시말하여 쌍을 이룬 음절군이 반복
되어 운률적기초를 조성하는 기본단위라는것.

다음으로 시행은 정형률과 자유률이 뚜렷이 구
별되는 단위라는것.

끝으로 시행은 문장론적단위와 일치되는 단위
라는것, 따라서 매 시행에서 시문장이 완결될수
록 시의 음악성의 내용인 서정도 살고 그 형식인
운률도 류창해 진다는것.

시행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어떻게 하면 시의
산문화를 막고 운률을 조성하겠는가 하는것이다.

의도는 명백하나 실천은 어렵다. 그러나 우리
의 시인들이 이상의 기초적문제에라도 관심을 돌
린다면 시가 시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를 갖추게
될것이다.

5 월봄명절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음력 5월 5일을 봄명절이라 하여 큰 민속명절로 쇠왔다.

우리 나라에서 봄명절을 민속명절로 쇠기 시작한것은 오랜 옛날부터이다.

우리 인민들은 고대시기부터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봄씨불임을 끝낸것을 축하하면서 즐겁게 노는것을 전통화해왔다. 이것이 오늘의 봄명절놀이로 전해 지고 있다.

고대시기의 봄명절은 농사와 하늘, 산천을 맡은 신에게 그해에 풍년이 들기를 빌면서 제사를 지내고 즐겁게 노는것이였다. 삼국시기에 들어와 봉건적 가족제도가 강화되면서 봄명절날에 시조신도 제사 지내곤 하였다.

이날을 민간에서는 《봄명절날》, 《술의날》이라고 하였는데 술의란 수레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날에 쭈을 뜯어다 수레바퀴모양으로 쭈떡을 만들어 먹는에서 유래되였다.

봄명절때의 특색 있는 음식으로서는 쭈떡, 수리취떡, 설기떡, 귀지떡, 제호탕, 분단, 앵두화채 등이 있었다.

쭈떡은 쭈을 짓찧어서 떡반죽에 넣고 파란 물이 들게 하여 익힌것이였다. 쭈떡은 봄명절에 빠져서는 안되는 독특한 명절음식이었다.

수리취떡은 색깔과 형태가 쭈떡과 같은것인데 쭈대신 수리취를 넣어 만든것이 다른

이였다.

제호탕은 여러가지 약재를 가루내어 꿀을 넣고 달인 약이다.

앵두화채는 빨강게 익은 앵두를 따서 꿀물을 푼데다 넣어 만든 청량음료였다.

쭈, 수리취, 앵두 같은것은 음력 5월에 흔히 나는것으로서 봄명절날을 장식하는 철음식감이였다.

봄명절날에 너인들은 늑가나 진펄에서 자라는 창포잎과 뿌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그러면 머리에 윤기가 나고 머리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지어는 창포못에서 물맞이도 하고 머리를 감은 다음 창포뿌리를 잘라 비너처럼 만들어 머리에 꽂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면 한해동안 머릿도 앓지 않고 무병하다고 하였다. 봄명절날에 사람들은 약으로 쓰기 위하여 쭈과 익모초를 뜯곤 하였다. 5월봄명절때의 약초는 약기운이 올라 약효가 좋다고 하였다.

봄명절날에는 대중적인 민속놀이들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이채를 띠었다.

봄명절날의 놀이가운데서 특색 있는 놀이로는 씨름과 그네뛰기, 탈놀이 등이였다. 특히 봄명절날이라 하면 씨름과 그네뛰기 생각할 정도로 그것들은 봄명절을 장식하는 특색 있는 민속놀이였다.

봄명절날이 되면 온 마을이

떨쳐 나와 남자들은 씨름을 하고 녀인들은 그네를 뛰면서 즐기곤 하였다. 씨름과 그네뛰기는 힘겹던 봄씨불임때에 쌓인 피로를 풀어 주는 즐거운 체육경기이며 신바람나는 구경거리였다.

봄명절날의 씨름과 그네뛰기는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다 하였지만 평양일대에서의 봄명절날과 그네뛰기는 특별히 유명하였다.

5월봄명절의 민속명절을 장식해 주는 특색 있는 큰 놀이는 탈놀이였다. 봄명절날 저녁이면 마을과 거리의 넓은 마당에 등불을 대낮처럼 켜놓고 여러장의 멍석을 깔아 놓은 우에서 탈놀이를 하였다.

탈놀이로 유명한 고장은 함경도 북청의 사자놀이, 봉산을 비롯한 황해도일대의 해서탈놀이, 경기도 양주일대의 산대놀이, 경상도 통영을 중심으로 한 오광대놀이, 강원도 강릉의 봄명절제 등이다.

이러한 민속경기와 민속놀이들은 봄씨불임때에 쌓인 피로를 풀고 체력단련과 호상친목을 도모하는데도 도움을 주었으며 새로운 영농작업에 착수하는데서 흥을 돋구어 주었다.

봄명절은 여름철의 가장 크고 성대한 민속명절로서 추석과 함께 우리 나라의 3대민속명절의 하나로 일러 왔다.

전국가사문학현상모집 요강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 떨쳐 나선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량만을 안겨 주는 선군시대의 참다운 노래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노래가 혁명투쟁과 대중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문학에서부터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명가사를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전 국가사문학현상모집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한다.

1. 현상모집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 숭고한 인민적품모를 노래한 작품.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를 끊임없이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그 불패의 생활력을 노래한 작품.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고 숭배하며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군대,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노래한 작품.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불패성을 노래한 작품.

-반미계급교양과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작품.

이밖에 착상이 기발하며 종자가 참신하고 특색있으며 생활감정이 생동하고 진실한 작품으로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 혁명적인 생활을 반영한것이라면 그 주제령역에서 제한이 없다.

2. 현상모집 참가대상

조선작가동맹 맹원들을 포함한 공화국공민은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다.

3. 현상모집기간

주체91(2002)년 3월 15일~12월 30일

4. 현상모집작품을 보낼 곳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전화번호 321-4817

※ 현상모집작품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통신으로 보내며 우편통신을 리용할 경우 결봉에 반드시 《전국가사문학현상모집작품》이라고 밝힐것.

5. 현상모집총화사업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에서 매달 접수한 작품들을 종합심의하고 우수한 작품들은 현상모집총화에 관계없이 지체없이 노래작곡에 넘기거나 《조선문학》, 《문학신문》, 《청년문학》 등 조선작가동맹기관지들을 비롯한 중앙출판보도물에 발표한다.

-현상모집작품들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여 하며 그 최종심의는 조선작가동맹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현상모집결과(현상모집입선작품)를 매년 2월에 작가동맹기관지들과 중앙출판보도물에 발표한다.

-현상모집입선자들에게는 해당하는 시상을 한다.